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삽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FAX:737-0698 / 광고국:737-0692 / 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4월 2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20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농촌 포교 부재

강원도 홍천군 내면의 한 마을. 해마다 농사를 시작할 즈음인 4월이면 이 마을에 사는 김장호불자는 마을 행사에 나가느냐, 마느냐로 고민에 빠진다. 이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는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음식을 나누는 행사가 열린다. 매년 봄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서 '한턱' 내는 것이다. 교회의 이같은 노력 덕분인지, 이 마을 주민의 70% 정도가 개신교 신자다. 어린이의 경우는 또래집단과 어울릴 수밖에 없어 원하지 않더라도 개신교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든다.

김씨가 도시생활을 접고 이곳에 정착한 것은 지난 97년. 농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3년째니 마을 사람들 도움없이는 살아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지 말라는 곳도 찾아가 귀동냥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마을 행사에 가기가 꺼려진다. 교회에 욱 나오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프로 확대로 사람·땅 살리는 불사를"

"농촌에도 사찰이 많은데 이 교회처럼 행사를 하는 곳은 드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귀농이 늘어나면서 육아와 어린이봐주기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사찰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씨만의 바람이 아닐 것이다. 개신교는 오래 전부터 농촌선교를 위해 교단에서 지원금을 주고, 후원회를 결성해 돕고 있다. 이러니 농촌지역의 불교신자들은 종교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모범적으로 농촌포교를 일구는 사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영주 부석사, 봉화 청량사 같은 경우는 꾸준한 신도관리와 포교로 방생법회에 마을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한다.

몇 년 전부터 불교귀농학교와 불교도농공동체 건설 운동이 시작되며 그나마 농촌포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싹이 돋아나고 있다.

농촌포교는 단순히 신도늘리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농촌포교는 농촌살리기 이며, 이는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통해 땅과 사람을 살리는 불사이다.

정성운 기자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TV 새 경영진 구성

부채해결 조건…실무이사 6명 영입키로

사장에 허문도씨

경영악화로 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던 불교TV가 새 사장 선임으로 한가닥 희망을 갖게 됐다.

불교TV 이사회는 22일 마포 석불사에서 제2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허문도씨(60·전 통일원장관)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허씨는 "부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불교TV가 올바른 불법을 전달할 수 있는 수레바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대표이사 신허스님을 비롯 31명의 이사 가운데 18명(위임 9명 포함)의 이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허씨를 5월10일 임시주주종회의 이사 추대를 거쳐 당일 열릴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키로 결의했다. 또 허씨가 추천한 실질적 재정 지원자인 정계식씨(경국관매 대표이사)와 강순이씨(실업인), 신허스님이 추천한 이수덕씨(동진메카트로닉 대표), 종단 추천이사 2명 등 6명(대표이사 포함)을 실무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이로써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위기에 놓여 있던 불교TV는 기사회생할 것으로 보인다.

허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배경에는 재력가로 알려진 정계식(鄭桂植)씨의 후원이 있다. 정씨는 불교TV의 경영진과 몇 차례 가진 면담에서 자신은 부채해결 및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하는 대신 허씨의 사장 선임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씨는 현 불교TV 경영진에 부채해결에 필요한 70억원과 운영자금 10~30억원을 단계적으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최대주주인 태응스님도 새 경영진에 자신의 의결권 위임의사를 전달했다.

불교TV는 5월10일 새 대표이사 취임전까지 경영 인수팀을 구성해 새 경영진에게 경영 현황 보고를 포함한 인수 인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또 5월 10일 총지사에서 임시주총과 정기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종단차원 불교TV 경영 참여"

조계종 bh특위 결의

조계종 bh특위(위원장 정휴스님)는 21일 4차 회의를 열고 불교TV 경영에 종단이 '주체적'으로 참여키로 결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불교TV 경영 실무 이사에 종단이 추천한 2명의 이사 선임을 조건으로 22일 열릴 불교TV 이사회의 새 대표이사 선임건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성운 기자

'건축법 8조 4항' 적극대처

조계종-문화부, 재개정 · 대체입법 요구

'도시미관 ·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축법 8조4항의 폐지와 관련, 조계종총무원이 적극 대처에 나섰다.

총무원은 12일 청와대 경제수석과 교육문화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회 건설교통위, 국회정각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건축법 8조4항을 삭제한 조치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하며, 이의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이에 앞서 대책회의를 열고 종단 고문변호사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한편 정부 및 국회에 건축법의 재개정 및 전통사찰보전법의 경내지 확대, 문화재보호법의 강화 등 대체입법을 요구키로 했다. 또 피해 및 피해예상 사례 수집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총무원의 재개정 요청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16일 건설교통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사찰 및 문화재 주변의 환경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삭제된 건축법 8조 4항이 존치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이같은 조치를 총무원에 알려왔다. 문화관광부 외의 정부 부처 및 국회에서는 23일 현재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유재산권 행사의 보호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관단 최소화로 부조리 소지를 차단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해 4월 건축법 개정안을 입안, 관련부처 협의와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2월 8일 공포했으며 5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성운 기자

사면안등 처리할듯

5월11일 조계종종회

조계종중앙종회(의장 법등)는 23일 종회사무처에서 의장단과 총무분과위원, 각 상임분과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140회 임시중앙종회를 5월 11일 하루 동안의 회기로 열기로 했다.

이번 종회에서는 총무원장이 요청한 사면동의안과 직능직 중회의원 선출위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봉정사의 英여왕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 한국 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인 봉정사 극락전(국보 15호)과 법고 시연등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21일 안동 봉정사를 찾은 엘리자베스여왕은 봉정사 극락전과 만세루를 돌아보고 범종타종과 법고시연을 감상한 후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와 경건한 종교의식에 매료돼 "너무나 아름답고 인상적이다"며 불교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관련기사 22면>

안동=고영배 기자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을

조계종 사회복지 법인 승가원이 운영하는 원주 치악산 소쩍새 마을. 이곳은 부랑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들 3백여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소쩍새 마을은 현재 강원도 횡성에 새로운 보금자리 승가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소쩍새들의 보금자리 건설불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불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본사는 승가원과 함께 소쩍새 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동참비: 1인1등 1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접수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음 양) 영가등도 접수 받습니다.
△접수기간: 3월3일~5월 21일
△입금계좌
- 한빛은행 059-170968-13-001
- 외환은행 142-22-01704-2
- 국민은행 093-01-0293-459
- 우 체 국 011809-0332390
- 농 협 063-01-1921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승가원 소속 스님 13분이 축원해드립니다.

조계종 '달마넷' 서비스 시작

40여 사찰 · 신행단체 홈페이지 개설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22일부터 불교종합정보망 달마넷의 인터넷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

달마넷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등화사 선문사 등 40여 사찰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3백명의 불교인물, 1천여개의 기본적인 불교용어, 교리, 경전 등의 자료가 올라 있다.

주소는 www.dharmanet.net.

조계종은 올해 말까지 5백여 사찰과 2백여 불교 기관 및 단체의 홈페이지, 불교홈페이지 검색엔진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달마넷추진본부장 만성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불교계의 정보화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정보화 촉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서비스 개시 의의를 설명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전통사찰 농지취득 가능

내달부터…농림부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확실시됨에 따라 빠르면 5월부터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이 가능해진다.

농림부는 시험 · 연구 · 실습지 등의 용도로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전통사찰을 추가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28일 이후 법제처 심의를 거치면 농림부장관의 공포로 개정안이 확정된다.

그러나 농림부는 시행규칙에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 범위를 당해 사찰의 시 · 구 · 읍 · 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 구 · 읍 · 면으로 한정했다. 또 조계종이 요구한 농지 취득절차 간소화와 사찰주지 소유 농지의 사찰소유로의 명의 변경은 형평성 침해와 농지법 외의 사항이라며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성운 기자

경주 불교예술대전 입장권 할인판매

'99 한국불교예술대전을 후원하고 있는 본사는 독자여러분에게 정가의 15% 할인된 입장권을 배포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입장료 : 1인당 어른 5,000원, 청소년(중 · 고생) 3,000원, 어린이(만4세 이상) 1,000원
문의 및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사용, 견고함을 자랑하는 연등 입니다.

•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에 찢어지거나 장대비 속에서도 결코 젖지않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 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희려함을 자랑합니다.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장기간 사용후 돌세척으로 새 것처럼 깨끗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몰 · 부다피아
● 납품방법 : 신청하신 곳으로 직배 · 택배 발송
※ 촛대, 등걸이, 이름표 포함

접등과 조립등은 몰 · 부다피아에서만 구입 가능 합니다.

접 등

장엄팔각접등은 풀칠과 조립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한번의 동작으로 펴서 사용하고, 접어서 보관하는 팔각등입니다.

■ 팔상성도 (八相成道)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의 여덟가지 중요한 주생제도를 위한 모습
①도솔래의상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
②비람강생상 룸비니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
③사문유관상 사방의 문으로 나가서 중생들의 고통을 관찰하 는 모습
④유성출가상 성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
⑤설산수도상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
⑥수하항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들을 항복시키는 모습
⑦녹원전법상 녹야원에서 최초로 법륜을 설하시는 모습
⑧쌍림열반상 사라쌍수 아래에서 마지막 설법을 마치시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

이 연등은 기술 특허 출원 중 입니다.

· 팔상성도 장엄 팔각등(자비충만 일체법계)



· 반야심경 장엄 팔각등(만법일여 일체법계)



◆규격 : 표준 11cm
◆가격 : 2,200원

조 립 등

조립등은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보관되며 사용시 펴서 홈에 맞추어 넣는 간단한 방식으로 뛰어난 색감을 자랑합니다.

◐ 봉축 장엄팔각등



◐ 만다라 장엄 팔각등



◆규격 : 표준 11cm ◆가격 : 1,840원

사 설

건축법 8조4항의 문제

정부가 행정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건축법 제 8조4항을 개정하자 불교계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돌출하고 있다. 그동안 사찰주변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보호하는 울타리 구실을 해온 법적 장치를 걷어냄으로써 앞으로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일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래 건축법 제 8조4항의 입법취지는 신축 건축물이 미관을 해치고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한 문화환경보호적 발상에 의한 것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이 조항을 폐지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보다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허가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차단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사적 이익만을 보장하는데 급급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을 무시한 개악이다.

어째서 그런가는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법흥사, 제9교구 직지사, 한국불교 최고수행도량인 문경 봉암사, 전통사찰인 선산 원각사 등이 당장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차단막이 사라지자 벌써부터 사찰 주변에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년 수행도량 코밑에 대형음식점과 위락시설을 짓겠다고 나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 문제를 좀 더 사려깊게 따져보지 않은 것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당초 건축법 8조4항을 존치할 때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민원이 따르고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한다면 이를 보완할 대책은 무엇인지를 먼저 충분히 연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목표 하나만을 생각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렇게 어이없는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종단의 행정력 부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지난해 이미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종단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 그러다가 개정건축법이 시행되자 뒤늦게 발을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이 법이 국회로 넘어가 개정될 즈음에는 종단분규로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것은 이유가 안된다. 이미 개정된 법을 다시 고치거나 보완하려면 얼마나 힘든 가를 생각할 때 종단의 관련 부서 관계자들의 늑장대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후사정이야 어찌 됐든 이제 급하게 된 것은 불교계다. 이 문제에 대한 사후적 보완이 없을 경우 많은 사찰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만다. 만약 엘리자베스 여왕이 찾아갔던 안동 봉정사 같은 유서 깊은 전통사찰 앞에 어울리지 않는 먹자판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흉칙하겠는가. 이는 불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화정책적 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불교계와 관계당국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반문화적 반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다시 건축법을 재개정해서 8조4항을 부활 존치하거나 전통사찰보존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경내지 인접지역의 개발을 규제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결코 불교계의 종교적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다. 사찰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 보호가 곧 국가의 문화의식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관계자들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신도수계 체계화 시급"

조계종 포교연구실 '포교방법 개발 의식조사' 결과 발표

불교교양대 수강생 전문직종사자 비율 높아져

불교교양대학이 다양한 직종의 신도와 남성불자의 확보 통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도의 수계가 계율 수지에 대한 절차나 교육과정 등에 대한 체계 없이 무질서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신도교육 및 수계제도의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화암)이 21일 발표한 '포교방법 개발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에서 파악된 것. 이번 조사는 포교연구실이 지난 98년 10월부터 전국 30여 사찰 법회에 참석한 일반 불자 682명과 불교교양대학 수강생 391명 등 1,073명을 대상으로 한 '불자들의 종교생활 및 포교에 대한 의식조사'와 스님 132명, 포교사 749명 등 881명을 대상으로 한 '포교 종사자의 의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대학 수강생 중 전업주부(30.6%)의 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지만 자영업자(28.1%)의 분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의사 변호사 교육자 언론인 등의 전문직(10.6%)이나 회사원(7.8%), 군인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8.6%)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편 수계제도의 관리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응답자의 31%가 수계를 받지 않았으며, 보살계 수계자의 82.6%인 266명이 신도의 기본계인 오계 수계조차 받지 않은 채 곧바로 보살계를 수계한 반면 17.4%만이 오계와 보살계를 함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불자들의 평균 신행기간은 12.7년이며, 응답자의 50.4%가 10년 미만의 신행기간을 나타냈고, 경제난이 극심해진 1998년 한해만 응답자의 11%가 불교에 입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앙이유로는 불자의 50.9%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20.7%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18.5%가 성불하기 위해 불교에 귀의한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불자들이 기복성이 약하고 일상성이 강한 경향을 보여줬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한국불교 승직제도' 5월7일 학술회의

조계종 불학연구소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도원)는 5월 7일 중앙승가대학교 정진관에서 '한국불교 승직제도의 역사와 현실'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김영태 전 동국대교수가 '삼국 통일신라시대의 승직제도'를, 허응식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가 '고려시대의 승직제도'를, 이봉춘교수(동국대)가 '조선시대의 승직제도'를, 박경훈씨(역경위원)가 '한국근대승직제도'를, 종범스님(중앙승가대교수)이 '한국현대 승직제도와 승가규범'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종단 토지매각 이전비 확보"

조계종 승가대특위 案 제시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공사비 확보방안으로 종단소유의 땅을 매각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승가대김포학사 대책특위(위원장 종하)는 22일 소위원회를 열고,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공사 자금조달방안으로 직할사찰인 경기도 부천의 흥천사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각예정 토지는 30필지 1만2천여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계사 및 태고사 명의의 토지 실태파악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소위원회는 흥천사 토지매각은 재감정을 통해 종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조계사와 태고사 소유의 토지는 충분한 현황파악후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또 중앙승가대 이전 특별분담금 미납금을 빠른 시일내에 납부토록 교구본사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속초 보광사를 조계종으로 이관해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은자 기자

"신도증 만듭시다"

탤런트 남일우-김용림씨 가족

조계종 신도증 홍보용사진 촬영

"온 가족이 신도증을 만듭시다."

불자 탤런트 김용림씨 가족이 조계종 신도등록 홍보용 포스터에 등장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스님)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조계종 신도증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을 위해 원장 정련스님 등 포교원 소속스님, 남일우(61)·김용림(59)씨 부부와 아들 남성진(30)씨, 봉은사 신도 등을 출연시켜 사진을 찍었다.

서울 삼성암 신도인 김용림씨 가족은 이번 촬영을 계기로 가족 모두 조계종 신도증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불자 집안이 되었다. 불교방송에서 9년째 '신행 365일'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림씨(붓다회 회장)와 불교전문 책방 여시아문을 자주 찾으며 불교공부에 열심인 남일우씨, 아들 남성진씨는 가장 모범적인 탤런트 가족으로도 유명하다.



◇신도등록 홍보용 사진을 촬영한 남일우씨 가족.

한편 포교원은 현재 15만2천여명이 신도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신도 등록을 원하는 불자들은 재적사찰에 사진 3매와 교무금 1만원을 제출하고 신도등록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김재경 기자

전국 불교사회복지대회 연다

5월12일 세종문화회관

전국 불교사회복지대회가 5월 12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단위의 불교사회복지대회라는 점에서 불교사회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된다.

대회는 사회복지시설단체운영 및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후원, 사회복지진흥 등 네 부문에 걸친 공로패 수여식과 '정보화시대의 가톨릭 사회복지 전망' '정보화시대의 불교 사회복지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종헌종법 전문 등 개정논의

조계종 종헌·종법개정특위 소위원회(위원장 정휴)는 20일 회의를 열고 종헌·종법 개정을 위한 전문을 비롯 24장의 종헌 가운데 8장 중앙종회 부분까지 검토하며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위가 종헌·종법 개정과 관련해 기관지를 통해 접수한 의견 가운데는 △교육원과 포교원의 통합 △본사주지의 종단 입법, 예산, 종책수립에 참여 보장 △본사주지의 종회의원 당연직 겸직 △비구니부서 신설 등의 제안 △본사주지를 본사 자율 또는 중진 협의 추대 △종회의원 투표권자 승납 상향 등 종단기구 개편과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현호·법일스님 제적

조계종 재심호계원 확정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21일 14차 심판부를 열어 현호, 법일스님에 대해 제적의 징계를 확정하는 등 15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돈명(은해사 부주지), 기연스님에 대해서는 심리를 연기했다.

△자용(수국사 주지), 각진-공권정지 5년 △현일, 원경-공권정지 3년 △정인-공권정지 2년 △덕조-공권정지 1년 △진육-면직 △각신, 각원, 법명, 계선-문서견책.

정성운 기자

알 림

TV 인터넷 불교정보사업 시작합니다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 '컴맹'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보는 TV에 인터넷TV 수신기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에서 PC통신 전자우편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인터넷 안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불교정보화에 앞장서온 본사는 홈TV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TV'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 TV를 통해 종단 종무행정 네트워크와 포교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개시합니다. 인터넷 TV에 가입하시면, 종단이나 사찰의 각종 공문, 법문자료 등을 인터넷TV로 송·수신할 수 있으며 불교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종단과 사찰, 불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가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략정보실
(02)732-1520·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이렇게 되서야…

'99 한국불교예술대전
Korea Buddhism Expo'99

'99 한국불교예술대전

-37일간의 불교예술여행 4월30일부터 6월5일까지

1600여년! 민족의 삶과 함께한 장구한 불교문화!

이제 새천년을 맞아 우리민족의 삶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전통불교예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선조들의 예술혼과 하나되는 만남의 장인 '99한국불교예술대전이 신라천년의 고도! 부처님의 자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경주에서 열립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을 포함한 25개 종단이 범불교적으로 참여하는 이번한국불교예술대전은 '2000년 세계불교EXPO'의 전초로서 한국불교예술의 우수성과 진수를 한자리에 모아서 민족의 염원과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이 될것입니다. 부처님의 그윽한 미소와 선조들의 단심어린 예술혼, 현대인들의 삶이 하나되어 어울리는 축제의 한마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9한국불교예술대전 조직위원회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장 오 고 산



이벤트

- 종단의 날 - 25개종단의 문화소개 및 포교활동
- 큰 스님 대법회
- 화혼의식 - 불교 전통 혼례의식 재현
- 선무도 무술시범 -스님들의 야외무대 무술시범
- 스님 레크레이션 -스님이 진행하는 관람객과 함께하는 무대공연
- 공모행사
  - 찬불가 공모행사
  - 불교 합창제
  - 불교 관련 캐릭터 공모
- 공연
  - 육법공양의식
  - 대구불교방송예술단
  - 꽃공양 대법회
  - 영산재
  - 인간문화재 엄옥자의 춤
  - 박연진 무용단
  - 박진의 상명여대 무용단
  - 이정화 전통춤
  - 김미숙 무용단
  - 변지연의 춤
  - 부산여대 행경 무용단
  - 엄옥자 한국민속 무용단
  - 김미자 무용단
  - 양길순 무용단
  - 이명미 무용단
  - 아미타 보컬(Rock Live Concert)
  - 불자가수 공연
  - 시연 퍼포먼스
  - 동국 국악 예술단

전 시

- 주제관
  - 영상관 - 불교문화 다큐멘터리 영상 자료 상영
  - 전시관 - 한국불교 역사,문화,의식,실물모형전시
  - 법 당 - 법당 복원 및 관람객 예불의식 참여
  - 공연장 - 불교 관련 특별초청 공연
- 예술관
  - 미술관 - 전통회화,조각,현대미술,목판화,의상전,사진전
  - 유물관 - 문화재급 사찰 유물전시
  - 건축관 - 불교사찰 건축양식과 건축모형
- 체험관 (작가들의 시연등을 통한 우수한 불교문화 체험)
  ※체험프로그램
  - 팔만대장경 판각, 만다라, 선화, 불화, 민화, 한지 제작 체험
- 용품관 (불교소품 전시 판매)
- 전통사찰 음식관 (사찰음식 소개 및 시식공간)
- 사리친견

■장소 : 경주 보문단지 세계문화EXPO 행사장
■주최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 한국불교예술대전 조직위원회

한국불교예술대전조직위원회
서울 TEL:(02)736-7293~7 FAX:(02)736-7298
경주 TEL:(0561)745-0374~5 FAX:(0561)745-4221
http://www.buddhismexpo.co.kr

기사회생…경영 정상화 기대

새 경영진 영입한 불교TV 향방

악성부채 해결등 운영자금 마련 '숨통'

"범종단 관심가져야 공영·투명성 가능"



◇22일 불교TV 이사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허문도씨.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허문도씨가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되고 조계종이 경영정상화에 각별한 관심을 표출 함에 따라 불교 TV는 '기사회생'의 단초를 마련했다.

허문도씨의 사장 선임은 경영난 타개의 제_ 조건인 자금문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조계종 btn 특위가 종단이 추천하는 이사 2명을 경영 일선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불교TV의 정상화에 종단적 역량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경영의 변화

불교TV는 이 두 호재를 배경으로 '급한 불'을 먼저 끄며 경영 정상화의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24일 성업공사로 이관된 국민은행 부채 21억원을 비롯 70억원에 달하는 악성 부채.

현재 불교TV는 부채 제반 서류가 성업공사로 이관되면서 신용불량 적색거래회사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일단 21억원만 상환한다면 숨통은 트이게 된다. 금융기관의 신용 대출이 일체 금지된 적색 분류 낙인이 일단 풀리게 돼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불교TV 안팎에서는 허문도 사장의 재정지원자로 알려진 정계식(경국관매대표이사)씨가 일정량의 자금을 풀어 긴급 수혈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0대의 기업인 정씨는 제3 금융권인 한국엔젤투자와 10여개의 주유소를 경영하는 등 부산 지역에서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새 경영진은 70억원의 악성 부채를 갚는 동시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10억~3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단계적으로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불교TV의 최대 주주인 태응스님이 주식의결권을 새 경영진에게 위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 입장

불교TV노조(위원장 신동우)는 허문도 씨의 사장 선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위기의 극단에 선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새로운 경영책임자가 선임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노조는 이번 이사회에서 사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사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결사적인 시위를 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였었다.

사장이 선임된 시점에서 노조는 새로운 경영 주체측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방송의 공영성 강화와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유병탁 노조 사무국장은 "공영성 강화와 경영의 합리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로서는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 밝혀 절대적인 우호의 입장은 아님을 시사했다.

따라서 불교TV노조는 우선 정상화를 위한 대열에서는 새 경영주체와 힘을 모으겠지만 경영정상화를 빌미로 표출될 비합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btn특위 반응

조계종 btn특위 위원장 정휴스님은 허문도 사장의 선임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허씨는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실세로 활동하며 언론 통폐합을 주도했던 경력 때문에 자칫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과 "과거 문화공보부 차관의 이력이 말해주듯 언론에 대해서 잘 아는 인물이고 영상 포교에 대한 의지도 있어 이런 점을 잘 활용한다면 불교TV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그러나 정휴스님은 허사장의 이러한 이미지와는 상관없이 불교TV 정상화에 대한 종단적 관심과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불교TV의 정상화를 위한 자체적 노력을 지켜보며 거들어 줄 사항에 대해서는 종단의 힘을 보태겠다는 기존의 입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계종은 btn특위를 계속 가동하며 새 경영진의 행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찰 수행환경 훼손 불보듯

'건축법 8조 4항' 폐지와 불교계 영향

사유지 건축규제 불가능
식당등 무분별 건립예상

건축법 8조4항을 폐지하자 사찰주변에 대형음식점등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사찰의 수행환경 침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 직지사 산문과 바로 접한 지역에 7건의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직지사에 따르면 곽모씨 등 3인이 직지사 일주문 안쪽과 바로 옆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김천시에 요청했다. 곽씨는 직지사 광장과 맞붙은 자신의 땅 9백60평에 대형음식점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김천시가 건축법 8조4항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불허했지만, 곽씨가 최근 대구지법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개정된 건축법이 5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판결이 어떻게 날 지 주목된다.

일주문 안과 바로 옆에 대형음식점이 들어설 경우 수행처로서의 직지사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릴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다. 더욱이 경북안동 연미사 마애미륵불 앞 근린생활시설 허가 등 직지사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사찰로 확대될 소지가 많다.

개정 전 건축법 8조4항에 근거해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사찰주변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이 훼손되거나 문화재보호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건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규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사찰주변의 사유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사찰주변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문화재보호 환경이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사찰환경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20조, 즉 보물 등의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백m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뿐이다. 그러나 한계선만 벗어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 환경 침해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없다.

이에 따라 △건축법 8조4항을 되살리는 재개정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보호구역 경계의 확대 △전통사찰보존법의 경내지 범위 확대(현재는 사찰 소유 토지를 경내지로 규정하고 있다) 등 대체입법만이 대안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목어

바른 잣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여러가지 잣대가 있다. 조화로운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잣대이지만 이는 이상일뿐 실제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다.

통계적인 평균을 정상이라고 보는 잣대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잣대는 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건강하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 가령 모든 사람들이 안경을 끼고 있다면 평균적 개념으로는 정상범위일지는 모르지만 조화로운 건강의 개념으로 본다면 모순을 갖고 있다. 어느 하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과정을 중요한 잣대로 보는 개념은 끌린다.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성장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과정에 걸맞는 행동과 사고는 정상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길게 늘어 놓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거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무엇이나 결과에만 치중하여 과정의 잘못이나 불법성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결과만 좋으면 무엇이나 양해되는. 아니면 오히려 돋보이는 잘못된 관행 속에 오래 살아온 덕분이다. 과정이 옳지 않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설령 남이 보기에 결과가 올바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올바른 결과가 아니라 요행히 올바른 것처럼 일시적으로 위장될 뿐이다.

아프리카의 남아연방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청소년세계축구대회에서 일본의 결승진출을 놓고 이변이 일어났다고 난리다. 2002년의 월드컵을 주최하는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출전하여 한국은 예선에서 탈락하고 일본은 결승행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양국간의 축구 발전에 쏟은 과정을 한번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의 불운도 아니지만 더욱이 일본의 기적도 아니다. 어떤 과정을 밟더라도 결과만 좋다면 하고 밀어붙이는 관행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지난번 몇곳의 보궐선거에서도 일단 되고 보자는 불법적 행태가 바로 그런 관행의 일부다. 올바른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랜 관행이 불건강한 개인과 비정상적인 사회를 낳게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사회적 개혁은 잘못된 관행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거다.

이근후(본지논설위원·이화의대 교수)

"조계종 포교 소극적" 40% 응답

조계종 '포교의식 조사' 설문분석

남자는 참선-여자는 염불 선호

"계층별 포교방법론 개발해야"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화암)이 21일 발표한 '포교방법 개발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는 단순한 현황 파악이 아닌 포교의 주체와 대상의 의식을 직접 점검하고자 한 전국적인 규모의 기초통계 조사였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다른 의욕적인 조사사업이었다.

이른바 '적극적인 불자'를 상대로 한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98년 갤럽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불교신도 가운데 약 21%에 해당하는 정기적 신도층의 신행실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45.2%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법회에 참석한다고 응답, 97년 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1.2%와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 것도 이 때문이다.

입문동기 일반 불자들 가운데는 68.6%가, 불교교육 경험자는 80.2%가 자율적인 동기로 입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불자가 타인의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 불교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행활동 불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 의존도가 높고 신심도 깊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호하는 신행은 법회참석(22.3%) 염불(21.5%) 절하기(15.6%) 참선(14.4%) 독경(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참선(남성은 20.4%, 여성은 11.4%)을, 여성은 염불(여성은 24.7%, 남성은 14.2%)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교활동 평가 종단의 포교활동에 대해서는 일반 불자의 36.9%, 포교사의 40.6%가 소극적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포교사들은 '스님들의 의식부재'(30.3%) '선불교의 전통 때문'(20.1%) '포교정책 부재'(19.7%) '전문성 부족'(14.1%) 등을 꼽았으며, 일반불자들은 '종단의 포교종책 부재'(23.6%) '스님들의 의식부재'(19.0%) '선불교의 전통 때문'(18.3%) 등을 들었다.

성별특성 설문에 응한 일반불자들 가운데 남자는 33%, 여자는 67%로 여성 불교인구가 2배 정도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반면 일반 법회에 참석한 남성은 29.1%였던데 비해 교양대학에 수강하는 남성은 39.8%를 나타내고 있어 불교교양대학 등 불교교육기관이 남성 불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교육수준 조사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12.6%, 고졸 48.3%, 초대졸 이상 36.5%로 나타나 불교신자는 저학력층이 많다는 일반의 시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줬다. 포교사의 경우 고졸이하는 27%, 대졸은 57.4%, 대학원졸 이상은 15.6%로 나타나 고학력층이 집결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문제와 대책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하는 방법론의 개발과 신도 지도이론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불교가 보유한 문화와 문화재 등 포교 자변을 십분 활용한 포교활동과 대면권유활동 등을 비롯한 각종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포교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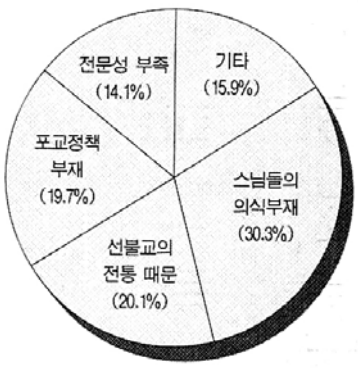
▲남성 불자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인 불교대학의 신설을 적극 유도하는 등 신도교육기관의 확대와 회사원, 학생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부여가 절실하다.

▲신도들의 수계절차와 교육체계를 종단적으로 통일해야 할 과제도 안게 됐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선호하는 신행



◇종단 표교활동이 소극적인 이유
(포교사의 시각)

송광사 삼월불사 및 가사불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효봉, 구산, 일각선사로 이어지는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牧牛家風을 계승해 왔으며,
20여년 전부터 불일국제선원을 개설하고, 하계수련회를 매년 개최, 국내외에 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이 모든 정진과 불사는 先師스님들의 加護와 叢林大衆의 如法한 精進, 그리고 전국 불일회원과 사부대중이 수희 동참한 원력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에 기묘년 三月佛事에는 보조국사 종재 대법회를 봉행하고, 보살계 수계산림과 人天의 무루 복전인 가사불사 회향식을 성대히 갖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동참하신 사부대중과 전국 불일회원은 물론, 뜻 있는 모든 불자들의 수희동참을 거듭 바라면서 이 인연 功德으로 다 같이 복혜가 구족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법회안내

1. 일시 : 불기 2543(1999)년 5월 10일(음, 3월 25일) ~ 5월 12일(음, 3월 27일) 3일간
①음, 3월 25일(5월 10일) 오후 7시 보살계 입재
오후 8시 보살계 심지법문
②음, 3월 26일(5월 11일) 오전 7시 보살계 계율설법(법문)
오전10시 4차 가사불사 회향
오후 1시 전국불일회 임원총회
오후 2시 보살계 계율설법(법문)
오후 7시 전국불일회 정기총회
③음, 3월 27일(5월 12일) 오전 7시 보살계 수계의식
오전 9시 법성도 요잡의식
오전10시 789회 보조국사 종재 봉행

3.동참방법 : 삼월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이나, 가사불사 동참을 희망하시는 분은 송광사 종무소와 아래 명기된 연락처에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연 락 처 : ①본사 :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 광 사
종무소/전화 0661)755-0107, 0108, 0109 전송 0661)755-0408
②지역 : ·서울분원 법련사 02)733-5322 ·광주분원 원각사/062)223-3168
·대구분원 관음사 053)421-3700 ·순천분원 대승사 0661)744-4902
·부산분원 관음사 051)205-0069 ·부산분원 보덕사 051)518-7790
·여수분원 보현사 0662)662-5145 ·광양분원 보광사 0667)763-1192
·송광사 각 말사 암 ·각 지역 불일회

5.동 참 금 : ①삼월불사 보살계 수계동참금 30,000원 ②영가천도 동참금 10,000원
③가사불사:한가족 한벌 동참금 300,000원

온라인 번호
① 농 협 615107-51-008814(예금주 송광사)
② 우체국 501676-0014699(예금주 송광사)
③ 국민은행 551-01-0470-485(예금주 송광사)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540-930)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 광 사 주지 현 지 합장

"그늘진 곳에 자비 펼칠터"

구미 금오종합복지관장 법등스님



"복지 속의 복지, 이것이 제가 평소 품고 있었던 복지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도움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도움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29일 개관하는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법등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사회의 어두운 곳 구석구석에까지 부처님의 자비가 드리워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등스님은 오래전부터 복지사업을 꿈꿔왔다. 직지사에서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마침 LG그룹에서 구미지역에 복지관을 지어 기탁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복지관을 수탁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단발적으로는 제대로 복지사업을 펼치기 어렵다고 판단, 복지관을 통해 포교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울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모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지만, 특히 노인복지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둘 생각입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10년간 점자불서 4만5천권 보급"

국민포장 혜광맹인회장 김부봉씨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1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한 김부봉씨(61)는 교계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아버지로 불린다. 혜광맹인불자회를 창립하기도 하고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장과 대한맹인복지회 이사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국민포장도 이런 김씨의 공로에 대한 상이다.

김씨는 89년부터 지금까지 10여년간 〈불교성전〉과 〈금강경〉 등 20여종의 불교서적 4만5천여권을 점자서적으로 만들어 보급했을뿐만 아니라 법당을 설립해 불교를 통해 이들에게 재활의지를 심어주었다.

"30년을 시각장애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편안히 쉬고 또 삶의 의지를 가꿔나갈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자신이 1급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반평생을 시각장애인을 돕우며 살아 온 김씨. 각박한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보살행이란 바로 이런 것임을 깨우쳐 준다.

한명우 기자

교차로

통일고문자격 금강산 답사



월주 조계종 前총무원장은 김대중대통령의 통일고문 자격으로 통일고문 17명과 24일 금강산 답사에 참가했다. 이번 금강산 답사는 금강산관광이 세기말 한반도에서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구로복지관 개관 4돌 행사



도후 구로종합사회복지관장(신흥사 주지)은 30일 복지관 개관 4주년을 기념, 경로 및 주민위안잔치를 갖는다. (02)852-0525

日서 조불협과 교류협의



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스님은 조불협 관계자들과 남북불교교류와 문화재 실태파악 및 일본에서 희생된 영령들의 봉안문제 등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19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日 오사카 관음사 상량



원연 일본 오사카시 이쿠노쿠 관음사 주지는 5월12일 관음사 상량식 및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관음사는 12월5일 낙성 예정이다.

태국지원 개원법회 참석



대행 한마음선원 원장스님은 23일 태국지원 개원법회 참가차 태국으로 출국했다. 스님은 25일 한마음 선원 태국지원(지원장 혜단) 개원법회에서 법문하고 5월2일 귀국한다.

강동서 경승실장에



각성 서울 길1동 약사포교원 주지는 17일 강동경찰서(서장 이길상) 소회의실에서 경승실장에 위촉됐다.

중앙대 예술대학원서 강연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삼성출판사회장)은 21일 중앙대 예술대학원 박물관 미술관학 전문과정에서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강의했다.

제1회 유채꽃 걷기대회



선상규 한국체육진흥회장(동국대 교육방송국장)은 24, 25일 양일간 제주 서귀포시와 공동으로 서귀포시 일원에서 2002년 월드컵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제1회 유채꽃 국제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국학자 임창순씨

서예와 한시를 비롯한 국학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청명 임창순(85·전 성균관대 교수) 옹이 12일 서울 강남삼성 의료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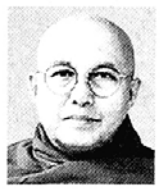
1914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한문을 공부했으며 대구사대 전임강사,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62년까지 재직하다 퇴직한 뒤 태동고전연구소를 63년에 설립해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또 문화재위원을 지냈으며 85년부터는 한림대 교수로도 재직했고 한국서지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금석집성〉등 국학분야의 많은 책을 남겼다.

동국대 김장호교수

김장호 동국대 명예교수가 18일 오후 9시45분 서울대학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0세. 발인은 21일, 장지는 관교 공원묘원이다.

반야사서 禪 법문

미얀마 우 자나카 스님



세계적인 위빠사나(行禪) 지도자인 우 자나카 스님이 위빠사나 수련회에서 법문·지도하기 위해 5월2일 방한한다.

25개국을 순방하며 외국인에게 위빠사나를 지도하고 있는 자나카 스님은 5월 6~19일(오전 4시~오후 9시 수련) 경기 여주군 흥천면 다대리에 소재한 위빠사나 전문선원 반야사(0337-884-0107)가 주최하는 수련회에 참석, 법문과 함께 직접 수련법을 지도한다. 이어 5월15일 오후 5시 서울 정신세계원(원장 송순현, 02-747-7033)이 주최하는 법회에서 미얀마의 전통 수행법에 대해 법문할 예정이다.

우 자나카 스님은 미얀마 2대 선원 중의 한 곳인 참메선원 조실로서 마하시 테크닉(위빠사나 전통 수련법)의 정통을 이어 온 미얀마의 대표적인 고승. 특히 참메선원은 한국 스님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재경 기자



원성스님 구도세계

MBC 다큐 28일 방영

동승의 작가 원성스님이 28일 MBC-TV 휴먼다큐 '우리는'을 통해 구도와 그림의 세계를 보여준다.

스님은 50분간 방영될 이 프로그램에서 산사를 찾아 기도하고 어린이들을 만나 함께 어울리며 그림을 구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스님의 구도와 스케치 여행지는 대둔사, 금산사, 옥천사 청련암, 소쩍새 마을 등. 금산사에서는 3천배 기도하는 모습, 청련암에서는 절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촬영했다. 또 도반을 만나기 위해 원주 소쩍새 마을 성묵스님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소쩍새 마을 아이들과 즐겁게 놀며 천진동자들의 이미지를 스케치 하는 장면도 화면에 담았다.

임연태 기자



◇18일 태고사에서 엄수된 운제스님 영결식.

태고종 승정 운제스님 영결식 엄수

3백여 사부대중 애도… 49재 6월3일 법륜사

영결식 "새롭고 튼튼한 육신 빌어 이 땅에 다시 오시어 그 큰 원력의 모습 다시 보여 주소서!"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원하는 가운데 태고종 승정 운제스님 영결식이 18일 태고사에서 태고종 승정원장으로 엄수됐다.

한국불교 원효학 연구의 선구자이자 대표적인 학승이었던 운제스님. 원효사상의 큰 보따리를 다 풀지 못하고 가시는 탓일까. 운제스님 영정사진속 눈빛이 영결식에 참석한 저마다의 가슴속에 안타까움으로 스며들었다.

영결식 직전까지 태고사 설법전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후학들과 스님, 신도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영결식에는 혜초(태고종 전 총무원장) 성초(진각종 통리원장) 일우(태고종 종회의장)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종단 원로 및 중진 간부스님과 각 사암 주지스님, 정태혁(동방불교대학장) 이준(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교수 등이 참석했다. 운제스님의 49재는 6월3일 법륜사에서 봉행된다.

대표적 학승…원효학 연구 선구자

행 장 "생과 사는 둘이 아니고, 죽음이란 마치 헌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

후학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운제스님이 마침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원효스님을 만나기 위해 육신을 벗었다.

1937년 16세의 이른 나이에 함경남도 석왕사로 출가한 운제스님은 불도를 몸소 체달하고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을 비롯한 국내 유수 강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이렇듯 운제스님은 한국불교에서 손꼽히는 학승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조선대 역사학과와 건국대 사학과에서 오랜 세월 강단을 지키며 고매한 학덕으로 승속을 초월한 후학양성에 혼신을 다해왔다.

88년 태고종 총무원장에 올라서는 한국불교진흥과 불법홍포에 진력했으며, 이 시기를 태고종사(史)의 완성시기로 끕는데 주저함 없는 업적을 남겼다. 91년 태고종 승정에 올라서도 학문을 통한 인재양성과 화합을 통한 한국불교 발전을 강조하며 태고종단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왔다.

특히 96년에는 원효연구원을 설립, 각종 세미나나 출판을 통해 원효스님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고 이해를 폭을 넓히는데 지대한 공적을 남기기도 했다.

불학연구 금자탑 길이 빛나길…

조 사 삼가 운제대화상의 영전에 머리숙여 조의를 표합니다.

화상은 불교학과 역사학에 공이 너무도 많으셨습니다. 특히 한국불교학에서 원효성사에 대한 연구에는 개척자 역할을 하셨으니 원효전서의 번역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연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원효사상연구에 심혈을 기울이신 일은 후학들이 모두 숭앙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또한 화상이 한국불교사에 빛나는 금자탑을 세우신 것은 태고보우국사의 위상을 바로 세워 놓은 일입니다. 더불어 한국불교가 나가야 할 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수많은 논저를 남겨 길이 후학들에게 지표가 되셨습니다.

화상은 학문만이 아니라 문필에도 뛰어나서 단아한 필치로 써 놓으신 수많은 서권들이 길이길이 화상의 고매한 인격과 따스한 숨결로 전해질 것입니다.

정태혁(동방불교대학장)

눈푸른 스님의 영어 禪 강의

Focus



생생한 미국영어와 동양의 선불교 사상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영어선불교 강좌가 미국인 현각스님의 지도로 19일 저녁 7시 서울 서초동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주지 효성)에서 시작돼 큰 호응을 받고있다.

이 강의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은자 기자



제27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슬기로운 어린이·활기찬 미래불교"

- **일 시** : 불기2543년 6월 5일(토) 16시 ~ 6일(일) 13시
- **장 소** : 경주온천관광호텔
- **동 참 금** : 3만8천원 (미리접수시-3만5천원, 군종병·도서벽지 지도자-2만원)
- **참가대상** : 어린이 지도법사 및 교사, 어린이 포교에 관심있는 모든분
- **지 급 품** : 1박3식, 연수회자료집,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교재, 여름불교학교용 찬불가 테이프, 포스터
- **신청방법** : 1.실명인 관계로 송금하신 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반별수업(선택)으로 인해 미리 신청 바랍니다.
  · 기 간 : 5월1일~5월29일 까지(미리접수) · 접수담당 : 정희순
  · 우체국 : 601310~0037877-11 · 예 금 주 : 대불어 (조중환)
- **강의준비물** : 마분지1장, 가위, 60㎝나무막대기 1개, 칼, 샐로판 테이프
  【반별 수업중 강의 6 (만석중 놀이)을 신청하신 지도자님만 준비】
- **문 의** : 본회사무국 ☎ (051)808-4569~70 FAX(051)808-4571
  PC 천리안 GO BOSAL (운영자 수신편지 이용)

내 용		강 사	비 고
강의1 21C 어린이 포교의 방향		정련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강의2 부처님의 노래를 불러요!		정 유 탁	풍 경 소 리
강의3 '모닥불 놀이'준비에서 진행까지		박 철 수	도레미 이벤트 대표
만나서 좋은 벗이여			지구별 모임
살아 숨쉬는 우리의 역사			석굴암 참배 및 해돋이
우수어린이법회 프로그램 전시			
반별강의	강의4 하나 : 재미있는 놀이의 현장	이 선 우	한국REC여가 협회강사
반별강의	강의5 둘 : 자연에서 부처님을 느껴요	장 상 욱	자 연 놀 이
반별강의	강의6 셋 : 만석중 놀이(파일놀이)	한 재 순	제주 무대미술연구
반별강의	강의7 넷 : 여름불교학교의 모든 것	조 정 미	천마초등교교사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강의8 우리의 것을 소중히 느껴요		박 옥 주	능암초등교교사

각 지역 문의처

- 서울·경기지구 02)433-1506~7 유지선 사무국장
- 부산지구 051)853-5486~7 이선경 총무차장
- 광주지구 062)365-0367 덕명사 무등스님 (본회임원)
- 대전·충남지구 042)633-1141 류재희 사무국장
- 경남지구 0551)242-0108 천명숙 사무국장
- 대구지구 016-505-3143 김형중 사무국장
- 제주지구 064)721-7942 김봉현 사무국장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미래불교를 위해 힘찬 정진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제2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불교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고도 천년의 도시 경주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회는 여름불교학교를 맞이하여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법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 인원의 분반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어린이법회프로그램 공모, 전시 및 시상식으로 지도자들의 사기와 참여도를 높이며 석굴암에서 해돋이와 함께 새 천년을 맞이하는 21C 어린이 포교방향을 지도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기2543년 4월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 총재 정관 ■ 부총재 혜총·철오 ■ 회장 덕진 ■ 상임부회장 정여
■ 부회장 운성, 설봉, 해관, 무등, 영조, 심산, 성형, 영진, 안성
■ 감사 지광, 박창식

♣제1회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경진대회 공모 안내♣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발굴과 보급·프로그램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21C 어린이 법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어린이 법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1. 주 최 : 사단법인 불국토
2. 주 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3. 참가대상 : 전국 사찰 어린이회, 어린이지도자 및 단체
4. 응모기한 : 99년 5월 15일 까지 접수
5. 응모내용 : -현 어린이 법회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창작프로그램
   -미래 지향적이면서 앞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6.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식 : 6월 5일 ~ 6일 연수회 중 (상장 및 상금 수여)
7. 기타 참가 안내 : 동련 6월호 참조, 각 사찰 어린이법회 공문

우리 모임에선

BBS통신원 차량봉사

불교방송통신원불자회(회장 이영균)는 28일 오후 1시부터 동대문구 전농동 매봉산 그린공원에서 열리는 지체장애자 동대문지부 축제에서 차량봉사 활동을 벌인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방송통신원불자 50여명이 참여해 지체장애자들의 손발이 돼 행사장 출입을 돕고 체육대회 진행을 지원한다. 이영균 011-350-8528

붓다클럽 '도민안녕' 법회

붓다제주중앙클럽(총회장 백태수)는 15일 사무국에서 이사회를 열고 부처님오신날 기념 '나라와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를 5월19일 오후 7시 제주 칼호텔에서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또 오기섭씨를 비롯한 15명의 신규회원 가입을 승인하고 강서보 변호사와 정대권 변호사를 상담고문에 위촉했다. (064)48-0108

스카우트지도자윤독법회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24일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8층 회의실에서 윤독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는 연재홈씨가 〈초발심자경문〉 〈자경문〉에 대해 윤독 강의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는 최근 단행본 〈대전화상주심경〉을 법보시용으로 발간해 선보이고 있다. (02)2292-8502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전문지식 보시합니다

법률·세무·건강·교육·교리상담코너 신설
5월 10일 개통…전문직 불자 10명 상담


◇부다피아 팀원들이 5월10일 상담코너 개통을 앞두고 시범운영 하고 있다.

직장직능 전문직 불자들이 앎을 나누는 보시에 나선다.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가 5월10일 온라인 상에 개통하는 교리, 교육, 세무, 의학, 법률 등 5개 상담코너에 해당 직장직능 신행단체 전문직 불자 10명이 직접 상담요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자비나눔 운동'을 벌인다. 질의자가 요청할 경우 기존 사찰과 복지관에서 해 오던 1개분야 상담에 한하지 않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투입돼 상담 종합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교리상담은 조계종 포교원과 이제열 법사(유마선원장)가, 건강상담은 이근후 박사(이화여대 부속병원 신경과), 이만성 원장(영재한의원)이 각각 전문 상담요원으로 나서 불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세무와 법률, 교육은 한국세무사불자회와 수원지역법조인불자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회원들이 돌아가며 상담한다.

김태경 세무사(김태경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 신행활동을 해 오며 나 자신만의 안위을 위한 것은 아닌가 부끄러웠는데 가진 지식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일이다"며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했다.

부다피아 상담코너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자니 발길이 무겁고, 법적절차를 몰라 본의아니게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한 불자나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고민하고 있는 부모 등 어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상담문의는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상담코너에 직접 들어오던지 팩스(02-737-0697~8)로 하면 된다.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부다피아는 향후 주요 상담내용들을 모아 교리, 교육, 세무, 의학, 법률 상식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직능단체 불자들도 봉축준비

금강메아리산악회
수해장병 원혼 천도법회

부산불교문인협회
부산역서 첫 시 낭송회

BBS 통신원불자회
염주 · 목탁달아주기 운동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직능 신행단체들이 봉축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윤부윤)는 5월2일 철원 비룡부대 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군장병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지난해 수해로 운명을 달리한 장병들의 원혼을 달래는 천도재를 겸해 봉행된다. 금강메아리는 법회에 참석한 장병들에게 염주를 봉축선물로 전달할 계획이다.

금강메아리는 법회에 이어 도피안사, 철원 노동당사, 월정리 역사 및 통일전망대, 철원사 등을 순례한다. 출발은 5월2일 오전 7시 동대문 이스턴호텔 앞에서 한다. (02)772-9517

또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최낙현)는 5월15일 오후 6시 부산역 문화관에서 88년 창립이래 첫 봉축행사로 시낭송회를 연다. 시낭송회에서는 능지스님(천룡사 주지)의 축시 '부처님 찬탄'를 비롯해 문인 20여명의 시작(詩作)이 발표된다. (051)441-6515

불교방송통신원불자회는 5월18일 서교동 청기와주유소 앞에서 '염주와 목탁 달아주기' 운동을 펼친다. 50여명의 통신원들이 택시와 버스, 자가용 등 3천여 대의 차량에 염주와 장식용 목탁을 달아주며 부처님 탄생의 기쁨을 전할 계획이다. 이영균 011-350-8528

유니텔불교동호회(대표시샵 정경자)는 석탄일에 맞춰 PC통신 불자동호인을 위한 법요집 〈부처님 나라〉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경자 018-216-2843

22개 구청 불자회 창립

공무원 신행회 산파 조정봉씨



박봉 털어 불서 보시
자비 '공직자상' 세워

20여 년 동안 서울시내 22개 구청 공무원들의 불자회 창립 산파역을 맡아 온 서울시청심월회 지도법사 조정봉씨(50, 서울시청 노숙자대책전담반 팀장).

83년 동작구청에 정부기관 최초로 심월회를 탄생시킨 이후 87년 불심회란 이름으로 서울시내 구청 전체불자 모임을 결성했다. 또 91년 관악구청불심회, 93년 서울시청심월회를 결성하고 4천여명의 서울시 불자공무원들을 결집시켰다. 때문에 조씨는 시구청 공무원불자들 사이에서 신행회 대부로 불리고 있다.

어느 종교라고 할 것 없이 정부기관 내에 신행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왔던 때에 감히(?) 불자회를 출범시킨 조씨는 숱하게 공직생활을 위협받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타종교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시기를 극복해야 했고, 3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따라다니는 '암행반'의 미행도 견뎌내야 했다.

"행정기관 내 불자회는 불교의 사회화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는 조씨는 "공무원신행회는 불자로서 자비를 바탕으로 대민봉사를 실현해 밝은 공직자상을 정립, 국가와 불교발전의 촉매제가 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월회 창립 당시부터 줄곧 회장을 맡아보는 등안 법회 때마다 국내에서 제일가는 법사를 초청해 초심자들의 환희심을 일으켰고, 월급을 보태 기초교리서 〈보살도〉를 비롯 휴대용 법회지침서 〈불자수첩〉, 〈선가귀감〉 등을 제작, 보급하는 등 직장불자회 활성화에 혼신을 받쳐 온 조씨. 조씨는 올해에 공무원 불자회 육성과 퇴직 공무원 불자들의 포교와 복지사업장이 될 '사회복지법인 공무원불자회관' 건립을 추진, 공무원 사회에 또다시 '불교바람'을 일으킬 계획이다.



금강경독송회 호국영령 천도재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8일 경주 서천에서 5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 천도 대법회를 봉행했다.

금강경 독송회 김영희씨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천도·해탈하도록 해 국가 장래가 밝아지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마련했다"면서 "임진왜란 당시 창의(의병 발기)의 진원지며 회맹(모여 맹세함)의 발원지였던 경주에서 법회를 봉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3년 낙화암 삼천궁녀 천도법회 봉행 이후 8번째 마련된 이날 법회는 금강경 독송 및 정진, 김재웅 지도법사의 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포항법당 (0562)61-2231



고산스님-WCC 라이저 총무 환담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3일 콘라드 라이저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고산스님은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지 않다"며 종교간의 화합을 강조했다. 고산스님은 콘라드 총무의 WCC 애큐메니컬센터(제네바) 초청에 대해 10월 로마 교황청 방문길에 들리겠다고 약속했다.



삼론종 한 · 중 친선교류 합의

삼론종(총무원장 혜공)은 6일 중국 남경 서하사에서 한중 삼론종 교류차 석자진 서하사 주지, 유국옥 종교국부장, 휘대년 부국장 등을 만나 정례적인 친선교류를 갖기로 합의했다.

삼론종에서는 석봉 부종정, 혜공 총무원장, 혜광 재정원장, 노희재·문화부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삼론종은 23일 간부회의를 열고 중국 삼론종과의 친선교류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수증스님 연꽃사진 첫 전시회

수증스님(금화사 주지) '一池荷葉修蓮展'이 21일 공평아트센터에서 개막됐다. 작품생활 10여 년 만에 갖는 첫 전시회인 이날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을 비롯 정덕 영안스님 등 비구니계 중진스님과 문화예술인 以汀, 尤山등 2백여 명이 축하했다. 석도륜 미술평론가는 축사를 통해 "수행자의 눈으로 진흙 속에 피는 연꽃의 의미를 더 많이 표현해 사회를 맑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산불교청년회 창립 1돌 법회

동산불교청년회(회장 임순기)는 22일 동산법당에서 창립1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경전을 공부하는 청년회' '의식을 실천하는 청년회'를 표방하며 지난해 4월23일 창립한 동산불교청년회는 동산불교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주축으로 기초교리, 한글의식 실수, 염불정진 등 3개 과제를 실천하며 신행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무진장스님(조계종 전 포교원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낙성식 및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
(5월 3일 ~ 5월 21일)

■ 낙 성 식 ▶일시:5월 3일 오전 9시 30분
① 큰스님 법문(3일~15일) : 청화스님, 철웅스님, 성파스님, 박삼중스님, 자광스님, 목탁스님, 박완일교수
② 연예인 공연(10일~15일) : 최주봉, 현철, 오은주, 남상수씨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기간 : 5월 10일~5월 21일

■ 신도증 즉석 발급 행사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의 협조로, 매표사찰의 무료입장이 가능한 신도증을 즉석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기간 : 5월 10일~5월 15일

■ 낙성식 기념 헌혈행사 및 경로잔치 ▶기간 : 헌혈행사 5월 7일
경로잔치 5월 8일 오전 11시

■ 경전특강 내용: 육조단경 - 자광큰스님(문경 김용사 주지)
금 강 경 - 박삼중큰스님(교도소 대법사)
▶기간 : 5월 24일~8월

■ 연극공연 제목: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기간 : 5월 17일~19일

■ 문화센터 개관 ▶개관일 : 5월 10일
강좌: 사찰전통요리, 기체조 및 활공, 생활도자기, 국악, 수지침, 한글교실, 병의 건강예방 치병법, 어린이 청소년·청년회 사물놀이, 선물포장, 관음필하모니, 뮤지컬, 챠밍스쿨, 한국무용, 꽃꽂이, 오색한지공예, 전통다도, 불화그리기

■ 교계 최초 사이버 불교대학 개설 ▶http:www.cyverbuddha.or.kr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053-474-8228)
(영대네거리 남쪽길 20m 높은 단청 건물)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전국 대리점 모집
02)757-1780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皿)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

생리통 · 기미

저는 3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얼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렇게 들었다

진실한 말 — **"거짓말은 다툼과 원한 낳는다"**

훔친 자는 있는데 잃은 자는 없다. 최근 한 도둑이 현직 장관과 정부 고위간부의 집을 턴 일이 일어나 세간을 온통 시끄럽게 만들었다. 거액의 현금과 달러, 보석을 훔쳤다는 도둑의 한 마디에 검찰도 경찰도 언론도 정당도 모두 야단들이다. 피해당자사들도 거액의 출처에 대해 오락가락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현장 검증을 하는 가운데서 도둑의 말이 일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12만달러의 행방여부를 둘러싸고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하루속히 수습되고, 진실하지 못한 말이 불러온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 할 것이다. 진실한 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남에 대해 위증(僞證)하여 형법(刑法)에 걸리게 하지 말며,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다투어 남의 마음을 상하게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 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아함정행경〉

▨보녀동자(寶女童子)가 부처님께 물었다. "진실이란 무엇이옵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진실에 세가지가 있으니 부처님을 속이지 않고, 자기를 속이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음이다." "그러면 진실한 말이란 어떤 것이옵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진실한 말이니, 너는 진실한 말을 익히도록 해라." 〈대집경〉

▨소위 해치는 말이나 거친말, 남을 괴롭히는 말, 남으로 하여금 원한을 품게하는 말, 저속하고 나쁜 말, 용렬하고 천한 말, 이런 말들은 다 버리고, 늘 정다운 말, 부드러운 말, 듣기를 원하는 말, 듣는 사람이 기뻐하는 말, 사람의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는 말, 멋지고 도리에 맞는 말들을 하며, 항상 시기에 맞는 말, 분명한 말, 진실한 말, 도리에 맞는 말, 정법을 설하는 말, 잘 조복하는 말, 때에 따라 헤아려 결정한 말을 즐겨 생각해야 한다. 보살은 웃을때라도 늘 자세히 생각하거니, 하물며 굳이 어지러운 말을 함부로 하겠는가? 〈화엄경〉

▨망령된 말을 하지말며, 거짓말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말하는 내용이 지성(至誠)하며, 말이 진실하며, 전하는 바가 도리에 맞으며, 말이 시기에 적합해야 한다. 꿈속에서라도 도에 벗어나는 일을 말하지 않고, 늘 바른 가르침의 경전을 설해야 한다. 세속의 행위에 관한 쓸데없는 일을 말하지 않으며, 이간하는 말을 떠나 저쪽의 나쁜 말을 이쪽에 전하지 않고, 이쪽의 나쁜 말을 저쪽에 말하지 않음으로써 다툼을 화해시켜 원한을 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점수일체지덕경〉

▨말과 지울로 남을 속인다든가, 마음은 악하면서 말만 착한 체하여 언행이 성실치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 〈분별업보경〉

▨모름지기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바르게 지니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며, 여러 선을 더욱 많이 짓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닦고 몸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때를 씻어내며, 언행이 진실하여 겉과 속이 어울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아미타경〉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보시(布施) 지계(持戒) 학문(學問) 다문(多聞)을 빌리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말을 닦는 것만으로도 끝없는 복을 얻게 된다. 〈대지도론〉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말할때에도 남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악이 가면 화가 오게 마련이니, 폭력의 보배를 그 몸에 받아야 하리라. 좋은 말을 하되 종(鐘)이나 경쇠를 고요히 두들기듯 하라. 몸에 시비가 없으면,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 편안할 수 있으리라. 〈법구경〉

▨차라리 진실한 말을 해서 적을 만들지언정, 비위 맞추는 말을 해서 친우를 만들지 말라. 차라리 바른 가르침을 설하고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그릇된 가르침을 설하고 천상(天上)에 태어나지 말라. 〈보살본연경〉

김태복장군 재판을 보고



현진
조계종 포교부장

16일 대전 육군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서 열린 '101여단 군법당 건립관련' 군사재판을 방청한 총평은 한마디로 군검찰의 종교편향적 시각을 확인한 재판이었다는 것이다. 군검찰의 공소사실 5가지가 확실하게 입증되기 어려운 재판이며, 공판과정의 방청결과 무리하게 짜맞추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군사적인 문제 또한 지휘관의 권한문제의 해석과 작전계획의 성패 판단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애매한 것이었다.

'불사 시주금을 뇌물수수'로 판단하는 군검찰의 주장은 증인신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나, 뇌물수뢰 등 비위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군법당 건립과 관련한 사항이 주로 다루어져 '불교 편향성' 재판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군검찰관(고 모소령)은 광신적인 개신교 신도인 황 모대령의 진술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실제로 재판심리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황 모 대령의 진술에 근거해 진행하였다.

또한 군검찰은 거평그룹 공장신축과 관련해 김태복 소장의 뇌물수수나 비리혐의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나 증인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통일동산사업단에게 울타리 보수금액을 요구, (군법당전환기금으로 전환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편치미수-사기미수죄로 기소한 것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인사청탁조건으로 시주금 3천3백만원을 뇌물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돈이 불사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실하고 시주자가 조건없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군법당관련 김태복소장의 뇌물수수, 횡령혐의에 대한 군검찰의 기소는 상부의 지시에 의한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의혹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목탁소리

김 재 경 〈취재 1부 기자〉

군 포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대, 쌀알이식 저인망 포교는 고사하고 그나마 낚싯대식 포교마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군 포교를 주도해 온 군불교진흥회는 지난 2월28일 박상길 회장의 사임이후 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홍을 겪은데다 조계종이 봉축 군 위문품 보내기 사업에 5백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15만여 군·장병에 대한 포교를 포기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다.

두 달간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군불교진흥회는 13일 12명의 이사중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장 권한대행에 이병문 수석부회장(영도건설 회장)을 선출했다. 그간 자민련의 김 모 의원이 회장후보로 거론되면서 군불교진흥회는 내부 갈등으로 사무국의 업무가 마비되어 봉축 군 위문품 보내기 사업 등의 업무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어 왔다.

초라한 군포교

이날 임시이사회는 정치인이 회장이 될 경우 군불교진흥회가 순수 군포교단체에서 벗어나 정치 바람을 탈 것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어 이사회 내부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된 것. 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병문씨는 군불교진흥회의 정치화를 우려해 고사해 온 회장직을 수락했으며, 26일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했다.

조계종 역시 군포교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해 단 한푼의 봉축 군위문품 지원금도 내지 않았던 조계종은 올해도 당초 예상된 1천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군불교진흥회의 당연직 총재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총무원장이 당연직 총재를 맡고 있는 중앙신도회에 대한 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냉대다.

군포교의 주체로서 본연의 역할을 잠시나마 잊은 군불교진흥회나 거대한 포교 황무지를 외면하고 있는 조계종은 말로만 '포교 제일주의'를 외치면서 거사불교의 요람인 군법당의 부처님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jgkim@buddhapia.com)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수행하는 스님 보면 한국불교 희망 보는듯

부석사 무량수전에서의 새벽예불에 동참하고 온 감동이 아직도 크다.

새벽 3시, 법고소리와 함께 새벽예불이 시작됐다. 부석사의 새벽예불 역시 반야심경이 끝날때 까지는 여느 사찰과 다른게 없었다. 그러나 반야심경 염송이 끝나자 모든 스님들은 처소로 돌아가지 않고 조용히 앉아 죽비소리에 맞춰 참선삼매에 들었다. 한시간 가량의 참선을 끝내고 스님들은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전을 물러났다. 그동안 만난 많은 스님들은 매일 한시간만이라도 참선을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푸념하듯이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고 나는 속으로 왜 안되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부석사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느니 하는 불평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대중 스님들과 신도들이 매일 아침 예불시간에 참선을 하게 되니 말이다.

몇해 전 부석사를 찾았을 때 이 큰 절에 스님 몇 분만이 살고 있는 것을 한탄하고 의상 같은 큰 스케일의 스님이 아니고는 이 절집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 법당을 가득메운 스님들의 맑은 눈빛을 보았다. 또 어제 저녁에는 밭에서 일하고 트럭을 타고 돌아오는 스님들을 보았다. 그러자 백장스님의 '일일부작 일일불식(日日不作 日日不食)' 청규에 맞춰 수행과 울력에 열심인 부석사 스님들에게서 우리 불교의 희망을 보았으며 나는 가슴 뿌듯한 즐거움으로 아직 움도 트지않은 사과나무 밭을 끼고 하산했다.

설태관〈서울 봉은사 거사회〉

조계사 성역화 불사 시민문화공간으로

현대불교신문에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성역화 불사가 오는 가을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소식을 읽고 반가웠다. 지난 94년도 그렇고 지난해 말 TV와 신문에 연일 보도되었던 조계사의 참담한 모습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모습이었다. 최루가스가 자욱하고 유리병과 돌이 법당을 향해 날아들고 물대포와 화염병이 난무하던 조계사는 한국불교가 얼마나 본연의 모습에서 걸어져 있나를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조계사가 이제 얼룩진 모습을 벗고 새 모습을 갖추게 되는 가 보다. 차제에 조계사 경내에서 자동차들의 모습이 더 이상 안 보였으면 한다. 가끔 조계사에 가보면 조계사의 넓지도 않은 가당이 차들로 가득 차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조계사에는 주차장이 아니라 나무와 꽃과 간이의자가 있었으면 한다. 도심 한 가운데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마음 심란할 데 와서 쉬어가는 곳, 점심먹고 호젓하게 들러 목탁소리와 향내음에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도량으로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영애〈서울 성북구 정릉동〉

조계종 혜암 종정스님 불자상 바로 세우시길

조계종 새 종정에 혜암스님이 추대되어 5월 11일 추대식을 갖는다니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수행을 오래 하신 불교계 큰 어르신이시라 혜암스님께서는 밀레니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에 새로운 불국정토를 심어주실 것으로 믿는다. 불자들이 아무런 걸림없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고 진리의 바다에서 환희심만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불교상, 바른 불자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정철주〈강원도 원주시〉

법당계단 경사로 설치 장애인 불편 해소 기대

몇 년 전 조계종총무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사 입구에 지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했다. 경사로가 설치됐다고 해서 지체장애인의 총무원 출입이 쉬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조계종이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일이었다. 그런데 지난 해 폭력이 난무했던 종단사태 와중에 이 경사로가 없어졌다.

20일은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은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삼배라도 올리려면 계단과 문턱의 장애를 넘어야한다. 법당에 오르는 불편이라도 해소해주길 바란다.

정세민〈서울시 중곡동〉

제언

"따뜻한 손길 필요해요"



이현주
부산 낙동복지관 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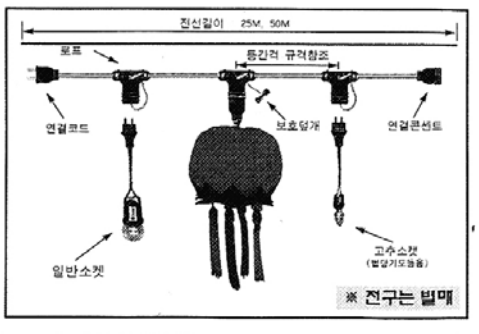
낙동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부산 강서구는 부산시 전체면적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시설은 병·의원이 9곳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낙후돼 있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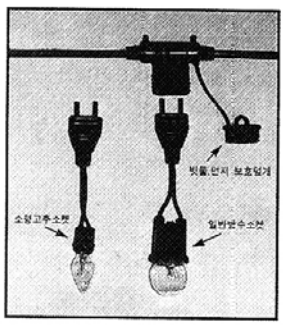
특히 이 곳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구민의 약 9%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중 무의탁노인세대가 259세대나 되며, 독거노인만도 244명에 이르는 등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상당수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들 노인중에는 자식에게 버림받아 외딴 산간 움막에 혼자 살거나, 시각장애인 아들을 보호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할머니에서부터, 자식이 버리고 간 손자와 함께 사는 할머니, 창고같은 집에서 호박씨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할아버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움막에서 병으로 누워만 있는 할머니 등 우리의 무관심 속에 하루하루 힘들고 외로운 생활을 하는 노인들도 많다.

낙동복지관에서는 이들 무의탁노인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반찬지원, 간호, 빨래, 한방진료, 생활비후원결연, 급식비후원결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은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노인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행의 실천이요,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뜻깊은 일이다. 불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을 간절히 기다린다. (051)271-0560~1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사찰·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사찰·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납품)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추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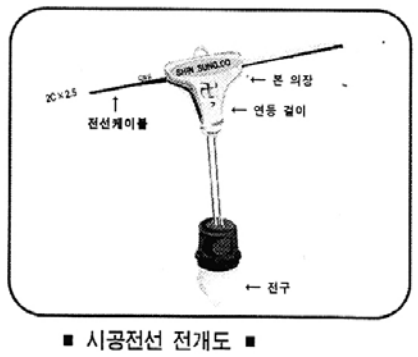
대원기업 代表 吳大權(光明) 合掌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폰 : 011-833-8018
영·호남지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0591)757-3626 휴대폰 : 011-869-4854

봉축연등·법당 기도등용 일체형 전기배선

(기존의 제품에 비해 전선은 굵고 크기는 작게 **"T형 일체형 전선"** 탄생)
{의장 제 16525호}


▲ 전기배선 시공한 법당



■ 시공전선 전개도 ■

▶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 특징
1. 일체형으로서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2. 연등 설치시 편리하게 연등고리를 만들었습니다
3. 불자 기업으로서 卍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재료 절감과 정교한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5. 설치 수거하실 때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 한층 더 수월합니다.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까지 깔끔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신성기획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97-17호
TEL: 02)3141-3789 / 02)332-3786
H.P: 019)380-3786 FAX:02)322-3785
경기 북부 대리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17-4
TEL 0356)584-5663 FAX 0356)584-6300
H.P 011)758-7329


◇22일 시작된 한국불교 꽃예술회의 봉축꽃꽂이전.


◇천성철씨의 탄생도(부분).


◇부처님일대기 주제전에 출품된 허길룡씨의 '열반상'.

봉축 문화행사 '다채롭다'

꽃꽂이로 … 그림으로 무용으로 … 음악으로 부처님오신날 '찬탄'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문화 행사들이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이미 22일 한국불교 꽃예술회의 봉축 꽃꽂이 전시회가 서울 명동의 로얄호텔에서 향기로운 막을 올렸다. 28일부터는 동국불교미술인회가 '부처님의 일생'을 주제로 하는 회원 작품전을 공평아트센타에서 5월 4일까지의 일정으로 시작했다.

서울지역에서 준비되고 있는 문화행사 가운데서는 손재현무용단의 창단 공연작 '넋의 소리'가 주목되고 있다. 6월3일부터 6일까지 6회에 걸쳐 동국대문화예술관에서 공연될 '넋의 소리'는 에밀레 종의 주조과정에 얽힌 설화를 내용 꾸며진 발레와 불교설화의 만남이다. 발레와 연극적인 요소, 탈춤이 혼합된 '넋의 소리'는 6월 30일부터 7월8일까지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에서도 공연될 계획이어서 새롭게 시도된 불교무용의 세계진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에 때맞춰 열리는 제3회 동국문화예술제도 볼만한 봉축문화행사. 5월 6일 오후7시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이 예술제는 국립국악관현악단장 박범훈씨가 총감독을 맡았다. 법현스님(동국대국악과 강사)이 범패작법을 시현하는 '영축산의 환희'와 안숙선 명창의 '보렴' 가락과 문화예술대학원생들의 연주가 어루러질 '어울림의 극치', 김영임의 회심곡등이 볼만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행사도 다채롭다. 청소년교화연합회의 제12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 월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부처님그리기대회, 불교교육원의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등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다. 또 서울불교청년회의 제11회연꽃노래잔치, 파라미타와 전국교법사단이 5월9일 조계사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사경공모전에서도 불자 어린이 청소년들이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잔치마당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 5월 2일 모래조각전과 연날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3일부터 4일까지는 양정청소년회관에서 불교영화가 상영된다. 부산지역 봉축문화행사는 대중들 속으로 다가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5월 15일은 하루종일 부산역 광장에서 불교문화 행사들이 펼쳐진다. 대불청부산지구의 거리찬불가, 보현회의 학춤, 우바이무용단의 무용공연 등이 부산역 광장 무대에서 열리며 인근 문화관에서는 부산불교문인협회의 시낭송회도 열린다. 불교미술작가회와 북구사상구사암연합회가 미술전과 서예전을 6일부터 10일까지의 일정으로 각각 준비하고 있으며 부산불교문화원과 부산불교교육원은 5월 1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야외 토우전과 미술전시회를 연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5월6일부터 10일까지 꽃꽂이전을 20일까지는 우리차 시음전시회를 통도사부산포교원, 옥천사문화다도회등과 함께 마련한다.

대구지역에서는 5월 15일 동화사가 통일대불 앞에서 경축음악회를 대규모로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제7회 대구 경북 불교합창제가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조계종 대구광역시 신도회의 제6회 찬불가 경연대회는 5월 20일 대덕문화전당에서 각가 열린다.

광주지역에서는 5월2일 대불청광주지구가 원효사에서 여는 봉축백일장을 시작으로 문화행사가 막을 올린다. 눈길을 끄는 행사로는 광주불교교육원이 5월 9일 무등산 증심사에서 여는 어린이그림대회. 또 광주지역 봉축위가 초대전으로 여는 고현수 교수의 불교회화 초대전은 5월 24일부터 6월6일까지 남봉미술관에서 열린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전국 봉축문화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부처님일대기 주제전	4.28~5.4	공평아트센터	동국불교미술인회
부모은중송	4.30~5.1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
수행목공예품전	5.2~5.11	웅진갤러리	육환장연구원
제11회 연꽃노래잔치	5.2	동국대중강당	서울불교청년회
부처님그리기대회	5.5	봉은사	불광·목아불교박물관
소년소녀합창·무용공연	5.6	국립극장소극장	불교교육연구원
동국문화예술제	5.6	동국대문화예술극장	동국대문화예술대학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5.9	조계사	파라미타·교법사회
봉축기념 사진전	5.15~22	조계사	불교사진연합회
제12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	5.30	동국대문화예술극장	청소년교화연합회
넋의 소리	6.3~6.4	〃	손재현무용단
전통등 전시회	5.7~5.16	인천신세계백화점	전통등연구회
불교영화 상영	5.3~5.4	양정청소년회관	양정청소년회관
미술전	5.6~10	국제문화센터	불교미술작가전
서예전	5.6~10	〃	불구사상구사암련
꽃꽂이전	5.6~5.10	〃	한마음선원부산지원
			통도사부산포교원
도자기·공예전	5.7~5.20	부산역삼성화재빌딩	천마재활원
거리 찬불가공연	5.15	부산역광장	대불청 부산지구
시 낭송회	5.15	부산역문화관	부산불교문인협
무용공연	5.15	부산역광장	우바이무용단
사물놀이	5.16	〃	통도사포교원
야외토우 설치전	5.17~5.23	범어사 경내	부산불교교육원
야외미술 전시회	5.17~5.23	범어사 일주문	부산불교문화원
산사음악회	5.15	동화사통일대불앞	동화사·대구MBC
제6회 찬불가경연대회	5.20	대덕문화전당	대구광역시신도회
제7회대구경북불교합창제	5.11	문화예술회관	불교음악인협회
봉축 백일장	5.2	원효사	대불청광주지구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5.9	증심사	광주불교교육원
불교회화전	5.24~6.6	남봉미술관	광주사암련

운주사 문화재 보수 오히려 훼손 '눈살'

천불천탑의 신비로운 설화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주지 운공, 사적 제312호)의 상징인 석불과 석탑들이 행정당국에서 보수작업을 벌이면서 서로 맞지 않은 석재를 쓰거나 시멘트로 발라버려 되레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운주사의 보물 제797호 석불감쌍배불좌상의 경우 팔작지붕과 감실의 양쪽벽이 파손되자 지난 95년부터 96년까지 문화재관리국에서 주관해 이를 보수하면서 재질이 관이하게 다른 석재로 맞춰 끼워넣고 철근조각으로 균형을 잡는 등 상식을 무시한 보수를 해 놓았다.

재질다른 석재 사용
철조각서 녹물 흘러
시멘트로 석불 보수

또 대웅전 뒤에 있는 원형다층석탑도 기울어진 부분을 철조각으로 끼워넣어 녹물이 벌겋게 흘러내려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바로 옆의 좌불석불은 깨어진 머리부분과 코·귀 등을 시멘트로 발라버려 무지한 문화재보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운주사측은 "운주사가 사적지로 지정돼 문화재 보수는 대부분 화순군청의 '제안'과 문화재관리국의 '승인' '감독' 순으로 실시되는 것이 관례"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재보수 작업이 시작돼 문화재가 더 이상 훼손이 없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또 화순군 관계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모든 것을 감독하고 보수하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순천 금둔사 통일신라때 창건"

순천대박물관 숫막새등 유물 발굴

순천 금둔사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구층이 새롭게 발견됐다.

금둔사는 경내에 조성된 석불입상(보물 946호)과 삼층석탑(보물 945호)만으로 통일신라 사찰로 추정될 뿐, 기록이 없어 학계에서도 창건 연대를 알지 못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관장 조원래)은 최근 금둔사 지층 120~150㎝에서 창건 당시 건물지 지층을 발견, 발굴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유구층에서 4동의 건물지를 확인했고, 초석·기단·연화문 숫막새·주름문늑병 등의 유물을 발굴했다. 또 박물관측은 발굴유물을 토대로 금둔사는 9세기경 창건된 사찰임을 확인했다는 것.

최인선교수(순천대 사학과)는 "전남지역 초기 불교유적의 문화 양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화로 그린 수월관음도

상묵스님 '비구 상묵전' … 5월 서울·부산 전시

화제의 전시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어떤 맛으로 다가올까.

전통불화에서나 만날 수 있을 주제를 서양화의 기법으로 그려내고 있는 상묵스님(하동 지통사주지), 최근 2년간 작업한 결실들을 서울과 부산에서 전시한다. 서울전시는 5월 5일부터 11일까지 백상기념관, 부산전시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부산롯데화랑.

스님의 그림들은 재료의 독특성과 희화화된 내용들로 각종 짐승들과 자연, 불보살상, 탑 우주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스님의 캔버스 속에서 '빙긋이 웃는 여유'를 전해준다. (02)724-2236


◇삼베로 짠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상묵스님의 '대자대비관세음'.

불화사랑회의 불화 대중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대구시민회관 전시실

화제의 전시

전통불화를 배우며 신심과 예심을 다져온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화폭에 탄생한 불보살님들을 선보인다. 대구불화사랑회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작품전을 갖는다.

불화사랑회를 지도해 온 예산스님의 작품 17점과 회원작품 12점이 선보인다. 예산스님은 전통불화의 정도를 가르치지만 스스로의 작품세계는 상당히 현대적 안목으로 구축하고 있다.

예산스님은 "이번 전시회는 불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누구나 불화를 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화대중화 운동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0545)976-7307


◇예산스님의 '만다라'.

수묵-전각-동양화 '하모니'

뢰차회 21회 작품전 29일부터 관훈동 백악예원

화제의 전시

뢰차회가 결성 10년을 맞은 올 해 21회 전시회를 갖는다. 29일부터 5월5일까지 서울 관훈동 백악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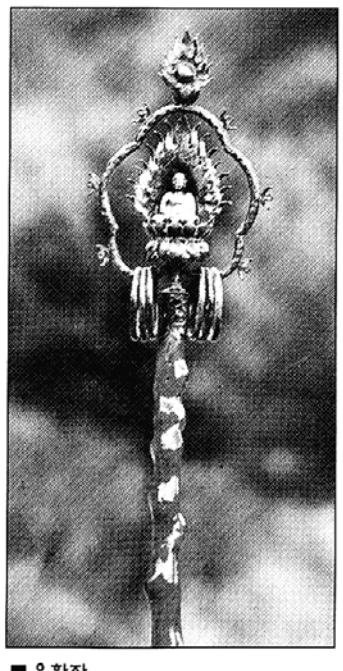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는 조향숙, 이은숙, 김영숙, 이승만씨 등이 출품했다. 조향숙씨는 서정성 짙은 수묵과 부처바위, 부처님의 출가장면 등을 더러 섬세하고 더러는 대담한 필치로 조화시키되 수묵의 먹 번짐 효과를 최대한 이용한 작품들을 내 놓았다. 김영숙씨와 이은숙씨는 전통 한옥의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한 추억담을 화폭 가득 담아냈다. (02)923-5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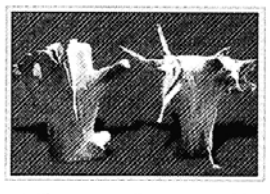

◇제21회 뢰차전에 출품한 조향숙씨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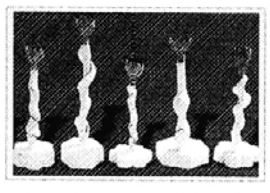
육환장 소리 떨그렁 떨그렁 … 시방세계 꽃이 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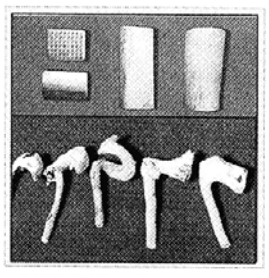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불교전통 수행목공예품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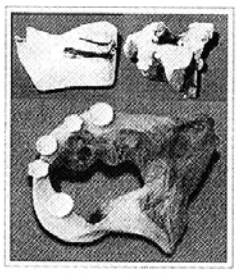
무수수의 세존 그 지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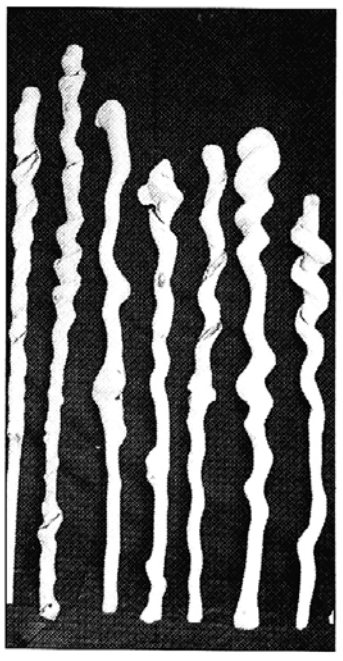

■ **육환장**
구세구난, 법계의 상징물, 고려불화를 모본으로 제작. 108개 한정제작해 법의 상징으로 함. 머리부분은 청동재료로 장엄하고 몸체는 자연목 그대로 사용했다.


■ **솔향꽂이** : 十長生木인 소나무 송진목(50년 이상된 소나무가 죽어 20년쯤 되면 『송진목』이 됨)으로 만든 솔향꽂이는 천연향이자 살균제 공기청량제로 여법할 것이다. 더불어 자연의 묘미와 제행무상의 향기가 천년세월 한결같을 것이다.


■ **연회촛대** : 육각형(연화) 받침대 위에 용대를 세우고 연꽃으로 장엄하여 『연화촛대』를 만들었는데, 세상살이도 제할 탓이며, 常樂我淨이 大光明임을 자각하는데 일조하리라 믿는다.


■ **목침 종망치** : 잠을 편히 자도록 도와주고 목뒤의 어혈을 풀어주는데 목침이 좋으며 종망치는 자연 그대로여서 오래 쓸 수 있다.


■ **원목 찻상·촛진받침** : 100년 이상 고목의 나무결과 곡선미를 최대한 살려 만들었다. 소백산 계곡의 자연 고사목을 채취해 다듬었다.


■ **주장자**
정법과 깨침의 상징이다. 백두대간 깊은 골짜기에서 채취된 자연목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 특수건조해 휘거나 좀슬지 않음.

♠모시는 글 불 보살의 명호는 나무를 붙여서 부른다. 「귀의한다」는 나무(南無)보다 못지 않게 나무도 불교와 인연이 깊다. 석존은 무우수나무 아래에서 태어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성도하셨다. 숲에서 안거 교화했고,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숭가의 원형이 되었다. 이는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나무 자체가 삶매를 깊게하고 활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당을 목재로 짓는 등 사찰엔 목공예가 특히 발달했다.
오늘날 승가는 전통이 잘 지켜지는 것도 있지만, 일부 불사는 수행의 차원을 떠나 상품화 되었고, 수입과 무관심으로 원형을 잃은 것도 적지 않다.
오타악세의 지구촌, 世界一花를 위해 한국불교의 맥을 세우고 용맹정진할 때이다.
본 작품들은 백두대간 나무만을 엄선하여 자연 그대로 手作業했는데, 20년 절집 생활이 담겼다. 이 작은 시작으로 세계가 영산회상화 되길 기원드립니다.

- 육환자 연구원 비구 학림 합장 -

◐ **일 시** : 1999년 5월 2일(일)~ 11일(화)
◐ **장 소** : 웅전갤러리
(조계사에서 안국동 방향 100m 734-3851)
◐ **주 관** : 대한불교 조계종 육환장 연구원(0584-653-6788)
◐ **후 원** : 4·8봉축위원회,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

해외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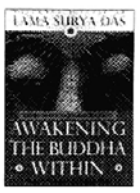
배우기 쉬운 불교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면에 숨겨진 지혜를 찾도록 안내하는 책이 출간됐다. 미국의 명상가 스티브 하겐의 〈배우기 쉬운 불교(Buddhism Plain and Simple)〉에는 철학적 에피소드, 고승 이야기 등을 소재로 부처님 가르침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스티브 하겐은 서문에서 "딱딱한 교리보다 우리 모두가 부딪칠 수 있는 일상 그 자체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다"고 말했다. 〈Broadway Books 刊〉 ISBN 076703323

하루 한번 읽는 禪 이야기



"선(禪)을 수행하는 것은 마치 수박이 자라는 것과 같다. 수박은 매일 조금씩 실해지고, 당도도 점차 높아간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진 스미스는 〈하루 한번 읽는 선 이야기(365 Zen:Daily Readings)〉에서 "면벽의 시간이 바로 수박이 자라는 시간이다"고 말한다. 그는 이 책에서 현대 고승의 어록과 일화 그리고 화두 365개를 소개하고, 불자들이 매일 하나의 이야기를 읽고 명상하도록 권하고 있다. 틱낙한스님, 로버트 아이켄 등의 이야기와 중국·한국 등의 공안이 수록됐다.

〈Harper San Francisco 刊〉 ISBN 0062516027

신과 부처님

종교를 기도, 구원, 슬픔, 위협 등 네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종교별로 이 단어가 갖는 의미를 설명한 〈신과 부처님〉이 나왔다.

종교 저널리스트인 후지다 쇼이치(藤田庄市)가 92년부터 98년까지 취재하며 모은 자료와 기사를 책으로 펴낸 것. 스님의 활동, 장의(葬儀) 및 묘지 현황, 옴진리교사건 등도 다루고 있다. 특히 제1장 '기도'는 저자가 〈신종교신문〉에 연재했던 것으로 일본의 다양한 종교현상을 생생히 보여준다. 〈아스크출판사 刊〉

어린이용 경전 '지혜의 싹' 키운다

백유경·법구경·천수경등 꾸준히 읽혀
삽화 곁들여 친근감…만화로도 출간
전문필자 양성-눈높이 편집등 서둘러야



◇5월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불서 코너를 찾는이들이 늘고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손을 잡고 책방 여시아문을 찾은 김정수씨(51)씨는 어린이 코너의 서적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김씨가 불교서점을 찾은 것은 어린이날에 앞서 아들에게 불서를 선물하기 위해서다. "어린이들이 부처님을 친근하게 여기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은 경전이 가장 유용하다"라는 직원의 안내로 〈백유경〉을 구입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불서는 약 1백여종에 이른다. 이 중에 경전류는 10여종. 적은 수량이지만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높다. 특히 경전은 어릴 때부터 불교적 훈습을 갖게 함은 물론 성인이돼서 불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경전은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일깨워주는 지혜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자들의 인식과 전문필자, 편집및 활자, 시장성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전관련 불서들은 가뭄속에서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어린이불자들을 위한 경전관련 불서는 〈백유경〉(밀알 刊), 〈어린이 법구경〉(밀알 刊), 〈어린이 팔만대장경〉(현암사 刊), 〈어린이 천수경〉(불광 刊) 등이 주종을 이룬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책은 〈백유경〉. 재미있는 우화가 삽화와 함께 엮어져 어린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읽으면서 불교적 심성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화엄경〉(불교만화사 刊) 시리즈(전10권), 〈백유경〉(불교만화사 刊) 등 경전을 소재로 한 만화도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도 〈불경이야기〉(국민서관 刊), 〈어린이 불교성전〉(단이슬 刊), 〈불교이야기〉(창작과 비평사 刊) 등도 경전을 중심으로 육바라밀, 우화 등을 가려뽑아 재미있는 삽화를 곁들여 어린이들의 시선을 끌게한다.

새싹 불자를 위해 딱딱한 경전을 풀어 쓴 책들이 다양하게 출간되지 않았다는 점은 어린이날을 맞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불교의 주춧돌을 세운다는 장기적 안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좋은 어린이 불서 출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교계의 출판사 관계자들은 "어린이용 서적들은 많이 판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성향에 맞게 집필한 필자들도 없는 현실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린이날 가까운 불교서점에 들어 어린이들이 무지개 같은 꿈과 희망을 갖을 수 있는 불서 한권 선물해 보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김재웅 법사 법어집 '금강경을 배우고…' 영역출간 '화제'

달라이라마 서문 써

김재웅 법사의 법어집이 〈금강경을 배우고, 마음을 깨치네(Polishing The Diamond, Enlightening The Mind)〉(미국 위즈덤 刊)로 영역돼 미국에서 출간됐다.

이 책에서 김법사는 "마음은 마음답게 있어야 본래의 불성이 발현될 수 있고, 마음이 마음답게 있지 못하고 어디에 제약을 받게 되면 불성은 자취를 감출 뿐이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책의 서문은 티벳 승왕 달라이 라마가 직접 썼다. 달라이 라마는 서문에서 "이 책은 우리가 기복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고통·질병·기근에 맞서 싸워야 하다는 〈금강경〉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은 5월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일상 소재로 쉽게 화엄경 설법

장산스님 '화엄경 백일법문' 펴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처음 설법한 〈대방광불화엄경〉은 수행을 통해 모두가 남김없이 성불하는 진실을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대승경전이다.

〈화엄경〉을 백일동안 법문한 것을 토대로 한 〈화엄경 백일법문〉이 책으로 나왔다. 부산 동명불원 주지 장산스님이 펴낸 이 책은 〈화엄경〉을 첫 품부터 마지막까지 중요대목을 가려뽑아 한글로 번역하고 해설했다.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품의 내용을 가려뽑아 한문원문 번역과 함께 차근차근 소개하면서 설법한 이 책은 평소 화엄경을 보고 싶어도 그 내용의 방대함 때문에 다가설 수 없었던 대중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장산스님의 일상생활을 토대로 한 명쾌한 설법은 〈화엄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 삶의 지혜를 잔잔히 일깨워준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설법회의 청중과 같은 심정이 되어 선재동자처럼 구도열정을 불태우게 한다. 장산스님은 "책으로 펴낸 것은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얻음이 있기를 바래서 였다"고 발간의 이유를 밝혔다. 〈불광, 값 2만원〉

'정대선사법어집' 출간



상당법어 23편 수록
설법 주제별 경구 인용
'40년 수행' 문도회 엮어

"한 생각 마음 위의 청정한 지혜광명이 자가법당의 법신불이며, 한 생각 마음 위의 분별없는 몸이 자가법당의 보신불이니라. 그러나 부처를 구하면 부처에 얽매이게 될 것이요, 조사를 구하면 조사에 얽매이게 될 것이니 구하는 것이 모두 괴로움이니라."

40년 가깝게 수행생활을 해 온 정대스님(前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의 법문을 적은 〈정대선사법어집〉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참된 길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대중들을 향해 거침없이 일갈했던 상당(上堂)법어 23편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 출구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밖에도 이 책은 부처님이 약속한 수기법문, 대중설법 등을 통해 스님은 수행의 가치를 폭넓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은 평소 정대스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자주 들려줬던 법어를 모아 문도들이 엮었다. 또 각 장마다 주제에 알맞는 경전문구를 인용해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부처님은…이라 말했다' '선사는…던졌다.' 식 문체를 수용해 자칫 경직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한결 부드럽게 풀어낸 것도 특징이다. 〈비매품〉

논문집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고려대장경硏 펴내



공과 연기를 동서양 철학, 신학, 현대과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한 논문이 책으로 출간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펴낸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은 지난해 6회에 걸쳐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12명이 발표한 논문을 모아 엮었다. 이 책은 불교와 불교학, 불교와 철학, 불교와 현대과학 등 크게 세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불교와 과학에는 문을식씨의 '여래장사상에서 공성의 이해' 등 5편, 불교와 철학에는 '연기와 공의 종교 신학적 이해에 대한 고찰' 등 3편, 불교와 현대과학에는 '불교와 의식의 과학' 등 5편이 각각 실려 있다.

공과 연기를 조명한 이 논문들이 불교와 다른 학문 분야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값 1만원〉

흔적도 자취도 없는… 성내경 지음

법화행의 삶으로 가는길 안내



이화여대 통계학과 성내경 교수의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시리즈가 완간(전 4권)됐다. 법화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시리즈 1권에서 한국불교의 주된 수행방법인 참선에 대해 조명하고, 2권에서 미신과 사이비종교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3권에서 법화사상이 왜 불법의 최정상인지에 대한 논리를 가했던 성교수는 제4권 〈흔적도 자취도 없는 행을 위하여〉에서 법화행을 강조하고 있다.

'순하면 살고 역하면 죽는다' '보현행을 하자' 등으로 구성된 이 책은 법화행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설파하고 있다. 〈중명, 값 1만5천원〉

화제의 책

신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이계석 지음

성경의 허구-세뇌성 논리적 서술



"비기독교인에게 바이블을 읽고 감상문을 쓰게한 후 예수(여호와)를 믿고 받들라고 설득하게 되면 그럴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바이블 이전에 기독교에 의하여 설득(전도)되어 기독교 신자가 된다." 미국 필라한인학교장을 역임한 이계석씨가 펴낸 〈신의이야기 사람이야기〉에서 바이블은 허구 모순 궤변에 앞서 인간을 매혼노로 세뇌시키는 무서운 독이며 감염된 자의 모든 것은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간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바이블의 허구를 낱낱히 파헤치고 있다. 〈국조 9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3	불교 선수행의 핵심	송 위 지	시 공 사
4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5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일 타	민 족 사
6	티베트의 지혜	소갈린포체	민 음 사
7	입산	재 연	문학동네
8	있는 그대로	마하리쉬	한 문 화
9	유식학개론	이 만	민 족 사
10	가슴을 적시는…	성우·지현	민 족 사

구입문의:(02)737-0695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7,000원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Ⅰ. 새벽예불
Ⅱ. 오분향례
Ⅲ. 부처님이시여, 크나큰 진리여
Ⅳ. 거룩한 사대보살
Ⅴ. 영산회상의 제자들
Ⅵ.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Ⅶ. 자타일시성불도

신국판 / 5,000원

불보사: 원이사: 불은 조원사로 인연추십시오. 현인에덕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 6612 · 팩스 : 586 9078

해외유학스님 향학열 뜨겁다

日·英등서 연구성과 잇달아 인정받아
소장파 스님 1백여명 연구분야 다양


◇진월스님


◇지관스님


◇법성스님

해외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소장학승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젊은 스님들에게 유학 바람이 분 것은 10여년 전부터다. 초기에는 일본으로 유학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영국 인도 스리랑카 등으로 유학지가 바뀌고 있다. 천태 유식 등 불교사상을 한문경전 중심으로 공부하던 경향이 원전중심 연구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유학지의 변화와 연구분야의 다양화 추세는 현재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소장파 학승들이 이끌고 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소장파 학승들은 20여명 안팎. 동국대 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박사학위 논문 준비를 하거나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도 있다. 이들 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학구열을 불태우는 스님들은 어림잡아 1백여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교계는 유학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연구 흐름에 대한 체계적 진단은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까지 유학승들이 많이 찾는 곳은 일본이다. 이중에서도, 불교사회복지학과 정토학으로 유명한 경도 불교대학에서 중앙승가대 출신 스님들이 다수 수학하고 있다. 일본의 불교대학은 설립한 종단의 성격에 따라 전문분야가 달라 유학승들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전공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역시 불교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유학승들의 숫자는 얼마되지 않는다. 영국은 팔리성전협회를 비롯해 옥스퍼드대학의 리차드 콘브릿지 교수 등이 남방불교 팔리성전 연구로 유명해 남방불교를 연구하려는 유학승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인도 델리대 뿌나대 등에도 많은 스님들이 근본불교 연구에서부터 다양한 사상을 담은 산스크리트 원전을 공부하고 있다.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조선후기 초의선사 연구로 불교학박사 학위를 딴 진월스님은 "미국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주는 곳은 몇 곳 되지 않는다"며 "시대별 사상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후기는 특히 소외된 분야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진월스님은 "박성배 교수 등 몇몇 학자에 의해 미국 불교학계에 한국불교가 알려졌으나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 등이 부족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본이 대정장경을 영역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 한국불교를 연구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에이지학원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지관스님(길상사 주지)은 박사학위 논문으로 '남방불교 사찰에 있어서 수행과 사찰의 법회의식 관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관스님은 "남방불교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일본에서는 불교경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화 등을 비교조사하는 불교문화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연구는 이런 불교문화학에 가깝다"고 말했다.

대만 보인천주교 대학에서 '송대 육산산 선생과 종밀스님의 철학사상 비교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법성스님(포교연구실 사무국장)은 "대만은 학제 등이 까다로워 스님들이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동안 접근이 어렵거나 외면당했던 남방불교 조선후기 불교 산스크리트 원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근을 통해 새로운 21세기 한국 불교학을 이끌어 갈 스님들의 연구활동이 기대된다.

더불어 각 종단의 체계적인 유학승 지원 육성책은 선행돼야 할 과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불교학당 http://kitel.co.kr/~mirrk ■ 불교교양강좌 http://studybud. buddhism. org



◇불교학당에 들어가면 경전의 세계와 더불어 불교문학관 산행문답 등 정보가 가득하다.

클릭하면 국내 불교학 정보 '보여요'

불교학 정보와 경전 연구 등 불교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두 곳이 잇따라 개설돼 불자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개설된 불교학당, 불교교양강좌는 기초교리입문, 원전 소개 등 알찬 정보로 네티즌들을 찾아가고 있다.

대학생불자들의 모임인 룸비니회원 박형근씨가 운영하는 불교학당은 어린왕자 속에 나타난 불교사상을 고찰한 소고를 비롯해 불교입문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순위를 매기는 한국 WEB 100의 철학부문 종교분과 1위를 차지하기도 한 실속있는 사이트이다. 국내 최초로 불교 홈페이지 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서비스인 'Buddhist TOP 10'도 서비스하고 있다. 적멸보궁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 사진을 공개하며 예불을 드릴 수 있도록 〈천수경〉 〈반야심경〉 등을 같이 제공한다. 진리의 말씀에는 온라인 법문, 경전의 세계에서는 〈금강경오가해〉 〈대불수능엄경〉 등을 담았다. 자료실에는 〈대반열반경〉 〈법구경〉 등 14개 경전을 수록했다.

유니텔 불교동호회 회원인 이재윤씨가 제작한 불교교양강좌는 불교입문, 전통강원, 참선, 경전, 교리, 불교정보, 불교문화, 법문, 불교백과사전, 불교자료실 등의 서비스를 한다. 초발심자를 위한 불교입문방에는 기초교리문답을 비롯해 의식과 예절, 신앙생활, 부처님의 생애 등을 담고 있다. 전통강원방은 강원 교과과정 해설과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등이 올려져 있다. 참선방에는 참선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선입문, 수선강좌, 참선수행 등을, 경전방에는 한역 한글 영역 〈금강경〉이 그대로 올라가 있다. 불교정보방에는 불교정보센터 불교신문 사찰 역사인물 인명록 전화번호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보여준다.

강지연 기자

대각국사 의천 구법행로 특집

'불교춘추' 14호 나와

최근 발간된 〈불교춘추〉 14호는 '동아시아 사상계를 장악한 고려 제일의 선지식 대각국사 의천'을 특집으로 다뤘다. 〈불교춘추〉의 역사인물탐구팀은 행산스님(영산 법화사 법주) 김문경 교수(숭실대) 이영자 교수(동국대) 이준 교수(건국대) 박경하 교수(중앙대) 등이 참석한 의천학술조사단을 구성해 1월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서울을 출발해 청도 관교진 개봉 진강 소주 가흥 항주 소흥 천태 영파로 들어오는 의천의 입송구법루트 2만리를 그대로 추적했다.

의천 특집은 △대담 동아시아 사상계 장악한 의천의 자취 △원효의 계승자, 고려 제일의 선지식-심재열 소장(원효사상연구소) △나당 항로와 의상·의천의 당송길-김문경 교수(숭실대) △의천의 입송구법과 송·여의 불학교류-표지성 연구원(중국 절강대학 한국학연구소) △소동파의 고려관-채원화 원장(반야로차도문화원) △의천 대각국사와 불인 요원선사-이준 교수(건국대) △천태산 구법의 고승들-이영자 교수(동국대) 등을 담고 있다.

큰 깨달음 불전역회 창립

경전번역 사업과 경전을 토대로 한 신행운동을 펼쳐나갈 사단법인 큰깨달음불전역회(가칭, 이사장 학담스님)가 18일 창립됐다.

불전역회는 대중의 숫자에 연연하던 신행운동의 구태를 벗고 불자 개개인을 중심으로 불교사상을 배우는 각(覺)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법회에는 김광식 소장(21세기 한국연구소)이 '문명의 전환과 종교의 역할'을 강연했다. 이외에 대승사 개원3주년 기념법회 및 대승백련회 제3기 출범식도 거행됐다.

승가대 논문집 제7집

중앙승가대 논문집 제7집이 나왔다.

7집에는 △초기 교단의 구성과 출가 및 구족계 제도-태원스님 △징관의 오대산 입산과 〈화엄경소초〉의 저작-혜남스님 △법화삼매의 형성과정에 관한 소고-성우스님 △화엄교학의 법계의의 고찰-본각스님 △당대 경교의 전래와 불교-홍선스님 △청소년 정신 건강과 복지정책과의 관계 모색-김응길 △불교사회학의 성립조건-유승무 △영원한 동심의 추구-조명렬 등 9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학술단신

'가야문화' 제11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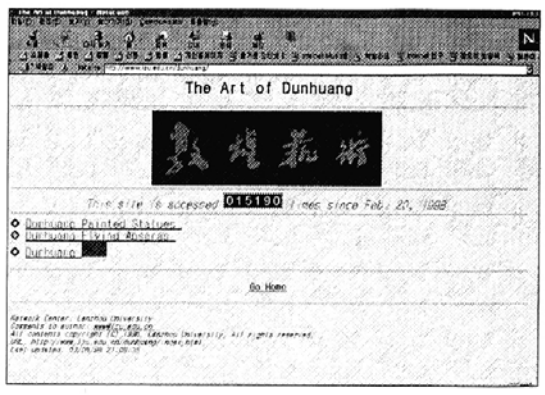
가야문화연구소는 〈가야문화〉 제11호를 발간했다.

제11호에는 가야불교의 전래와 문제점을 비롯해 대가야의 체제확립과 왜지진출에 대한 고찰, 가야토기의 지역상에 관한 연구, 대가야의 고분수석에 나타난 거북신앙과 용상석(龍象石) 연구 등 6편의 논문을 담고 있다.

삼대화상 추모 학술회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삼대선사 지공 나옹 무학선사를 기리는 다례제 및 학술발표회가 5월1일 회암사에서 열린다.

신규탁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학술발표회에는 '무학전승의 특징과 그 의미'를 강석근 강사(동국대)가, '기화의 불교변호론'을 박해당 강사(경희대)가 각각 발표한다. 발표에 대한 논평은 이종찬 교수(동국대)와 정영근 교수(서울산업대) 등이 맡았다.



투다피아 사이버 기행
돈황으로 여행

돈황(敦煌). 막고굴로 널리 알려진 이곳을 인터넷으로 방문해 보자. 금세기에 발견된 유적중 최대로 꼽히는 만큼 이들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한 불교미술품 또한 다양하다.

중국 돈황시에 있는 막고굴은 천불동이라고도 하며 지금까지 총 492개의 석굴이 발견됐다. 막고굴은 366년 낙준스님이 조성하기 시작해 북위, 서위, 수, 당, 송, 원에 이르는 13세기까지 1천여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따라서 시대에 따른 불교미술의 변화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돈황전경-발굴품 색인

▲국제돈황프로젝트

국제돈황프로젝트(이하 IDP) 사이트에는 △IDP 소개 △돈황의 전경 △발굴품 색인 △돈황 소식 등이 불자 네티즌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IDP는 중앙아시아 돈황에서 발굴된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공동연구를 고양하기 위해 영국의 대영박물관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돈황연구단체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4세기에 제작된 불상과 8세기 쓰여진 〈금강경〉을 비롯해 돈황내의 갖가지 경전과 불상에 대한 설명과 선명한 화보를 볼 수 있다. 이중 불자에게 널리 알려진 '제57굴 보살상' '제199굴 관음보살상' '제327굴 헌화비천상' 등의 벽화와 석가모니와불 탁본 등이 백미.

이외에도 중국 당나라 시대의 의학서, 남북조시대를 풍자한 벽화, 별자리(星圖) 등 의학·정치학·천문학과 같이 다양한 고대 문화 유산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세계적인 불교문화유산 돈황석굴을 되찾기 위해 중국이 나서고 있다는 최근 소식도 전해준다. 이에 따르면 증국의 문화재 전문가들은 최근 베이징대학에서 회의를 갖고 관계 당국과 힘을 합쳐 잃어버린 돈황유물 되찾기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는 것.

돈황석굴은 1900년 중국 감숙성에서 발견돼 4-5만권의 불서들과 약 1천여점의 불과가 봉안돼 있는 것이 확인됐으나 75% 가량이 외국으로 밀반출돼 현재는 돈황유물연구소에 약 3백권의 불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컴퓨터그래픽 50점 제공

▲돈황 사이트

석굴사원의 불교미술품 중 50여점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공한다.

이중 석굴 275호의 '시비왕본생담'(422~439)은 돈황의 초기 벽화로 석가 전생의 희생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도식화된 안면의 강한 명암이 인상적이다. 또 부처님이 사슴으로 태어났을 때의 전생 이야기를 구현한 257호 석굴의 '므리가 자타가'(8세기)와 사천왕상(석굴 55호), 천문도(天文圖, 석굴 322호) 등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270여개의 석굴 벽면에 4천여점이나 그려진 '압사라스(Apsaras)' 중 대표적인 그림 25점을 시대순으로 정리해 놓고 있어, 시대적 변천에 따른 '압사라스'의 변화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압사라스'는 고대인들에게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의 상징이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돈황프로젝트 http://portico.bl.uk/ oioc/dunhuang.html
△돈황 http:/www.lzu.edu.cn/dunhuang/

불기 2543년 봉축용품 안내

"최고의 품질로 최상의 만족을 드립니다!"

■ 현수막

1 봉 불기 2543 년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종 ○○사 T.000-0000 축

2 봉 2543 Buddha's Birthday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종 ○○사 법요식 5월22일 ○○시 축

3 봉 2543 Buddha's Birthday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종 ○○사 T.000-0000 축

◆ 규 격 90㎝× 6m 40,000원 90㎝× 8m 50,000원 90㎝×10m 60,000원

■ T셔츠

◆ 면 100%, 30수 실켓가공
◆ 규 격 성인용 L, LX 6,500원 아동용 S, M 5,500원
• 아래 캐릭터중 선택인쇄 가능합니다.
• 100매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I♡Buddha 방생 비상 명상 묵언

■ 손수건

◆ 면 100%
◆ 규 격 41㎝×41㎝ 2,500원

■ 등 ※ 등재료(연잎, 등살, 등지)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 공단등 6㎝ 8㎝ 10.5㎝ 15㎝ 20㎝
◆ 만월등 大 小
◆ 장엄등 10.5㎝ 12㎝ 15㎝ 20㎝

■ 조끼

◆ 성인용 L, LX 25,000원
◆ 아동용 S, M 20,000원

■ 앞치마

◆ 면 100%
◆ 가 격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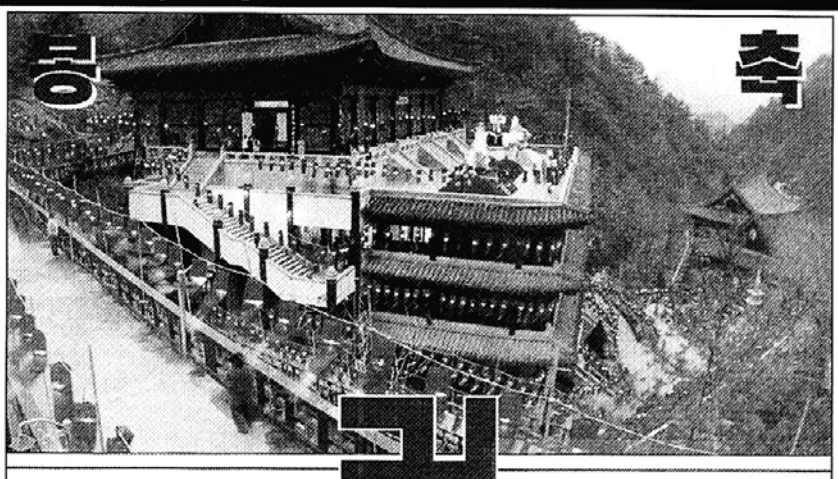
■ 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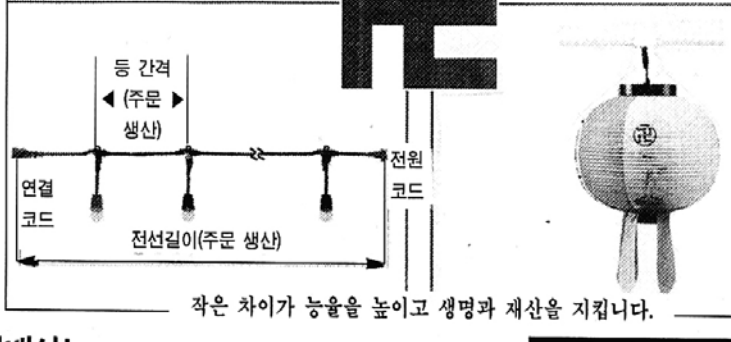
◆ 일반리본 250원
◆ 고급리본 350원
◆ 귀빈용3단 1,000원
• 색상: 연분홍, 노랑, 꽃분홍, 빨강
• 5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 기타 어깨띠, T형 안전전선 등 봉축용품 일체 취급합니다.

불교이벤트 신우기획
서울·마포구 마포동 140(다보빌딩 불교방송 7층)
전화:(02)716-7790(대) 전송:(02)716-7792
온라인 구좌번호(예금주 정영주)
외환은행 189-22-01533-0 농 협 069-12-162672
국민은행 827-21-0538-184 우체국 012245-0191553

연·등·용·전·기·배·선·안·내





작은 차이가 능률을 높이고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연결배선!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수거·보관 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안전하고 편리하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제일안전공사
☎ (02)525-5801
※휴일없이 24시간 전화 가능합니다.

"禪은 소승 선바라밀은 대승"

대지도론 (상)

글쓴이



김 성 철

〈중앙승가대 강사〉

경전 속의 禪 사상 16

空사상 체득 이타행 실천해야 禪수행
용수보살 해설한 백과사전적 교리서

〈대지도론〉은 〈마하반야바라밀경〉에 대한 용수 보살의 해설서로 총 100권으로 이루어진 대작이다. 〈대지도론〉에서는 불교교리 전반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설명과 아울러 각 교리에 대한 반야 공관적 해설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제17권에서 '(보살은) 산란한 것도 없고 애착할 것도 없기에 선바라밀을 갖춘다'는 〈마하반야바라밀경〉의 구절을 해설하면서 선(禪)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대지도론〉에서는 단순한 禪과 선바라밀을 구분한다. 단순한 선이란 아비달마불교, 즉 소승불교적인 선정(禪定) 수행으로, 감각적 욕구를 멀리하고 마음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색계(色界) 4선과 무색계(無色界) 4정, 또는 무상정(無想定)이나 멸수정(滅受定) 등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선에 대한 〈대지도론〉의 설명은 소승교학에서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에 곁들인 선바라밀에 대한 설명에서 〈대지도론〉 특유의 시각이 발견된다. 그 중 대표적인 구절 몇 가지를 발췌해 본다.

"아라한이나 벽지불이 닦는 선수행의 경우 그 경지에 대해 애착을 내지는 않지만 대비심이 없기에 이를 선바라밀이라 할 수가 없다.", "선바라밀의 힘으로 무수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윤회의 세계 속에 들어가 삼승의 법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소승인의 선정 수행에서는 고요함을 취하고 소란함을 버리지만, 대승 보살은 소란하다거나 고요하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소란함과 고요함이 하나이기에 이를 선바라밀이라고 부른다.", "소승의 선정 수행에서는 감각적 욕구를 멀리하고 갖가지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선정에 들지만 대승 보살은 그런 감각적 욕구와 갖가지 장애가 실체가 없음을 관찰함으로써 선정에 들어가며 이를 선바라밀이라고 한다." -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선과 구별되는 선바라밀의 두 가지 특징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첫째는 선수행이 단순히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제도라는 '이타적 목적'을 갖는다는 점이고, 둘째는 선에 대한 '반야 공관적 조망'이 부가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소승적 선의 형식에, '이타적 목적'과 '반야 공관적 조망'이 부가되어야 선은 비로소 대승불교적인 선, 즉 선바라밀이 되는 것이다.

선바라밀이라는 술어에서 선은 선의 소승적 형식을 지시하고 바라밀은 선의 대승적 목표와 그에 대한 반야 공관적 조망을 함의(含意)한다.

이러한 〈대지도론〉의 선관(禪觀)에 비추어 볼 때 달마와 혜능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승되는 선불교적인 선(禪)은 엄밀히 말해 선정과 반야바라밀이 결합된 개념인 선바라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지도론적 시각에서 선불교를 조망한다면, 선어록은 반야어록이며, 선문답은 반야문답이라고 불러야 옳으며, 그런 선사들의 좌선을 통한 수행에 대해서만 선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할 것이다.

〈육조단경〉에서 신수와 혜능은 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반된 관점을 피력한다.

신수: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明鏡臺)와 같으니, 부지런히 털어 내어, 때가 끼지 않게 하라."

혜능: "보리는 원래 나무가 아니며, 명경(明鏡) 역시 대(臺)가 아니어서,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때가 끼겠는가?"

하택 신회 이후 남종선의 후계자들은 이 게송에 의해 혜능이 신수를 제압했다고 평한다.

그러나 여기서 신수의 게송은 선의 형식적 측면을 설명한 것이며, 이를 비판하는 혜능의 게송은 그에 대한 반야바라밀적 조망을 노래한 것으로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봄으로써 양자의 갈등은 화해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달마 이후 혜능은 물론 마조와 임제와 조주에 이르기까지 선사들의 언행은 어록으로 남아 화두로 이용되지만, 그들 자신의 수행법은 결가부좌를 통한 선, 즉 관심법(觀心法)이었다. 수행자들의 실질적인 수행과 그에 대한 반야 공관적 조망이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교훈을 우리는 선바라밀에 대한 〈대지도론〉의 설명에서 얻는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5

반야바라밀다 문헌 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신조에 집착하는 열렬한 지지자는 반대되는 신조를 '하찮은 것'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싸우는 개와 마찬가지이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론에 집착하지 않는 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의식있는 사고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때, 이론에 집착하지 않는 이 브라만은 어떻게 진실을 식별하는가?" 〈숫타니파타 중에서〉

지성의 그릇된 역할 가운데 '참다운' 실재를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 고대 선사와 현대 언어철학자는 그 한계가 언어에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란 그 활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양하며, 또 실제로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낱말은 한정된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한 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쉽사리 오도되고 마는 것이다.

조주(777~897)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한 줄기의 빛이 수십만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면, 이 한 줄기의 빛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질문은 가장 심오하고도 당혹스러운 철학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노승은 답변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도 않았으며, 장황하게 논의하지도 않았다. 스님은 다만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신발 한 짝을 벗어 던졌다.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면 할 수록 당혹스럽던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당혹스러운 반응과 마주치게 되는 것 같다. 도대체 그러한 반응이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말하고 있듯이 심안(心眼)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인다.

진리 바로보는 순간
그릇된 분별 소멸

사실 우리는 그러한 응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의 당혹감은 더욱 깊어만 간다. 그같은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는 지성보다는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

우리의 괴로움은 우리 스스로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하나 있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개념을 부적당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 조주스님의 응수는 우리의 곤란함 자체를 가라앉히고 있다.

조주스님의 기묘한 응수 배후에는 답변이 아닌 질문 자체가 헛소리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짐으로써 조주스님은 모든 진리들 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것을 전해주고 있다. 그 질문은 그릇된 개념으로 얽혀 있고, 잘못된 논리적 사고에 매여 있다. 개념과 논리의 양자는 모두 참다운 실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의 부조리한 행동은 실재 세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가장 심오한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 즉, 세계는 직접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주스님의 응수는 어떠한 형태의 개념화에 의해서도 제한되거나 전달될 수 없는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 방법은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닌, 직관으로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보거나' '인식하는' 기능에 호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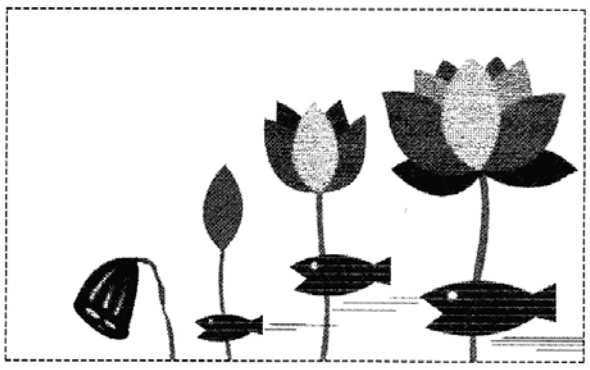
우리는 실재 세계 그대로를 보아야 한다. 그것은 인습적인 사고에 나태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를 파악하는 순간이란 그릇된 분별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소멸되는 순간이며, 세계에 대해서 사고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세계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항생제와 세균 ③

항생제 면역 날로 커져
치료안되는 병균 등장
의약품 의존하기 보다
질병 사전예방 더 중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 주변의 환경에 반응하여 자신을 보존하려 한다.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소위 서양 과학에서도 이 점은 인정한다. 즉, 살아있다는 말 자체에는 자신의 환경에 반응하여 환경을 자기 생존에 유리하도록 개척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병원균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저항성을 개발한다. 일단 저항성이 만들어지면 그 병원균의 모든 자식들도 저항성을 갖게 된다. 일단 저항혈통이 만들어지고 나면 감염되는 모든 사람들은 약물 저항성 문제를 겪게 된다. 그리고 그런다음 이들 생물들은 다른 약품에 대해서도 저항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사태는 더욱 나빠진다.

일본에서도 발견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DT104도 항생제에 저항력을 보이는 살모넬라균의 변종이다. 1984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되어 유럽 및 미국으로 퍼진 이 병균은 집단식중독을 일으킨다.

이 병원균은 대부분의 항생물질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 미국에서는 발생한 살모넬라 식중독 가운데 30% 이상이 DT104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 항생제 저항성 병원균의 출현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연구에 의하면 연쇄상구균 폐렴에 의한 감염 환자 431명 중 25%는 페니실린 저항성의 병원균에, 그리고 전체의 25%는 여러 가지 항생제에 저항 반응을 보였다. 비행기 덕택에 이 저항성 폐결핵은 뉴욕에서 덴버, 프로리다, 네바다 그리고 파리로 빠른 시간에 번져갔다. 비행기는 세계를 하나로 묶는데 공헌을 했지만 또한 전염병을 옮기는 데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병원 감염 전문가인 위스콘신대학의 데니스 마키에 따르면 약 200만의 미국인들이 매년 병원에서 감염되고 이들 감염자들의 반이상이 적어도 한가지 항생제에 저항성을 보인다고 한다. 1992년 미국에서는 13,300 명의 병원 환자들이 약품 저항성 박테리아에 의해 죽었다. 저항성은 특히 에이즈, 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와 같은 면역시스템이 손상된 사람들에게는 특히 심각하다.

뉴욕시의 공중위생 연구소의 배리 크레이스윌쓰(Barry Kreiswirth)에 의하면 지금 뉴욕시와 다른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결핵은 9가지 약품에 대해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어떤 종류의 폐결핵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항생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감염성 질병에 대한 만능 해결책으로 여겨지던 항생제도 일정기간 지나면 더이상 약효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1998년 5월 과학자들이 해가 없는 박테리아가 저항 유전자를 날러 이를 병원균에게 전달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왜 해가 없는 박테리아도 저항성을 갖게 되는 것인가? 항생제에 노출된 모든 생명체는 병원균이 직면하게된 것과 똑같은 환경에 놓이기 때문이다. 즉, 해가 없는 박테리아도 병원균을 죽이려는 항생제에 저항하여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기 때문에 항생제 저항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항성은 해가 없는 유기체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우리는 모든 유기체를 감시해야할 지경이다.

항생제 저항 문제에는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없다고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의 대비스 박사는 말한다. 병원균들은 항상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약품에 대해 저항력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삶의 냉정한 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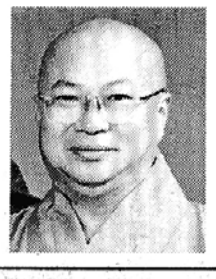
그러나 지성적인 우리는 그것을 느릴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중요한 감염성 질병들은 의학적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이다. 즉, 공중위생, 환자격리등의 방법을 통해 항생제 사용보다는 전염병을 예방하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살아있다는 말 자체에는 자신의 환경에 반응하여 환경을 자기 생존에 유리하도록 개척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면에선 인간이나 박테리아나 같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의식이 높은 인간에게 불성을 깨닫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 뿐이다. 이런 우리 인간은 의식이 낮은 생명체에 대한 연민과 공생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던 조상의 지혜를 발전 계승시켜야 할 것이다. 뜨거운 물은 식혀서 버리고 걸음 하나를 떼놓을 때도 조심하던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이 생활 속의 불교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솔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익수영진고 (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흥화씨
함양산 土種 흥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부처님 미소는 관대함의 뿌리"

산문밖의 禪 예일대 동암문화硏 이사장 **전혜성** 박사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화두로 비교문화를 공부해 온 전혜성박사는 내면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는 혜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내 핏줄에서 '자타불이' 찾아"
'남을 받아들이자' 자녀교육

동암연구소 개설후 48년간
미국에 한국정신문화 알려

"한국의 불상에서는 편안하면서도 그윽한 미소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미소를 바라 보면 문득 한국의 정신문화는 바로 해탈의 문으로 통해있지 않나 생각하곤 해요."

최근 고국을 방문한 전혜성(71·예일대 동암문화연구소 이사장) 박사. 52년부터 미국의 예일대에 동암문화연구소를 개설, 만리타향에서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전박사는 선조들이 빚어 놓은 해맑은 부처님의 미소에서 우리 정신문화의 원형을 찾았다.

전박사의 화두는 '한국 정신문화의 정체성'이다. 딕킨스대학과 보스턴대학에서 사회학과 인류학을 공부할 때, 동서문화의 교류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전박사에게 그 시절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학문의 길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미국에서 불교세가 급성장하는게 단지 '동양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인들에게 불교는 역동적인 힘에 이론적인 깊이까지 더해진,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실천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미국인들에게 '힘'과 '이론'은 가장 인간적인 요소였습니다."

'7세기 한·중·일·베트남의 법문화(法文化) 비교'를 주제로 연구에 몰두해온 전박사가 한국의 정신문화 속에서 균형잡힌 공동과 민주의 철학을 찾아낸 것도 당연한 결과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대표적인 불교문화권 나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와 유교문화권의 종주국인 중국의 '형법'을 비교·연구한 결과, 인권에 대해 가장 관대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결국 그 관대함의 정신이 내 핏줄기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전박사는 그 관대함의 뿌리는 여전히 궁금했고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불이(不二)의 정신에서 의구심을 떨칠 수 있었다.

"관대함의 뿌리는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않는 '불이사상'과 악자를 걱정하는 '자비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 즉, '남'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녀의 철학은 고국에서 처음 마련한 '수묵화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4일부터 9일까지 인사동 아트갤러리에서 '동서문화의 소견'을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서 그녀는 '뉴헤이븐 웹풀코트의 집', '월남의 여성', '외몽고 유목민의 집·겔' 등 이국적 향기가 짙은 소재를 자애롭게 안은 예술 세계를 결쳤다.

"수묵화는 인간의 내부 생명을 발견하는 길이며 상대방이 내재하고 있는 생명을 파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림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단지 재현하는 것이 아니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시회 오프닝 행사에는 보스워스 주한미대사 내외, 이화여대 창상 총장,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 정신문화연구원 한상진 원장등 국내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고국 나들이를 마치고 지난 10일 김포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는 전혜성 박사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다. 수년만에 고국을 방문해 만난 우인들의 환대와 늦깎이 수묵화가로서 고국의 화단에서 치른 성공적인 전시회도 좋았지만, 본래 그녀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은 우선 그 대상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싹트기 마련이죠. 늘상 보는 주위에서 소중함을 찾는 일, 또는 잘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아내 가꾸는 일은 '마음을 내는 일'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글=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수묵화는 인간 내부의 생명을 발견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전혜성박사의 수묵화 '예일대도서관과 여성의원대'.

'성공한 자녀교육' 연구대상가족

취재수첩

전혜성(71·예일대 동암문화연구소이사장). 한국계 2세로는 미 행정부내 최고위직인 국무부 인권담당차관보가 된 고홍주씨, 중앙대 화학과 교수 고경신씨, 매사추세츠주 코전후생부장관 고경주씨, 매사추세츠주립대 의대교수 고등주씨, 예일대 석좌교수 고경은씨, 하버드대 출신 화가 고정주씨등 성공한 6자녀를 둔 한국의 어머니.

그런 전씨가 일러주는 자녀 교육 원칙은 '재주가 덕을 앞서서는 안되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일처리를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고 부모들이 앞장서 모범을 보인다'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전씨는 항상 자녀와 함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매사에 관심을 기울였고, 공휴일에는 자녀와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독후감을 썼다. 전씨가 넷째를 임신중인 서른 살에 보스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도 일본과 몽골 등을 돌아다니며 연구활동을 하는 것도 이런 생각에서라는 것.

전씨의 가족은 미연방 교육부에 의해 '성공한 자녀교육' 사례로 꼽혀 '연구대상가족'으로 지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불교캐릭터 '참신-친근'









깜찍한 디자인의 불교 캐릭터와 캐릭터를 이용한 관시용품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불교 캐릭터는 96년 조계종봉축위원회가 대중과 함께하는 친근한 이미지의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인 이후 해마다 늘어나 그 종류만 20여종에 이른다. 특히 캐릭터를 활용한 엘쇠고리, 핸드폰 스티커, 메모꽂이, 버튼 등의 관시용품은 어린이·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층에게도 인기를 끌고있다.

올해 새롭게 선보여 봉축 분위기를 돋구는 캐릭터와 관시용품은 10여종.

봉축캐릭터의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조계종봉축위원회(집행위원장 원택)는 기존 천진동자 캐릭터의 이미지를 더욱 다양화 시켰다. 어린 아이들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해 어린이 포교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오줌을 싸면서 쑥쓰럽게 웃는 동자, 양치질 하는 동자, 종선을 타고 하늘을 날으는 동자의 모습이 천진난만하다. 모자, 공책, 손수건, 컵, 공중전화 카드 등 15종류의 관시용품을 봉축기간 동안 판매한다. (02)725~6641

지난해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핸드폰용 미니스티커 제작사인 불교나라(대표 오나현)는 올해 차량용 악세사리를 집중 공략했다. 불교기를 흔들고 있는 개구쟁이 동자들,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있는 아기부처님 등의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해 메모꽂이, 불교기 스티커, 창문용 스프링 걸이 등 차량용 관시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아미타불의 수인(手印)을 응용한 캐릭터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부처님의 상호를 의미하는 청·황·적·백·주황의 5가지 불교기 색상을 기본으로 디자인한 수인 캐릭터는 어깨띠, 연등, 현수막 등에 응용된다. (02)733~5721

불교 캐릭터 시장에 새롭게 뛰어든 씨앗과 바람(대표 김은식)은 목탁과 염주, 동자승을 청소년의 이미지로 형상화 한 3종의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다. 목탁은 익살스럽고 조금은 엉뚱한 소년의 이미지를, 염주는 귀엽고 명랑한 소녀의 이미지를, 동자승은 청소년의 친구같은 친근한 이미지로 표현했다. (02)735~2087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부처님 입멸전 열반 예고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㉝ 끝

임종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부처님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보살들을 그린 '쌍림열반상(부분)'. 1728년. 쌍계사.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 죽음으로 인해 인간은 종교를 생각했고 종교에 의지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고승대덕의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는 '불어 끈 상태'를 의미하며 타오르는 번뇌의 불을 깨버리고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를 완성한 경지를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입멸 3개월전 바이샬리에서 열반을 예고했고 마침내 쿠시나가라에서 사라쌍수 아래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오른쪽 옆구리를 붙이고 누워 열반에 드셨다. 제자들이 화장을 하려고 관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 먼 지방에 가 있던 수제자 마하가섭이 7일만에 부처님의 열반소식을 듣고 달려와 슬픔을 터뜨리며 관을 세번 돌며 경례하니 부처님의 발이 스르르 관밖으로 나왔고 마하가섭과 대중들이 부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자 다시 관속으로 들어갔다. 이를 '곽시쌍부'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기 3일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으며 십자가에 못박혀 임종을 맞았다. 예수님은 죽은지 3일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고 한다. 오른쪽 그림은 못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제자들이 슬퍼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프라안젤리코 作 '그리스도의 죽음', 1499년. 산 마르코 성당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⑰

·只 生死未息時 亦非實有
지 생사미식시 역비실유
以妄認生死有 故經云 善男子
이망인생사유 고경운 선남자
一切衆生 從無始來
일체중생 종무시래
種種顚倒 如迷人 四方易處
종종전도 여미인 사방역처
妄認四大 爲自身相 六塵緣影
망인사대 위자신상 육진연영
爲自心相 譬彼病目 見空中花
위자심상 비피병목 견공중화
乃至如衆空花 滅於虛空
내지여중공화 멸어허공
不可說言有定滅
불가설언유정멸
處 何以故 無生處故 一切衆生
처 하이고 무생처고 일체중생
於無生中 妄見生滅
어무생중 망견생멸
是故說名輪轉生死
시고설명윤전생사

위심마피생사지소류 문수운
其力未充故 後有進山主
기력미충고 후유진산주
問修山主云 明知
문수산주운 명지
生是不生之法 爲甚麼却被生死之所流
생시불생지법 위심마각피생사지소류
修云 箚畢竟成竹去 如今作筏使得麼
수운 순필경성죽거 여금작벌사득마
所以知無生死 不如體無生
소이지무생사 불여체무생
死 體無生死 不如契無生死 契無生死
사 체무생사 불여계무생사 계무생사
不如用無生死 今人尙不知無生死
불여용무생사 금인상부지무생사
況體無生死 契無生死 用無生
황체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
死耶 故認生死者 不倡無生死法
사야 고인생사자 불심무생사법
不亦宜乎
불역의호

이 경문에 의하면 진실로 알아야 한다. 원각의 진실을 깨달으면 본래 생사가 없는데 이제 생사가 없음을 알고서도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공부가 도달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경에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끝없는 과거로부터 온갖 일에 잘못 생각함이 마치 혼미한 사람이 사방의 처소를 혼동하는 것과 같이 망령되이 사대(四大)를 자신의 모습으로 삼고, 육진(六塵)의 인연으로 생긴 그림자를 자기 마음의 형상으로 삼는다. 비유하자면 병든 눈으로 허공의 꽃을 보았고 내지 온갖 허공의 꽃이 그 허공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사라진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음과 같다. 왜냐하면 원래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들은 생겨남이 없는 데에서 망령되이 생멸을 보고 있다. 이런 때문에 이름을 생사에서 윤회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據此經文 信知達悟圓覺眞心
거차경문 신지달오원각진심
本無生死 今知無生死
본무생사 금지무생사
而不能脫生死者 功夫不到故也
이불능탈생사자 공부부도고야
故教中說 奄婆女
고교중설 암바녀
問文殊云 明知生是不生之法
문문수운 명지생시불생지법
爲甚麼被生死之所流 文殊云

생과 사가 본래 없음을 알고서도 벗어나지 못함은 공부 부족한 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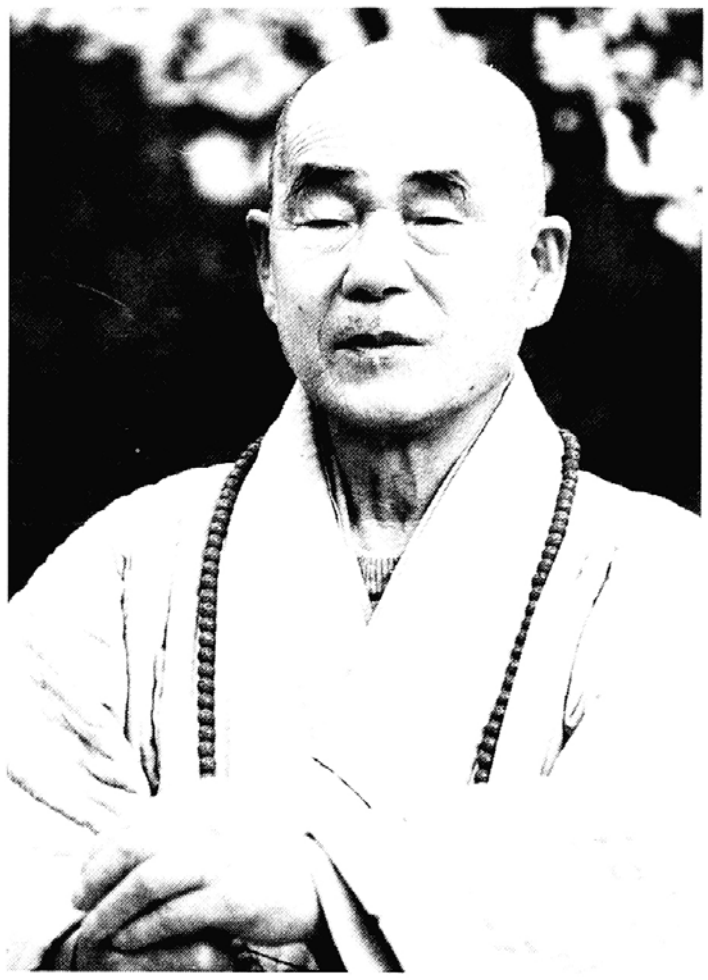
로 교설(敎說)에 보면 암바(마갈다국의 왕비의 한 사람)라는 여자가 문수보살에게 묻기를 "생(生)이 곧 생이 아닌 법을 분명히 알았다면 무엇 때문에 생사의 흐름을 받고 있나이까"하자 문수보살께서 "힘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다."하셨다. 그 뒤에 진산주가 수산주에게 묻기를 "생이 곧 생이 아닌 법을 분명히 알았다면 무었 때문에 생사의 흐름을 받습니까"하자, 수산주는 "죽순은 반드시 대나무가 되지만 지금 당장 뗏목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셨다. 이런 때문에 생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생사가 없음을 체득함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을 체득하는 것은 생사가 없음에 계합(契合)하는 것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에 계합하는 것은 생사가 없음을 활용하는 것만 못하다. 그런데 요즘 사람은 생사가 없음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생사 없음을 체득하겠으며, 생사 없음에 계합하겠으며, 생사 없음을 활용하겠는가. 그러므로 생사를 인정하는 자는 생사가 없다는 법을 불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옥토라도 잡초 우거지면

춘명스님 〈김제 원각사 조실〉



· 1918년 전북 김제 生
· 1927년 송광사에서 연성스님을 은사도 득도
· 1943년 전북불교연합강원에서 대교과 수료
· 1945년 일본 임제대학 졸업
· 1961년 조계종 전북교구 교무국장
· 1979년 화엄종 전북 종무원장
· 現 태고종 승정
· 저서 〈불교인의 인생관〉 등

"급할때만 부처님 찾으면 그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언제나 무조건 믿고 기도하세요

승가에 입문한 사문(沙門)은 개인적 수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 또한 기본 의무입니다.

나의 법사 스님이신 매곡스님은 항상 "놓아버려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리려고 하면 살고, 가지려고 하면 죽는다'는 가르침이었지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욕심 때문에 죽는겁니다. 욕심을 버리면 사는데 그걸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괴로움이 따르는 겁니다. 나는 법사스님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하루에 한번씩 떠올리며 실천에 옮겨왔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잘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불교의 겉모습을 보고 믿을 뿐이지 정말로 불교의 내면을 알고서 믿는 이들이 드문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 진리를 알고 믿어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만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돼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자기가 급할 때에만 부처님을 찾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나 항상 무조건 믿어야 하지요. 부처님께 기도를 할 때에도 욕심을 버리고 기도를 해야해요.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내지 않으면 그 기도의 공덕은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경전에 '강수정이월강림(江水淨以月江臨)' 하고 신심생이제불견(信心生以諸佛見)'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맑으면 달이 비치고, 신심이 지극하면 부처님이 보인다는 뜻이예요. 다른 잡념과 욕심을 가지고 불교를 믿으면 소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의미지요.

내가 출가한 것은 다행스럽게도 욕심과는 멀리 떨어진 인연 때문입니다. 이연선사 법문에도 '아이로서 출가하여' 라는 구절이 있지만 출가인연 복이 있었지요. 9살이 되던 해에 송광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 곳에서 13살까지 밥 짓는 일에서부터 나무 해오는 일 등 힘들고 궂은 일을 체험하며 엄하고 고된 행자시절을 보냈습니다. 13살이 되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당시 강원으로 유명한 경북 사북산 대승사 강원에서 10년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강원에서 공부하는 스님이나 선방에서 수행하는 스님이나 모두 절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니 어렵지 않게 지내지만 그때는 공부를 하러 절에 들어가려면 내가 먹을 양식, 한달에 쌀 서말 값을 절에 내어야 공부를 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 때 나이 겨우 13살 먹은 어린 것이 어떻게 쌀 서말 값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절에 계시던 청안 스님이라는 노스님의 시봉을 하게되어 3년동안은 그냥 공부를 할 수 있었지요.

청안스님은 대승사 노전이셨는데 그 스님의 시봉을 들면서 부처님께 사시마지를 짓고 올렸던 거지요. 그 일이 봄, 여름에는 괜찮지만 추운 겨울에는 손발이 얼어서 터져나갈 정도로 고되고 힘들었지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3년동안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청안스님이 선방(禪房)으로 들어가신다며 노전 소임을 내놓게 됐어요. 그러니 나도 그냥 머물 수 없는 형편이 됐고 더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참 고민하다가 무작정 종무소로 갔지요. 그리고는 주지스님하고 삼직(三織) 스님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겨우 공부를 중등과까지 마쳤으나, 더는 못할 상황이 됐다며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냥 붙잡고 매달렸지요. 절에 소임 아무거라도 하나 주시면 공부하는 값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스님들이 쾌히 승낙을 하시면서 새벽에 대종(大鐘)하고 북을 치는 일을 맡긴 겁니다. 주지스님께서 "쌀 두말을 먹으면서 그 일을 하겠느냐?"하고 물으시길래 "스님, 한말을 먹으면서라도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하고 말하고는 어찌나 고마운지 큰절을 올렸지요. 하지만 서말 양식이라도 한 달을 보내자면 부족한 양인데 두말로 한달을 보내자니 세끼를 다 챙겨 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어쩔수 없이 아침, 저녁만 먹기로 하고 점심은 굶었지요. 점심 공양시간이 되면 근처 개울로 나가 물을 마시면서 배를 채웠는데 그럴때면 가을이 참 좋아요. 가을에는 산천에 열매가 많이 열리니 그걸 따서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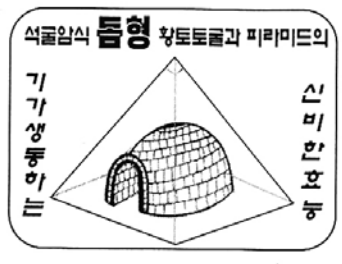
그렇게 점심을 몰로 채우며 3년동안 공부를 계속해 고등과, 그러니까 사교과(四敎科)를 마칠 수가 있었지요. 그런 후에 대교과(大敎科)로 진학을 해야하는데 태평양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때라 공부를 지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절을 나와 1년동안 만행을 다녔습니다. 대교과 공부를 더 하려면 1년 양식은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이 일 저 일 하면서 돌아다녔지요. 그런 후에 찾아 간 곳이 합경도 원산 석왕사였습니다. 대승사 강사스님이셨던 성주스님이 그 곳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간 것이지요. 그 곳에서 공부를 했지만 양식이 떨어져 1년이 채 못되어 결국 절을 떠나야 했습니다.

절을 나온 후 평양 영명사 묘성스님과 금강산 구경을 하며 1년간 만행을 다녔어요. 한번은 금강산 마하연에 올라 처음으로 선방 체험을 할 수 가 있었습니다. 마하연 선방은 〈화엄경〉에 나오는 53 선지식처럼 딱 53명을 정원으로 정해두고 그 이상은 받지도 않을 만큼 고등 선원이었지요. 당시 만공(滿空)스님이 조실이셨습니다. 만공스님을 친견할 때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스무살 남짓 넘은 내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공스

황토 집(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집(토굴)
원하시는 평수대로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현장 방문 환영!! 황토집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 017)566-9969/ 017)582-7116

통도사 화합과 수행가풍의 회복을 위한 모임
가칭 '화 · 수 · 회' 창립 발기 준비 모임

원융살림을 통한 통도사의 민주화 및 한국불교의
수행 ·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사 재적승의 뜻을 결속하는 가칭 '화 · 수 · 회'
창립발기 준비모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일 시 : 2543(1999)년 4월 23일 5시
▶장 소 : 조계사 산중다원
▶연락처 : 051)505-8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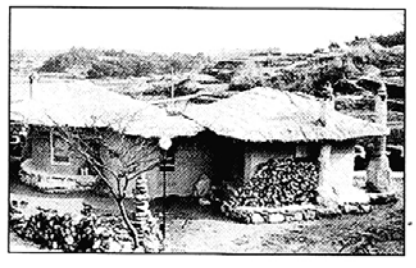
불기 2543년 4월

가칭 '화 · 수 · 회' 창립 발기 준비위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 이 가능 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큰스님 수행한담

곡식 자랄 수 없어요”

잡념·욕심갖고 불교 믿으면 소원이 이뤄지지 않고 마음속에 부정 가득차면 복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 1943년 당시 금산사 주지 성열스님(앞줄 중앙)과 함께 찍은 전북불교연합강원 졸업식 사진. 뒷줄 두번째 가운데가 춘명스님.

“놓아 버려라” 은사스님 말씀 평생 교훈

“인연법 알면 생과사 얽매이지 않아요”

님께 절을 올리자 “어디서 왔는가?”하고 물으시더군요. “고향에서 왔습니다”하고 대답을 했지요. 만공스님께서 그 소리를 알아들으시고는 “고향은 같은데 길은 다르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두 고향은 같은 한 고향인데 살아가는 방식이 제각각 틀리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만공스님은 선방에서 참선을 하는 선객(禪客)이고 나는 강원에서 공부를 하는 경학(經學)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은 다르지만 필경 그 목적은 성불을 이루자는 것이니 똑같습니다”하고 말하자 “아! 그러냐. 고맙다”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당시 3일간 마하연 선방에 머물렀는데 공양 때가 되자 하얀 쌀밥에 맛있는 송이국이 들어오는걸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때는 일제시대라 쌀밥이라고는 구경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는데 끼니 때마다 배부르게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게 참 신기했지요. 부처님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대접 받는 일이라는 걸 그 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참선하는 것은 그 만큼 복을 짓는 일이지요. 강원에서 배고프게 지내다가 마하연 선방에서 쌀밥 먹으며 스님들 참선 수행하던 광경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후 묘성스님은 평양으로 돌아가고 저는 남쪽으로 내려와 전라북도 연합강원에 머물렀습니다. 연합강원은 당시 전라도 지역 본산이었던 위봉사와 금산사가 합쳐서 만든 교육기관이지요. 다행히 그곳에서 공비생(供備生)으로 뽑혀 2년 동안 무사히 대교과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은사스님이신 연성스님이 일본에서 대학을 마친 뒤 절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절에 머물며 교토(京都)에 있는 동본원사(東本願寺)와 서본원사(西本願寺)에서 불교대학을 다녔지요. 그런데 태평양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 되자 학도병이라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는데 거기 끌려갔다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돌아와 금산사에 머물던 중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동안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회향해야겠다는 의미에서 교화사업을 펼쳤지요. 지금까지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게지요.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인생의 생사(生死)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생과 사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겠지요. 다른 종교에서나 철학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분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에 대한 관심은 적고 사에 대한 관심은 많지요. 그것은 생에 대한 인연이나 사에 대한 윤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더 살아야겠다는 욕심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불교인이라 해서 생에 대한 욕심이나 사에 대한 공포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인연법을 알게 되고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사고를 체득하여 무상을 느끼기 때문에 생에 대한 애착과 사에 대한 공포심을 덜 수가 있습니다. 인연에 따라 울 때에는 와야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을 때에는 늙어야 하며, 육체적 정력에 따라 자연히 오는 병고를 겪어야 하고 유형적 물질의 한계에 따라 죽음의 고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연법을 역행하는데서 두려움과 슬픔, 괴로움이 오게 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욕망대로 안되는 것을 자탄하거나 누구에게 원망해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자기 잘못으로 얻게되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고 미래를 추구하면서 선업(善業)에 정진해야 해요.

우리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드러내서 흉을 봅니다. 자기 자신의 죄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숨기며 합리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거나 반성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생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도 엄청남을 살펴볼 때 마음이 아프고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무리 숨기려해도 세상 사람들은 먼저 알고 있지요. 항상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 하겠습니다. 가령 세상사람의 이목은 피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피할 수 없으며 어리석은 중생을 속일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범한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할 줄 알아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험한 집은 빨리 수리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병든 자는 어진 의원을 찾아 빨리 치료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더러운 의복은 자주 빨아 입어야 추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아침에 지은 잘못은 저녁에 참회하고 저녁에 지은 잘못은 아침에 참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잘못을 참회할 줄 모르고 은폐하면서 잘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물이 가득찬 그릇에 맑은 물을 부어 보았자 넘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잡초가 우거지면 곡식이 자라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 속에 부정이 차 있으면 착한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이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울한 근심속에서 찌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세상사가 자기 마음대로 안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가 만족되면 둘을 생각하고, 둘을 얻으면 열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지요. 우리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너무나 욕심만 부리다 보니 항상 불만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에는 우울한 표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예요. 불만 속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진심을 일으키면 자신의 마음과 몸에 무서운 병만 일어나 고통을 받게되지요. 부처님 말씀에 진심은 불과 같아서 착한 마음과 아름다운 몸을 태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과 진심을 한번만 참아보고 밝은 웃음으로 대해 보세요. 밝은 웃음은 무한한 행복을 가져오고, 또 그것으로 이상하리만치 내 가슴이 편안해 집니다. 그리고 내가 편하면 이웃이 편하고, 또 이웃이 편하면 자연히 이 사회가 편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석복 〈한국조폐공사 감사〉

월남전 참전 육자진언 외며 용기백배

매일새벽 108배…군법당 건립 큰 기쁨

초등학교 시절 가슴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순수한 불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6.25전쟁이 터지면서 아버님이 우선 어머님과 우리 두 형제를 먼저 피난보내고 곧 뒤따라 오시겠다던 것이 일년이 넘도록 연락마저 두절되었을 때의 일이다. 충청도 아산부근 두메산골로 피난간 어머님과 우리 형제는 항상 식사전에 간곡한 기도를 드렸고, 잠자기 전에도 천수경을 외우면서 아버님의 무사(無事)와 우리가족의 안전을 기원하곤 했다.

일년 뒤 유난히도 아침에 까치들이 그렇게 짖어대더니 갑자기 아버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아버님은 여러차례 죽을 고비를 맞이했지만 꼭 누가 도와주는 것같이 그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하셨다. 나는 그 후 어려울 때 간절히 부처님께 기원을 하면 반드시 그 기원이 이루어진다는 순수한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희미하나마 깨닫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1961년)하면서 훌륭한 교회와 멋있는 성당을 옆에 두고 법당도 없이 교실을 빌려 법회를 갖는 불교부에 적을 두게 된 것도 내 이름과 그러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처음으로 찬불가를 피아노 반주도 없이 지도교관을 따라 배우고 한달에 한번정도 일요일에 서울근교 사찰과 동국대학교 등을 방문하였던 기억이 난다.

임관한 후 낙하산 훈련을 받을 때에도, 월남전에 참전 했을 때에도, ‘옴마니 반메훔’을 외우면 두려움이 없어졌던 기억도 새롭다. 대대장을 할 때 연대의 군목사가 연대장 및 모든 대대장들이 기독교 신자인데 나만 불교신자인고로 반드시 기독교 신자로 개종시키겠다고 매일 찾아와서 졸라대던 기억도 씁쓸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다.

장군이 되고 사단장으로서 1만2천명의 부하를 지휘 할 때 나의 불심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던 것 같다. 매일 새벽 법당에서 108배를 하면서 국가와 군 그리고 사단장병을 위해 기도하였고, 내가 우둔하지 않도록 지혜를 갈구하였다. 이타의 참뜻과 기쁨을 체험한 듯 했다. 사단의 전 장병은 사단장이 매일 새벽에 절을 하는 정성을 이해 해서인지 사기도 높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최우수사단으로 부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군 제일의 사단이 되었다. 재임간 4개의 교회, 3개의 성당 그리고 7곳의 법당을 새로 장만함으로써 편견 없는 종교관과 신앙을 생활화 시켰던 것이 아직도 자랑스럽다. 한번에 1천여명의 장병이 수계를 받기도 했다. 새벽108배는 건강에도 좋았던 것 같다. 특히 전날 아무리 만취가 되었어도 108배 후에는 정신이 어름장같이 맑아졌고, 절을 하던중에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문득 솟아나기도 했다.

국방부에서 국장으로 근무시 국방부 불교신도회장직을 맡으면서 두 번의 고비가 있었다. 한번은 OO사단에서 있었던 훼불사건이고 그 다음은 대통령이 군교회에 예배차 참석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법당신도들에게 과잉경호로 큰 불편을 야기했던 사건이었다. 언론은 물론 전 불교계가 들고 일어났다.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 신자들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서 마땅히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했다. 그러나, 지나치면 스스로 탐·진·치의 3독에 빠질 우려가 있어 재발방지와 장관의 진정한 사죄 수준에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였다. 그 후 군 불교신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군내 종교간 갈등문제도 상당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

36년간 군복무를 마치면서 전역일 마지막 순간까지 근무에 전념하다보니 예편에 따른 마음 준비는 물론 제2인생 설계를 전혀 못하였다. 그래서 한가지 방편을 낸 것이 전역 다음날 아침에 가야산 어느 암자를 찾아 주지스님과 부처님과 함께 마음도 추스리고 대략적인 제2인생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1기 佛敎儀式(범음·범패) 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3개월)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3개월)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6개월)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 의식전문법사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원서접수 : 1999년 5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1999년 5월 3일 오후 5시 정각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제13기 불교지도자를 위한 불교학과 법사과정 학인모집(1년과정)
불교는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과정을 대승불교의 발전사에 맞춰 꼭 알아야 할 것만 가르쳐 드립니다. 한국불교의 포교를 전담할 지도자(스님, 법사,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개설된 도량입니다.
1. 교과목: 불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소승불교의 이상과 실천, 대승불교, 정토불교, 법화경 읽기, 반야심경과 공, 밀교의 세계, 천수경 읽기, 불교와 예술, 중국불교와 선, 한국불교, 비종교등.
2. 교수진: 동국대학교수 및 교계 권위있는 각 과목 전공교수
3. 정 규 : 통신 각 OO명
4. 강의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5. 개강일시: 1999년 4월 24일
6.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7. 특 전: ① 승려후보생의 수계등록 ② 법사자격 취득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극장 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02) 741-0495, 0496 FAX : 765-3169
海東佛敎梵音大學
海東佛敎儀式敎育院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겨울철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2)883-7400(代)
·영업부 : 02)877-6090
·FAX : 02)876-3378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립고 지겹고 짐은 마르며 몸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율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짐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에 한맺힌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법.
◆ 장궤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 차돌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액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학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추대 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藝術文化院
韓國佛敎禪墨家協會

동해바다에 떠 있는 법당

가람의 장면들 6

낙산사 홍련암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건축학〉

법당 안 마루바닥에 반뜸짜리 작은 구멍들이 여기저기 뚫려있다. 그 작은 구멍들에 눈을 바싹대고 들여다보면, 저 아래 깊은 곳에 넘실대는 파도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된다. 홍련암은 그렇게 바다 위에 떠있다. 정확히 말한다면, 가파른 절벽 사이의 바위 틈에, 마치 다리를 놓듯이 마루를 걸치고 집을 지었다. 왜 이처럼 험난한 곳에 어렵게 법당을 지었을까?



◇바위 절벽에 법당을 짓는 것은 극진한 신앙의 표현이다. 홍련암은 의상대사의 구도심을 기리고 동해8부신중을 배려하기 위해 동해바다가 들여다 보이도록 절벽 난간에 지었다.

> 의상대사 14일 기도후 관음보살 친견한 자리 : 구도심 기리려 벼랑에

규모 작지만 극진한 신앙 결정체

홍련암은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경내에 있는 작은 암자다. 낙산사는 관동팔경의 하나로, 정선과 김홍도가 그림을 남겼을 정도의 명소였지만, 6·25전쟁 통에 크게 망가져 현재의 건물들은 대부분 1960년대에 재건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위치한 뛰어난 풍치와 홍련암 의상대를 포함한 넓은 경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건주 의상대사의 생사를 초탈한 구도의 전설들로 가득찬 곳이다.

의상대사가 활동하던 통일기 신라에는 전 국토를 보살들의 거주처로 인식하려는 국토재구성 운동이 한창이었다. 대표적인 곳이 오대산으로 문수보살이 계시는 곳으로 발돋움했다. 문수보살과 함께 가장 중요한 보살인 관세음보살은 동해 남해 서해 각 해곳에서 친견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원래 관세음보살은 동쪽의 보타락가산을 주처로 가지고 있다고 화엄경에 나온다. 낙산사의 절이름도 결국 보타락가산에서 유래한 것이다. 관세음보살 제1의 성지가 동해의 낙산사라면, 제2는 남해의 금산 보리암이고, 제3은 서해 강화 보문사다.

의상이 당나라에서 돌아온 후,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동해의 관음굴을 찾아가 간절한 신앙고백과 원을 담은 〈백화도량발원문〉을 염하면서 참배하고 있었다. 재계 7일만에 8부신중이 나타나 관음굴 속으로 스님을 인도했고 수정염주 하나를 용단의 징표로 취어주었다. 그러나 대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굴 앞 바다 위에 솟아있는 구농석 바위에 앉아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다시 7일간. 그러나 관세음보살은 나타나지 않았다. 용단이 없음에 대사는 자신의 정성이 부족함을 탓하며 바다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솟아나 대사를 구해준 것은 물론, 그 속에 드디어 관세음보살이 현신해 친견의 원을 이루게된다.

그 친견의 장소에 지은 법당이 홍련암이고, 홍련암 아래의 암석굴이 바로 관음굴이다. 이처럼 바다 위 절벽에 자리를 잡은 까닭은 수정염주를 바친 바다 속의 8부신중들이 불법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목숨까지 바치려했던 의상의 높은 신심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자리에 지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가파른 바랑을 골라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대단한 난공사였다. 일부러 악조건을 감수하며 법당을 짓는 까닭은 그것이 최대의 공덕이기 때문이다.

비단 홍련암 뿐 아니다. 금산의 보리암도 작아지른 듯 높은 절벽 위 좁은 터에 지어졌고, 관악산 연주암도 마찬가지다. 건축재료들을 나르기도 힘들고 공사도 어려운 곳이다. 강화 보문사는 아예 바위를 파고 들어가 관음보살을 모셨다.

3대 관음 성지가 모두 험난지형과 난공사를 택했던 것이다. 의성의 고운사 가학루는 넓은 계곡을 가로 질러 건물을 올려 놓았다. 금강산 보덕굴은 아예 천길 낭떠러지 위에 매달린 구조로 이루어졌다. 모두가 극진한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난공사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홍련암 바닥의 작은 구멍을 통해 동해의 파도를 보자. 두려움이 먼저 앞선다. 대자연의 힘 앞에 너무나 미약한 인간. 그러나 의상을 비롯한 이 법당을 만든 스님들의 정성을 생각하면, 그들의 치열한 구도자세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선재동자가 53 선지식들을 찾아 다니며 진리를 구했듯이 진리에 이르는 험난한 길을 헤쳐간 선인들의 역정이여.

불교건축은 인력과 기술, 자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축은 그 자체가 신심의 상징이어야 한다. 홍련암은 작은 규모에 불과하지만, 이 건물이 담고있는 신심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단지 시주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크고 넓게만 확장하고 있는 현대의 불사는 부끄럽기만 하다. 부처님은 법당의 크기를 어여삐 여기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거기에 담긴 신심과 치열한 구도의 정신을 볼 뿐이다. 바다 위 절지에 선 작은 홍련암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다.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판석에 음각…조형미 떨어져

철원 삼신사지 철불입상

■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민간인 통제구역에 있는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운장리 삼신사지 석불입상은 삼신산 기슭의 광탄한 가람자리에 서있다.

삼신사지 석불입상은 친견하기조차 곤란했으나 최근 민통선이 완화되어 군부대의 허가를 받으면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삼신사지 석불입상은 높이가 2m55cm, 넓이가 1m16cm, 두께가 26cm로 자연판석에 음각으로 조각돼 있다. 판석에 불상을 조각하는 것은 특별한 예술감각이나 조형미가 떨어지는데 이로보아 신

코·입·얼굴등 훼손 심해 '눈물 흘리는 불상' 구전

심돈독한 불자의 원력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육계는 불두의 크기보다 크게 선이 그어져 있으며 눈은 옆으로 길게 조각하였다. 또 길게 늘어진 머리와 귀는 선으로 그어 구분하였으며, 코와 입, 얼굴은 인위적으로 손상됐다.

목에는 삼도가 있고 양어깨에서 내려온 팔은 균형미가 떨어진다. 수인은 두손을 모아 합장한 듯하나 이도 분명치 않다.

석불문화연구회 고재두부장(답사관리부)은 "철원 삼신사지는 고려시대에 창건됐다고 전할 뿐 다른 자료가 없다"며 "불상의 조각형식 및 표현기술로 보아 불상제작의 쇠퇴기인 고려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얼굴과 몸전체의 층탄맞은 자국을 시멘트로 메워놓았는데 6·25당시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철원 삼신산 기슭에 있는 삼신사지 석불입상.

돌부처 제보: (02) 722-4162~3

삼신사지 석불입상은 한때 군부대에서 부대내 연병장으로 옮겨 놓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후 군부대에 안전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보초근무를 서던 초병이 연병장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듣고 가보니 불상이 눈물을 흘리는 이변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부랴부랴 원래의 위치로 다시 모셨다.

이과정에서 석불입상은 원래 생창리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군부대에서 옮기면서 와수리쪽을 바라보게 됐다. 최근에는 생창리 마을주민들과 청년회원들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원래방향으로 옮기기 위해 대규모 재의식을 준비하고 있다.

정리=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돌부처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 자신"

석불硏 사랑방모임 발표내용

이근후 박사 〈이화의대 교수〉

부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부처님 생시에 사진이나 비디오가 있었다면 그런 궁금증은 금방 풀어질 일이다. 그러나 실제 사진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상적 존귀함이 덜했을지 모른다.

부처님의 모습은 돌부처를 다듬는 석수장이의 마음의 투사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후대에 오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이런 모습일 거라는 지침이 생겨났으니 그것은 32상 80종호이다.

32상은 중아함경에도 실려있고 방광대장엄경에도 실려있다. 기술되고 번역된 연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담고 있는 내용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사실적인 모습이고 다른하나는 상징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32상 80종호를 깊이 이해하지면 힌두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겠고 상징적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

지존한 모습을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그리고 싶은 중생들의 염원을 허아리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돌부처의 모습은 부처님 자신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우리들이 염원하는 부처님의 모습일 것이다.

불사의 전당



▲삼세불의 18m한상

부처님조성 원불 만불
불교조각원
서울사무소: (02)738-8447~8
대전사무소: (042)483-8466



비구 노사나 상묵 展

귀의삼보하옵고
상묵스님은 입산전 전공 수학한 서양화를 선의 뿌리에 접목해서 스님만의 독특한 창작세계를 구현하여 화폭에 담은 작품을 "비구 노사나 상묵전"으로 전시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회장 조용국·신도회일동 합장

■ 서울 전시
일 시 : 1999년 5월 5일~5월 11일
장 소 : 백상기념관

■ 부산 전시
일시 : 1999년 5월 14일~5월 20일
장소 : 롯데백화점 7층 화랑

■ 문 의 : ☎(0595)883-3751, 011-573-3751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연꽃잎 제조 특허 연등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조립 팔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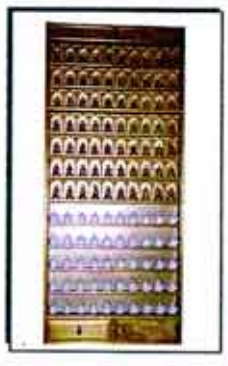


(원 통 등)


(차걸이등)


(연 등)

◐ T자형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인 등

※각종 인등도 주문제작합니다.

※천불전 조성합니다.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천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 울) 용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본사(팔공산) 동화사(팔공산) 갓바위(팔공산) 약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운주사(화순군) 그외다수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60-1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게 자갈 물려서라도 안으로 굴려라

오늘 여러분들과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같이 있고 같이 안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둥글게, 모가 나지 않게 사시라고, 참선은 좌선이나 행선이나 와선이나 입선이나 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살이 하는 데 걸림 없으라고 말입니다. 우리들 사는 삶이 바로 부처님 법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흔히들 소나 코끼리를 비유해서 방편을 썼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한테 직결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자갈을 물어라 둘째, 많은 식량을 욕심내지 마라.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마라 셋째, 길을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해라 이런거죠. 왜냐? 예전의 방편도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니까 너무나 더디고 자꾸 말이 빗나가게 되기 때문에 나는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갈을 물어라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고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안으로 모든 걸 굴려놔라', 이게 자갈입니다. 왜냐하면은 바깥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저 버릴 말을 마구하고 이러는 거를 금지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으로 굴려놓지 않는다면 자기를 맛볼 수 없으니까요.

둘째는 모든 것에 밥을 주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공식을 구하라,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안으로 공식을 구하지 바깥으로 탐욕을 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 하지만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겁니다. 아마, 공식을 구하라! 이 공식을 구하는데는 여러 가지로 탐욕이나 취하는 욕망이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그런 게 생기면 나온 자리에 몰록 놔라 그런 뜻입니다.

셋째, 예전엔 소로, 코끼리로 비유를 했지만 지금 현상세계에 가만히 보십시오. 길을 올바로 들지 못해서 남의 밭에 농사 지어놓은 거를 짓밟는다면 그 얼마나 타인이 손해가 나겠습니까? 그런고로 자기도 손해가 나는 일이죠, 모두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방편을 쓰되 야생마처럼, 야생 소처럼 그렇게 날뛰는 거를 두들겨 패라 이랬습니다. 올바로 길을 가라 이런 뜻이죠. 나는 채찍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길들이고 자신을 리드해나가고 자신을 이끌어 가는 데는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이 최고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본다면 날아다니는 거나 모든 짐승들 하다못해 기어다니는 개미든 초목이든…,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인간은 앞을 내다보지도 못해요. 하루의 일도 내다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억겁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진화시켜서 이끌어 온 그걸로 인해 보배와 같이 된 자기가 있다.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을 믿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오시면 항상 자갈을 물려서 거기 불성 기둥에다가 묶어줬단 말입니다. 살아나가다가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생각이 얼른 나게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자나깨나 그것을 염려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기에서 알지 못한다면은 감각적으로나 또 지각이나 시각 미각 촉각 이런 것이 발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일 일도 모르지마는 이따가 하루 몇 시간 후의 일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나 하다못해 개미들도 1년을 알고 있어요. 비바람이 불면 자기 집이 무너질까봐 미리미리 대치해서 그 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걸 알고 말입니다. 개미뿐만 아니죠. 하다못해 개구리도 자기 알을 낳아놓고 장마가 들면 알 떠내려갈까봐 높은 위에다가 끌어다 놓고 말이예요. 이건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항상 지켜봤습니다만 옥수수나 수수 나무나 이런 것이 '그거, 뭐를 알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비바람이 심할걸 알고 있어요. 비바람이 몹시 불던 해에 그 뿌리를 파보면 말입니다. 뿌리가 돌레를 크게 치고 있어요. 완고하게 차기 몸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뭡니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일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또는 이따가 일도 생각지 못하고…, 옛날에 눈먼 거북이, 귀먹은 거북이가 세상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항상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데 거북이가 생각하기를 세상에 나와서 하늘 구경도 못하고 이거는 항상 쏜살같이 흐르는 물에 허우적거리며 산대서야 이거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한탄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거북이도 몇 번을 진화돼서 거북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고생 안 해본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이런 뜻도 돼죠. 그렇게 고생을 하다보니까 아,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죽어도 고만 살아도 고만, 이런 생명 살아 뭘 하나, 하늘도 구경 못하고 항상 이렇게 헤매고, 그러다가 남한테 잡혀먹히기나 하는 생명이 살면 뭘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그냥 튀어올라왔는데 튀어올라오는 그 시각에 바로 뗏목이 떠내려가다가 탁 마주쳤단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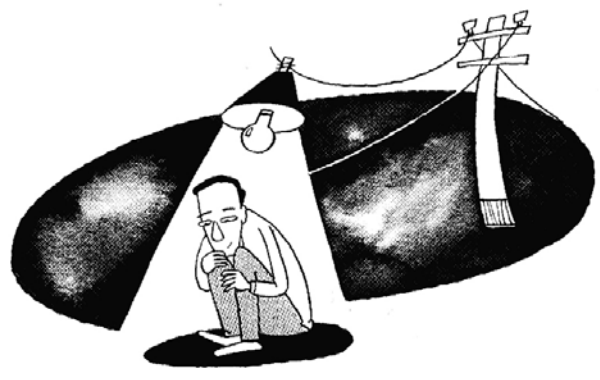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가 자기 길들여야지 누가 길들이나 보배같은 불성기둥에 나를 비끌어 매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도 그런 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허우적거리더라도 주인공 자리에다 굴려놓고 그냥 또 거기다가 '너만이 할 수 있어' '감사해' 하고 두 가지로 항상 굴리다보면 어느 때에는 불현듯이 뗏목을 만난다' 그러니까 자기 그 불성 기둥이 불쑥 솟는다 이런 뜻과 같아요.

지금 쏜살같이 흐르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라고도 본다면 마음에 여유가 없이 하늘을 어떻게 구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하고 펄떡 튀어 나왔는데 그 순간 뗏목을 딱 만나서 거기 올라앉아 여유있게 구경을 했더랍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에 눈 뜨고 귀 뜬 사람은 살기가 좀 여유가 있겠지마는 눈 멀고 귀 먼 사람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눈 먼 거북이나 똑같죠. 허우적거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살 거를 생각하고 욕심을 내고, 건너지도 못할 걸 건느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소에 비유를 하면서 두 번째로는 먹이지마라, 굶겨라, 안으로 공식을 해서 자기 스스로 배가 부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이 한치 앞도 못 본다 하는 것은 우리 정신계의 자기를 자기가 발전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선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우리가 다른 걸 못 본다면은 전선이라도 좀 보세요. 겉에 감아놓은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줄이 있는데 그 속의 줄에서 불이 들어오게 하지 겉에서 불 들어오게 하는 일은 없죠. 그런데 겉에 감아놓은 게 없어도 아니 되고 속 알맹이가 없어도 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이 둘이 아니죠.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 되고,

사람도 자기 주인공이 없어도 아니 되고 자기 육신이 없어도 아니된다. 그래서 항상 그 육신은 전선 줄의 껍데기와 같은 거니까 안에 보존하고 있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라, 그 보존하고 있는 전선 줄만이 불을 들어오게 할 수 있다. 불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모두 밝게 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다.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영향력을 주고 모두, 일체 모든 거를 다 거기서 나오게 하는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고도 그냥 무심하고 '주인공을 찾으래.'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이지 그 알맹이는 아닙니다만 주인공이라고하는 이름을 알맹이에다 붙여 놨으니까 그건 알맹이입니다.

누가 대신 밝혀 주는 일도 없습니다. 누가 대신 뺏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단 자기만이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여유있게 할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와 남을 둘로 보지 않고 다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 장본인, 근본이 바로 자기 전선 줄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딴 이름을 좇아서 잘 된다면 가고 못 된다면 안 가고 이렇게 온통 난리를 치지만 그 전선 줄부터 알아보고서 걸어가야 이게 이탈이 되질 않는데 거길 이차적으로 생각해요, 생각조차 안 날 때도 있죠, 또.

그래서 옛날에 코끼리를 길들이고 다스리고 하는 데는 뭔 일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대왕을 올바로 모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모든 중생들, 일체 만물에게 다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들인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 거와 같이 자신이 자기를 길을 안 들이면 누가 길을 들이며 자기 자신을 리드 안 하면 누가 리드하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익하게 하고 계발시키고 정신계의 후원이 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해주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길 했죠? 비가 안 온다 온다 이거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그거를 알게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 사는 것을 떠나서 내가 자작으로, 자유스럽게, 자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죠, 병이 낫는다 말하고 안 낫는다 말하고를 떠나서, 병뿐이 아니라 일체 삶에 대한 요소들을 떠나서 내가 자유자재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목마르면 물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런데 날아가는 새들도 자기 둥지가 떠내려갈 거를 알고서 미리 아주 철통같이 하는데 왜 사람은 자기가 떠내려갈 걸 모르고 사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요거는 요거다 조거는 조거다, 이것은 옳고 이거는 그르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끝내 여러분들의 그 불기둥의 위력을 모르실 겁니다, 아마. 생명이 불이라고 그랬죠, 불로 인해서, 생명으로 인해서 신앙이 생긴 거라구요. 그래서 자기 자성을 완성하지 못하면 여유있게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뭔가 일부러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뜩 생각이 나면, 그렇게 되게끔 돼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됐든 지각이 일어나고 지혜가 생기고, 또는 감각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모면케 돼죠.

자기가 자기에게 자갈아닌 자갈을 물려라 이랬다 해서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갈을 물려놓았지만 자갈이 스스로 없어져도 그냥 자갈 낀 거와 같이 항상 하고가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 그냥 바르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선의 알맹이를 믿지 못한다면 껍데기는 항상 바깥으로 컴컴하다고 불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안의 그걸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선뜻 넘어서지도 못하죠. 나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뭐 죽고 사는 걸 그렇게 겁내랴.' 그리고 아무데라도 뛰어들어봤던 거예요. 죽고 사는 걸 개의치 않고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14)

항상 향을 피우고 항상 탑돌이 하는 삶.

마음이 주인공과 더불어 하나일 때는 부처님께 경배하는 것이 구도가 된다. 마음이 주인공을 떠나 있을 때는 부처님께 드리는 경배가 기복이 되어 참 공덕이 없다. 마음이 주인공과 더불어 하나일 때는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 된다. 마음이 주인공을 떠나 있을 때는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게 된다.

부처님 마음과 주인공 마음이 둘이 아니기에 경배를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육신, '나'라는 의식이 항복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배하는 마음은 항상 숙연하면서 겸손해야 하고 정성이 지극해야 한다. 또 일체에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둘 아닌 도리를 알고 내공의 이치를 안다면 경배는 경배대로 올리면서도 항상 향기와 빛으로 온 누리를 감쌀 수 있겠지만 그러하기 전에는 부처님 마음과 주인공 마음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지극한 마음으로 항복을 해야 한다.

삼배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 스승의 마음, 자기의 마음에다 모든 것을 다 같이 넣고 굴려서 합장 경배하는 것이다. 일체의 마음과 둘이 아닌 데다가 일배를 올리고, 일체 만불이 돌아가는 데다 일배 올리고, 둘 아니게 행하며 돌아가는 데다 일배를 올리는 것이다.

참된 예경은 나를 낮추고 불보살과 선지식을 높이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일체 한 마음과 더불어 둘이 아닌 꿋꿋함과 의연함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따라서 그것은 지극한 정성으로 불보살의 가피를 비는 중에도 그 중심을 깊이 내 안에 두는 것이다. 밖에서 찾는 한은 정성이 제아무리 지극해도 그것이 복덕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무한하고 참된 공덕이 되지는 못한다.

무겁고 진실하게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한 번! 절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가져 보라. 그렇지 않고서야 이 우주 법계 전체에 다 어떻게 일일이 절을 할 수 있겠는가. 칠성각에 절하고 산신각에 절하고, 또 어디에 절하고 하는 마음이 애틋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무겁고 진실한 절이 진짜 절이다.

어디를 가나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기에 주인공이 내고 들이고 하는 줄 안다면 항상 예를 올리고 항상 배를 하는 것이며, 항상 향을 피우고 항상 탑돌이를 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선지식께 드리는 경배는 바로 나 자신의 참 성품에 드리는 경배이며, 부처님과 선지식께 드리는 공양은 바로 나의 주인공에게 드리는 공양이다. 필경은 부처님 마음도, 보살 신중의 마음도, 역대 조사님네들과 선지식들의 마음도, 조상님들과 온갖 중생들의 마음도 다 나의 주인공 그 한마음 속에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마음과 함께하는 경배, 공양은 일체 제불 일체 중생과 더불어 올리는 경배요 공양인 것이니 언제나 나의 근본인 주인공 한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 앞에서 일체를 굴려 일배를 할 때 바로 현재심 과거심 미래심이 일심으로 돌아가기에 일배가 만배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 앞에서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할 때에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부처님 형상과 내 형상이 둘이 아닌 것을 뜻함이니 바로 내 육신 고깃덩어리가 내 주인공에 절을 한 것이다.

한생각이면 삼천 번 절한 것이 되고, 한 번 절한 것이 삼만 번 절한 셈이 될 수도 있다. 시공의 제한을 받는 마음이라면 일배는 일배요, 삼천배는 삼천배이겠지만 전체의 근본자리가 인간 마음에 직결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일배든 삼천배든 다 한생각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 한가운데 계신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빌었다 하면 이미 멀어진 것이다. 여기에 빌어야 하고 저기에 빌어야 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부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것이 된다.

백팔배를 하라, 삼천배를 하라 하고 절을 시키는 것은, 제 나무에서 실과가 무르익어 갖가지로 맛을 내고 그 씨를 되심어서 또 익어 영원한 제 맛을 보라고 시킨 것이다.

처음부터 안으로 경배하라 해도 쉽게 믿어지지 않기에 밖으로 세워 놓는데는 일면 수긍되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고도로 발달된 시대라 알 만하니까 안으로 불잡고 나아가야 한다. 더구나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해야 하는 바쁜 시대에 꼭 백팔배를 해야 하고 삼천배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 시공 없는 마음, 체가 없는 마음, 자유스러운 마음이니 일배가 삼천배라 하면 어떻겠는가. 한마음으로서 일배를 지극하게 했다면 그것은 삼만배가 넘을 수도 있다.

소원이 있어 불 켜고 경배 올리고 싶으면 그대로 하라. 그러나 일체가 공체로서 공식하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일체가 한 울로 계합된 자기 주처, 시공이 없이 대공의 이치와 함께하는 자기 주처에 다 경배하라.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나에게 하라. 보시하는 것도 그렇게 하라. 경배를 하면서 일체가 나의 주처와 계합되어 있음을 굳게 믿어라. 참된 경배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드는 법이다. 그리고 참된 경배는 부처님에게, 조상에게 하는 것이면서 주인공에게 하는 경배이다.

협찬 : 한 마 음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알맹이 못 믿으니 껍데기 어둡게 살아

☞ 15면에서 계속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그 컴퓨터로 하는걸 보면 뭐, 물체를 만들어서 그냥 마구 부수고 살인도 하고 터뜨려서 불이 나게 하기도 하고 순식간에 빛보다 더 빨리 그냥 공중으로 날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진하게 하는데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허, 저것을 사람이 해놓고 사람들이 인제 그 속에서 죽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한데 합친 일불이 말입니다. 일불의 생각이 모두 보살들이거든요. 보살들이 응신으로 화해서 지금 그 테레비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보살은 공심으로서 공체로서 공용하면서 공식한다. 보살은 물론 그렇게 한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을 해하지 않죠. 사람들한테는 악이 있고 선이 있지만 둘 아니게 본다면 악도 그냥 선으로 화합이 되죠. 부처님의 마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빛보다 더 빨리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살들의 응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체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마음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사람들이 왜 다른건 다 나르는데도 우리 사람은 못 나르나 하겠죠. 그런데 그 보살들의 응신은 그냥 빛보다 더 빨리 날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은 보고 눈을 감은 사람은 못 본단 얘기죠. 이 허공에도 수없이 날고 있는데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한분이라면 갑자기 큰 일이 벌어져서 도대체 옴치고 뛰지도 못할 때, 내 모습이 수없이 화해서 여러 개가 되어 그것을 다 헤치고 모면하고 나갈 수가 있고 또 휘어잡을 수도 있고 그걸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의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부처님이 지금 부처고 지금 부처가 미래의 부처일 겁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불종자가 누구나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본래! 본래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단련을 해야죠. 야생마처럼 나왔으면 더욱이나 자기를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이익되게 할 수 있으며, 강을 건너 뛰다가 강에 빠져죽는 사람을 어떻게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렇게들 유능하게들 발전해 가는 걸 볼 때에 참 기가 막힌 일이 뭐냐하면 저것이 부처님 마음인 보살이 응신으로 화해서 저렇게들 하는데 한 가지 틀린 게 있다 이겁니다. 이건 물질 위주로, 죽이고 살리는 거 위주로 그냥 날아다니고 묘기를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세세생생에 끝끝내 남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한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진실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의문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만든 기계화로 그렇게 하다가 본다면 자기는 거기에 얽매이고 맙니다. 만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응용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응용하다 보면은, 길게 가다 보면은 자기가 거기에 동여 매어져 있는 것을 모릅니다. 지배를 받게 되죠. 오히려. 그렇게 가다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불구덩이에 빠져죽을 수도 있고, 자기의 앞일을 내다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건 물질화로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물질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가만히 지켜볼 때에 참 흐뭇한 게 많이 있어요. 여기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거든요. 자기 중심을, 주인공으로 중심을 딱 세우고 그 중심만이, 그 전선 안에 있는 줄만이 앞이 캄캄하면 불을 켤 수 있고, 모든 것에서 나를 리드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걸 믿고 가니까 어떤 거라도 모가 나지 않게 다 집어넣고 둘 아니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둘 아니게 보니까 어디를 갖다 세워놔도 모가 나질 않죠. 잘 하는 걸 봐도 모가 나지 않고 못 하는 걸 봐도 모가 나지 않고, 일체 만물중에 고목을 봐도 모가 나지 않고, 싱싱한 나무를 봐도 모가 나지 않고, 하다못해 못 생긴 돌 하나를 봐도 모가 나지 않고 잘 생긴 돌을 봐도 모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쯤, 그렇게 차원이 높아졌다면 자꾸 증장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수백 수만으로 화해서 모두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온다면…, 지금 우리 요 지구에 우리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신 세계도 있고 악신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닥치는 대로 둘로 보지 않고 굴리기 때문에 이건 악이 될 수가 없죠. 선이다 할 것도 없지만 말이에요. 그대로 실천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름해서 선신이죠.

지금 시대가 시대니 만큼 모두 그런 거를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보이지 않는데 귀신들 날뛰는 것 같아요. 이익하게 하지 않는 귀신들이요. 도깨비들 말입니다. 도깨비들이 날뛰고 어처구니 없게 왈가왈부하고 야단들 하는 거, 그것이 심하면 사람들 살기가 참 막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계의 차원을 높여서 길러라. 자기 영혼을 다스리고 영혼을 길들여서 둘 아니게 선신으로서에 모든 거를 해나간다면 불성이라는 자기 기둥 그 자체가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도 몸도 공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둘 아닌 공체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스스로 풍겨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 일체 만물의 어버이가 되고 일체 만물의 바로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우리 생명체들이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온기가 생기고, 그래서 생명들이 생기고, 그 생명들이 자라다 보니까 그냥 마구, 누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이 마구 자라고 마구 잡아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은 맨 나중에 났지만 그렇게 실패를 본 거죠.

그런데 마음의 불성은 항상 리드해나가는 그런 부처이니까요. 모두 생기는 대로 불성을 심어줬단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나쁘고 본래 악한게 아니라 그 불성이 본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한생각 돌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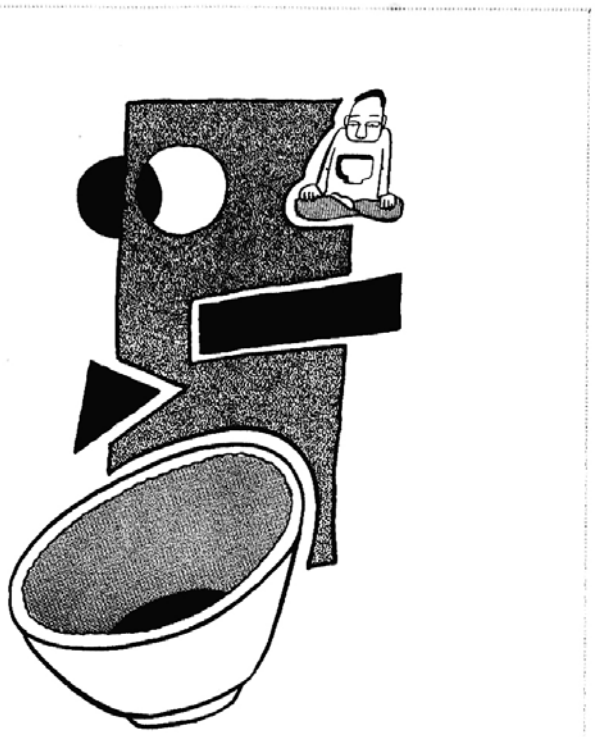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수 있어요. 그러나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닭을 죽였을 때 닭은 바로 인도 환생 하면서 그 살은 약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생이 되지 않죠.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내 생명만 생각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 먹을 생각만-하는거, 그리고 내 잣대로다가 항상 남을 재는 사람들. 나는 쑥 빼버리고 남의 생각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살생이 되죠.

어떤 나뭇군이 어느날 나무하는데 도끼로다가 탁 치니깐 피가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 그 사람 눈엔 그렇게 피가 흐른 거죠. 그건 나무가 그 사람하고 인연이 지니깐, 인연이 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벌써 차원이 높아졌으래서 자기가 왜 그렇게 부리나케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와 보니까 그 지경이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한 네 명 불러서는 차에다 태워가지고 갑디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생기는 일들이죠.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도 생기는 일들, 길을 지나가다 싸움이 붙으면 걱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약한 놈은 쓰러져서 두들겨 맞을 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다쳤으면 물어내라는 돈 있죠? 그런 게 생길까봐 그렇고, 또 그렇게 되면 갇히죠.

그런게 생길까봐 그렇고, 또 그렇게 되면 갇히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또 그렇게 싸울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말려야지 어떡합니까? 싸움하다나고 죽고 떠나고 하니까 살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으로 인도 환생을 했는데 습이 남아서 잡아먹길 좋아하고 그냥 남을 죽이길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죽어서 도로 그리고 돌아가요, 도로, 도루묵이 되죠. 그러니깐 모든 게 끼리끼리 놓여져 있죠. 이 세상에 모두 끼리끼리 놓여져 있지 않은 게 없죠. 하다못해 요만한 거, 대추 하나라도 감하고 대추하고 한데 어우러진 게 하나도 없죠. 끼리끼리 놓여져 있지. 그렇듯이 누구가 이쪽으로 넣고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차원이 일차원이라면 일차원으로 가고 이차원이라면 이차원으로 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갑니다. 금이 망가졌어도 금은 딴 데로 안 가요, 금방으로 가지, 깡통은 찌그러지고 성하고 간에 깡통 전으로 가죠, 깡통 모여놓은 데로, 넝마들은 넝마전으로 가구요, 무쇠는 무쇠대로 가구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놓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그대로 그냥 옮겨지는 거죠, 사람도 역시 그래요.

우리가 찰나찰나 한생각을 하고 회향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냥 살다가 보면은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냥 해버리고는 회향을 제대로 하질 못하거나 이탈된 회향이 돼가지구선 그게 뭉치고 쌓여서 고생들을 하게 돼죠. 고생들 하고 사시는 분 중에도 아버질 죽인다 자식을 죽인다 또는 강도를 한다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데 모두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어린애를 낳기 전에 관해라. 좋은 영가를 받기 위해서 관해라. 어린애가 뱃속에 있을 적에도 관해라. 낳고도 관해라. 백일 위까지 그렇게 관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간다 이러는 겁니다. 요새 회사를 그만 파하고 은행도 파하고 다 그만두고선 끼니가 간 데 없다 이러는데 끼니 끓일 게 없다 이러더라도 웃을 줄 알아야 돼. 웃을 줄 알아야지 눈물 흘리면 안돼. 웃을 줄 알면 웃게된다 얘기야. 그런데 웃을 줄을 모르고 그냥 제가끔들, 식구 수대로 제가끔들 속에 불안이 그냥 꽉 차가지고선 남편은 아내 보기가 그냥 귀찮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니까, 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나고 인생수도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도 버릴게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말을 해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어야 할 거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깐 아, 천차만별이 바로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있고 저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모두가 둥글려가면서 이게…, 그래서 바로 진리로서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모양이어요.

여러분, 이 공부는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죽고 사는 걸 겁내지 마세요. 나 어떤 때는 아픈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 보고 울 땐, 그 사람은 나를 못 보겠지만 '너무 늦었구나' 하고 돌아설 때는 눈물이 나요. 형체 없는 형체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만 아신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리드하고 나갈 수 있고 자기 자신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 기반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내가 접때 감기가 들었거든요. 이날까지 약을 지어먹거나 드러누워서 낮잠을 자거나 이래본 예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차를 타는데

찰나찰나 바뀌지는 세상
팔자 운명 따로 없으니
어떤게 와도 찰나찰나
바뀌가며 사세요

마음에 말입니다. 꼭 신도 하나가 남아요. 그 신도를 딴 차에 태우면 큰 일 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 차에 태우고 나는 그 신도 태울 차에 탔죠. 그랬는데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냥 들이받아서 이 두 다리가 딱 거기 끼여서 이렇게 부어오르고 가슴도 다쳤는데 그걸 치료를 안 했어요. 그럭하고부터 내가 말을 수십 년 무최이나 많이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말을 무척 많이했어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무심했죠. 그랬더니 이번에 감기가 들구선 이 목이 아프곤 그냥,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만나려고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파보니깐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몸이 아프면 마음도 괴롭구나.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아프구나. 그러니 누구를 잘못한다 잘한다, 빨리 해라, 마음공부 왜 이렇게 더디게 하느냐 이러고 야단을 칠 수 있을까? 어디, 하는 대로 같이 가보자 이러고는 있는 거예요. 아니, 무심코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아까 도깨비 장난들 모두 한다고 그랬죠? 우리 보살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뛰지만 말입니다. 그게 칭찬받고 눈요기하고 먹고 살자고 하는 거라면 나중에 가면 좋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정신력을 발전시켜서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좀 더 재재하고 언짢지 않게, 불에 모두 타 죽지 않고 돌아가게 하고, 그것도 자기의 정신을 발전시켜 겸해서 돌아가게 해야죠. '왜 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러지 마시고, 모두 돌아가면서 보다보면은 벌레로 있다가 짐승이 되고 짐승이 됐다가 또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됐다가 또 다른 게 되고 신선이 되고 또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느 때에 또 내가 그렇게 걸릴 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저 항상 나와 둘 아니게 보시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그냥 갖다가 주워 댔지만 말입니다. 그게 모두 살아나가는 진리 속에 있는 일들이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하다못해 미각 촉각 또는 지각 이런 거라도 우리가 자꾸 해버릇하면은 생기는 거니까요. 모든 거 걱정 마시고 거기 하나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에서. 그 하나에서 다 나오니까…말입니다.

주인공만이 불밝히고 '나' 리드 할수 있어
물질로만 치닫다간 불 구덩이 빠지기 십상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알맹이 못 믿으니 껍데기 어둡게 살아

☞ 15면에서 계속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그 컴퓨터로 하는걸 보면 뭐, 물체를 만들어서 그냥 마구 부수고 살인도 하고 터뜨려서 불이 나게 하기도 하고 순식간에 빛보다 더 빨리 그냥 공중으로 날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진하게 하는데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허, 저것을 사람이 해놓고 사람들이 인제 그 속에서 죽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한데 합친 일불이 말입니다. 일불의 생각이 모두 보살들이거든요. 보살들이 응신으로 화해서 지금 그 테레비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보살은 공심으로서 공체로서 공용하면서 공식한다. 보살은 물론 그렇게 한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을 해하지 않죠. 사람들한테는 악이 있고 선이 있지만 둘 아니게 본다면 악도 그냥 선으로 화합이 되죠. 부처님의 마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빛보다 더 빨리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살들의 응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체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마음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사람들이 왜 다른건 다 나르는데도 우리 사람은 못 나르나 하겠죠. 그런데 그 보살들의 응신은 그냥 빛보다 더 빨리 날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은 보고 눈을 감은 사람은 못 본단 얘기죠. 이 허공에도 수없이 날고 있는데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한분이라면 갑자기 큰 일이 벌어져서 도대체 옴치고 뛰지도 못할 때, 내 모습이 수없이 화해서 여러 개가 되어 그것을 다 헤치고 모면하고 나갈 수가 있고 또 휘어잡을 수도 있고 그걸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의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부처님이 지금 부처고 지금 부처가 미래의 부처일 겁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불종자가 누구나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본래! 본래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단련을 해야죠. 야생마처럼 나왔으면 더욱이나 자기를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이익되게 할 수 있으며, 강을 건너 뛰다가 강에 빠져죽는 사람을 어떻게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렇게들 유능하게들 발전해 가는 걸 볼 때에 참 기가 막힌 일이 뭐냐하면 저것이 부처님 마음인 보살이 응신으로 화해서 저렇게들 하는데 한 가지 틀린 게 있다 이겁니다. 이건 물질 위주로, 죽이고 살리는 거 위주로 그냥 날아다니고 묘기를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세세생생에 끝끝내 남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한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진실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의문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만든 기계화로 그렇게 하다가 본다면 자기는 거기에 얽매이고 맙니다. 만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응용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응용하다 보면은, 길게 가다 보면은 자기가 거기에 동여 매어져 있는 것을 모릅니다. 지배를 받게 되죠. 오히려. 그렇게 가다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불구덩이에 빠져죽을 수도 있고, 자기의 앞일을 내다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건 물질화로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물질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가만히 지켜볼 때에 참 흐뭇한 게 많이 있어요. 여기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거든요. 자기 중심을, 주인공으로 중심을 딱 세우고 그 중심만이, 그 전선 안에 있는 줄만이 앞이 캄캄하면 불을 켤 수 있고, 모든 것에서 나를 리드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걸 믿고 가니까 어떤 거라도 모가 나지 않게 다 집어넣고 둘 아니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둘 아니게 보니까 어디를 갖다 세워놔도 모가 나질 않죠. 잘 하는 걸 봐도 모가 나지 않고 못 하는 걸 봐도 모가 나지 않고, 일체 만물중에 고목을 봐도 모가 나지 않고, 싱싱한 나무를 봐도 모가 나지 않고, 하다못해 못 생긴 돌 하나를 봐도 모가 나지 않고 잘 생긴 돌을 봐도 모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쯤, 그렇게 차원이 높아졌다면 자꾸 증장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수백 수만으로 화해서 모두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온다면…, 지금 우리 요 지구에 우리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신 세계도 있고 악신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닥치는 대로 둘로 보지 않고 굴리기 때문에 이건 악이 될 수가 없죠. 선이다 할 것도 없지만 말이에요. 그대로 실천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름해서 선신이죠.

지금 시대가 시대니 만큼 모두 그런 거를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보이지 않는데 귀신들 날뛰는 것 같아요. 이익하게 하지 않는 귀신들이요. 도깨비들 말입니다. 도깨비들이 날뛰고 어처구니 없게 왈가왈부하고 야단들 하는 거, 그것이 심하면 사람들 살기가 참 막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계의 차원을 높여서 길러라. 자기 영혼을 다스리고 영혼을 길들여서 둘 아니게 선신으로서에 모든 거를 해나간다면 불성이라는 자기 기둥 그 자체가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도 몸도 공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둘 아닌 공체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스스로 풍겨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 일체 만물의 어버이가 되고 일체 만물의 바로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우리 생명체들이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온기가 생기고, 그래서 생명들이 생기고, 그 생명들이 자라다 보니까 그냥 마구, 누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이 마구 자라고 마구 잡아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은 맨 나중에 났지만 그렇게 실패를 본 거죠.

그런데 마음의 불성은 항상 리드해나가는 그런 부처이니까요. 모두 생기는 대로 불성을 심어줬단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나쁘고 본래 악한게 아니라 그 불성이 본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한생각 돌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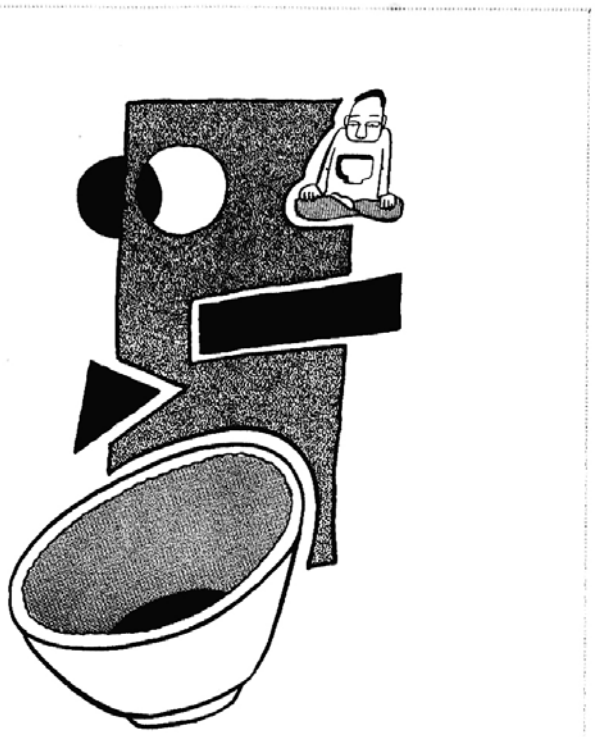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수 있어요. 그러나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닭을 죽였을 때 닭은 바로 인도 환생 하면서 그 살은 약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생이 되지 않죠.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내 생명만 생각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 먹을 생각만-하는거, 그리고 내 잣대로다가 항상 남을 재는 사람들. 나는 쑥 빼버리고 남의 생각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살생이 되죠.

어떤 나뭇군이 어느날 나무하는데 도끼로다가 탁 치니깐 피가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 그 사람 눈엔 그렇게 피가 흐른 거죠. 그건 나무가 그 사람하고 인연이 지니깐, 인연이 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벌써 차원이 높아졌으래서 자기가 왜 그렇게 부리나케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와 보니까 그 지경이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한 네 명 불러서는 차에다 태워가지고 갑디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생기는 일들이죠.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도 생기는 일들, 길을 지나가다 싸움이 붙으면 걱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약한 놈은 쓰러져서 두들겨 맞을 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다쳤으면 물어내라는 돈 있죠? 그런 게 생길까봐 그렇고, 또 그렇게 되면 갇히죠.

그런게 생길까봐 그렇고, 또 그렇게 되면 갇히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또 그렇게 싸울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말려야지 어떡합니까? 싸움하다나고 죽고 떠나고 하니까 살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으로 인도 환생을 했는데 습이 남아서 잡아먹길 좋아하고 그냥 남을 죽이길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죽어서 도로 그리고 돌아가요, 도로, 도루묵이 되죠. 그러니깐 모든 게 끼리끼리 놓여져 있죠. 이 세상에 모두 끼리끼리 놓여져 있지 않은 게 없죠. 하다못해 요만한 거, 대추 하나라도 감하고 대추하고 한데 어우러진 게 하나도 없죠. 끼리끼리 놓여져 있지. 그렇듯이 누구가 이쪽으로 넣고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차원이 일차원이라면 일차원으로 가고 이차원이라면 이차원으로 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갑니다. 금이 망가졌어도 금은 딴 데로 안 가요, 금방으로 가지, 깡통은 찌그러지고 성하고 간에 깡통 전으로 가죠, 깡통 모여놓은 데로, 넝마들은 넝마전으로 가구요, 무쇠는 무쇠대로 가구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놓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그대로 그냥 옮겨지는 거죠, 사람도 역시 그래요.

우리가 찰나찰나 한생각을 하고 회향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냥 살다가 보면은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냥 해버리고는 회향을 제대로 하질 못하거나 이탈된 회향이 돼가지구선 그게 뭉치고 쌓여서 고생들을 하게 돼죠. 고생들 하고 사시는 분 중에도 아버질 죽인다 자식을 죽인다 또는 강도를 한다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데 모두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어린애를 낳기 전에 관해라. 좋은 영가를 받기 위해서 관해라. 어린애가 뱃속에 있을 적에도 관해라. 낳고도 관해라. 백일 위까지 그렇게 관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간다 이러는 겁니다. 요새 회사를 그만 파하고 은행도 파하고 다 그만두고선 끼니가 간 데 없다 이러는데 끼니 끓일 게 없다 이러더라도 웃을 줄 알아야 돼. 웃을 줄 알아야지 눈물 흘리면 안돼. 웃을 줄 알면 웃게된다 얘기야. 그런데 웃을 줄을 모르고 그냥 제가끔들, 식구 수대로 제가끔들 속에 불안이 그냥 꽉 차가지고선 남편은 아내 보기가 그냥 귀찮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니까, 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나고 인생수도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도 버릴게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말을 해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어야 할 거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깐 아, 천차만별이 바로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있고 저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모두가 둥글려가면서 이게…, 그래서 바로 진리로서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모양이어요.

여러분, 이 공부는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죽고 사는 걸 겁내지 마세요. 나 어떤 때는 아픈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 보고 울 땐, 그 사람은 나를 못 보겠지만 '너무 늦었구나' 하고 돌아설 때는 눈물이 나요. 형체 없는 형체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만 아신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리드하고 나갈 수 있고 자기 자신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 기반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내가 접때 감기가 들었거든요. 이날까지 약을 지어먹거나 드러누워서 낮잠을 자거나 이래본 예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차를 타는데

찰나찰나 바뀌지는 세상
팔자 운명 따로 없으니
어떤게 와도 찰나찰나
바뀌가며 사세요

마음에 말입니다. 꼭 신도 하나가 남아요. 그 신도를 딴 차에 태우면 큰 일 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 차에 태우고 나는 그 신도 태울 차에 탔죠. 그랬는데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냥 들이받아서 이 두 다리가 딱 거기 끼여서 이렇게 부어오르고 가슴도 다쳤는데 그걸 치료를 안 했어요. 그럭하고부터 내가 말을 수십 년 무최이나 많이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말을 무척 많이했어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무심했죠. 그랬더니 이번에 감기가 들구선 이 목이 아프곤 그냥,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만나려고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파보니깐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몸이 아프면 마음도 괴롭구나.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아프구나. 그러니 누구를 잘못한다 잘한다, 빨리 해라, 마음공부 왜 이렇게 더디게 하느냐 이러고 야단을 칠 수 있을까? 어디, 하는 대로 같이 가보자 이러고는 있는 거예요. 아니, 무심코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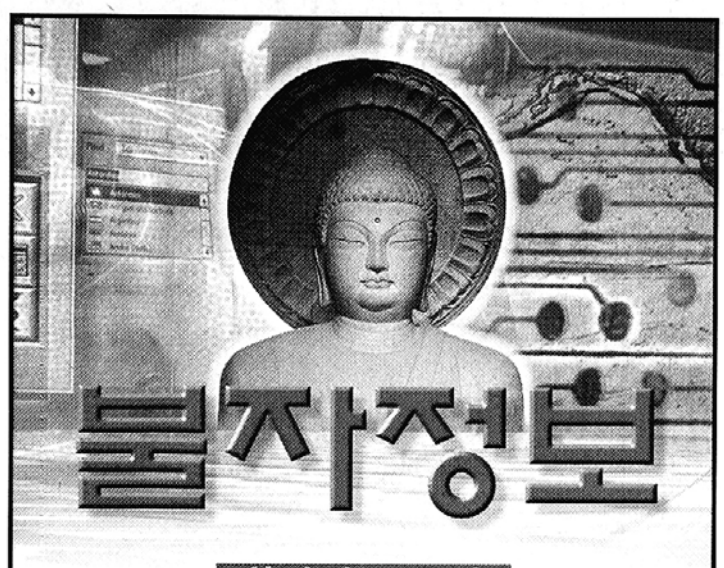
아까 도깨비 장난들 모두 한다고 그랬죠? 우리 보살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뛰지만 말입니다. 그게 칭찬받고 눈요기하고 먹고 살자고 하는 거라면 나중에 가면 좋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정신력을 발전시켜서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좀 더 재재하고 언짢지 않게, 불에 모두 타 죽지 않고 돌아가게 하고, 그것도 자기의 정신을 발전시켜 겸해서 돌아가게 해야죠. '왜 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러지 마시고, 모두 돌아가면서 보다보면은 벌레로 있다가 짐승이 되고 짐승이 됐다가 또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됐다가 또 다른 게 되고 신선이 되고 또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느 때에 또 내가 그렇게 걸릴 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저 항상 나와 둘 아니게 보시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그냥 갖다가 주워 댔지만 말입니다. 그게 모두 살아나가는 진리 속에 있는 일들이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하다못해 미각 촉각 또는 지각 이런 거라도 우리가 자꾸 해버릇하면은 생기는 거니까요. 모든 거 걱정 마시고 거기 하나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에서. 그 하나에서 다 나오니까…말입니다.

주인공만이 불밝히고 '나' 리드 할수 있어
물질로만 치닫다간 불 구덩이 빠지기 십상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간병인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02)363-7884
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당뇨완치
대한불교원융종 세운정사
0671)626-4984
011)696-4848
전북 남원시 하정동 226번지
주지 : 진 성

강좌

易학교육전문학원 교재로 만든
집에서 배우는 易학 학습지
8회 완성
· 역학교육의 1번지 易학교육전문학원 에서 만들었습니다.
· 원장 박구병(교직경력25년, 고려大59)이 역학보시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 흩어져 있는 실력을 쉽게 핵심정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기존의 학습지와는 전혀 다른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농협 037-01-298413 (예금주) 글향기■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8729(代) (042)525-5774

水脈 찾기 강좌
1.신비추 L-로드 사용법(목요일)
2.저렴하고 간단한 수맥차단제 판매
3.사찰요청시 무료수맥점검 실시
4.수맥상담 및 기타문의 환영
02)734-2118/011)239-6817
대붕 氣 살림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출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전통불교의식 학인및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특별의식
■ 어산작법반(속성반) : 상주권공, 요점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도량게, 다게나비무
※불교제반(49재, 천도재, 점안식 등)의식을 전통의식으로 봉행함
■ 원왕생 봉사회원 모집 : 불교식 장의장례의식(교육후 봉사활동)
※각 과정 통신수강 가능
■ 문화강좌 : 사경기도법회 및 기초교리강좌, 사물놀이, 생활불교의식, 서예, 아나파나사티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전통불교의식연구원 ☎02)511-0108

동양 · 역학 강좌
▶ 사주학, 성명학, 궁합, 택일, 개운법 ◀
기초이론 및 실제감정, 책임지도
◆ 金東炫 선생 직강 ◆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 학술위원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학술위원
◆ 도연 역학 연구원 ◆
문의 : 02)894-5233
· 경기 광명시 하안동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
◇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
- 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불광사,승가대학교무처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39번지)

구인

교 사 채 용
◆ 자격 :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과 졸업
◆ 채용일자 : 4월 29일
◆ 위치: 수색동 수색어린이집
02)302-9188

기도같이 하면서
한식구처럼 같이 살
공양주 보살님 구함.
▶ 나이 : 40~60세
경남 산청군 중산리 지리산 **종불암**
0596)972-1268
0596)973-1267

숙식하며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여 OO명 ◆연령 :30세 이상
◆대상 :수행과 연수하는 자세로 숙식하며 공부하는 공양주와 수행지도자로 동거동락 하는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기간 :1999년 4월 30일까지
◆구비서류 :자필이력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사진2매
T.02)395-2573 F.02)395-257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제천 수산면
아미산 **황룡사**
0443)647-5591
0443)647-7728

한식구처럼 지낼 수 있는 **보살님절이나 노스님절 찾습니다.**
정법으로(49재, 천대재 등) 운영해 드립니다.
02)702-1984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기타

정정합니다

지난 4월 21일자 불교부산방송 관련 성명서와 관련해 정정합니다.
1) 6번항목의 운영위원회 총회 참관인 중, 부산불교합창단 연합회 박성빈은 참관하지 않았음으로 정정합니다.
2) 6번 항목의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박성빈"은 사실과 다르며 박성빈씨는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불교부산방송 정상화를 위한 신행단체 연대모임

달마도 전문 표구사
30년 전통의 병풍, 표구, 달마, 사찰작품 전문
달마의 氣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수기법으로 표구합니다.
▶ 달마도의 영험함은 氣에 있습니다. 불자의 신심으로 氣가 상하지 않도록 특수비법으로 표구합니다.
▶ 달마님을 모시어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명표구사로 문의 바랍니다.
(代)02)374-9886 **유명표구사** 합장
택배 · 전국 어디나 보내드림 서울 은평구 응암4동 585-8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4불사 대웅전, 선방, 요사채, 종각, 산신각, 기둥은 육송만 사용. 그리고 4미터 이하도 육송을 사용해 드립니다.
▶시공사찰
용주사 용화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인사 비봉사 승가사 진관사 그외등등
현재 은선사 천운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大慈大悲 **달마도**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KBS 2TV 달마도의 신비출연-98.7.24)

▶ 수성사
02)540-5926
무하합장
이사, 삼재
차량운행
수맥차단
5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기(氣)와 황토쑥뜸 치료
인생상담-질병상담문제아 무료상담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신경통, 당뇨, 비만증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짐.
051)852-0067/011)453-86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82번지 **옥천사**
주지 대 원 합장(氣 달마도 무료보급)

순수한 토종 염주열매가 여는
목암주 나무를 염가분양합니다.
062)222-6003(주간)
062)224-8895(주간)
062)234-0095(야간)

벽지 ◑ 바닥재
버티칼 · 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출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201-1470
019)369-8000


귀 달마스님
◆사주 : 대운 · 행운 · 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15:00
02)999-5551 달마사

사찰안내

사찰 (급) 안내
◇위치 : 대전 ◇부지 : 800평
◇법당 : 50평 ◇요사 : 50평
◇가액 : 1억 8천(시가의 1/3가격)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서울 서대문구
◆법당 : 15평(즉시법회가능)
◆부처님 삼존불, 방2, 주방 2, 화장실 1
◆가격 : 스님과 면담후 아주 저렴한 전세가로 드립니다.
※탁발하시는 스님 원합니다.※
02)823-0788
019)218-0788

포교당 안내
◆위 치 : 대구 성당사거리 3층 56평
◆보증금 : 2,000만원
◆월 세 : 30만원
◆시설완비(옥상 사용가능)
019)270-2260

사찰(포교원)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지 : 430평
◆건평 : 100평
◆ 가격 : 1억 9천 (가격절충)
◆ 덕산온천 옆
0458)
337-6348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전남
■법당 : 33평(목조)
■요사 : 90평 ■부지:2,300평
■가액 : 2억 5천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안내
◆위치 : 통영 바닷가 옆 암자(질)
◆평수 : 120평
◆가액 : 4,900만원(인수하실 분)
◆신축건물
016)590-2656/011)557-8949
0557)641-0088/0556)674-2656

사찰 안내
◆위치 : 울산시내 대단위 아파트 앞(2,500세대)
◆평수 : 30평
◆가액 : 전세 2,500만원 (월세가능)
◆시설완비(즉시 법회가능)
011)563-4454

토굴 안내
◇ 위 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방 3)
◇ 가액 : 2천 8백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 전기 미설치
018)621-6969/0595)882-6407

사찰 안내
◆위치 : 통영시내에서 차로 10분거리
◆평수 : 법당20평 요사채50평 총 72평
◆산밑에 위치 (큰마을 有)
0557)644-1054
017)590-1900/012)581-9295

사찰 월세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신도극장 뒷편
◆ 평수 : 45평(법 당, 요 사 채), 단독주택
◆ 가격 : 500만원(보증금) 월세 16만원
◆ 시설비 : 1,300만원 (집전체수리비) 절충가능
011)705-2806/02)379-0117

사찰(급)안내
◆위치 : 진주시
◆부지 : 142평, 대지(등기필)
◆법당, 요사 : 37평
◆가액 : 1억 3천만원
◆특징 : 진주시내 10분거리 소재, 교통편리, 준공 4년, 고급 전원주택 (임법당), 시설일체 무상기증
080)048-4848
011)488-3339

사찰 안내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일반
◆사찰명 : 도통사
◆평수 : 13평 요사채2동(방5) 부엌2, 건물만
◆가액 : 1천만원
0397)474-1358

포교당 안내
◆위치 : 군포시 금정동 금정공원 앞
◆3층건물 내, 법당 30평, 옥탑 식당, 사무실
◆법당내부 삼존불 및 시설완비
◆가격 :전세 2,5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함)
※ 주지스님 강원도 토굴로 입방하므로 모든 걸 두고 갑니다.
019)352-3187

납골당 터(지장해)
◆ 서초구 청계산 납공당 터
◆ 2평 500만원
◆ 100명 모집
◆ 불자에 한함
◆ 영구보존
011)512-3730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의성
◆대지 : 1천 12평, 법당 10평, 요사채 20평
◆지하수 170m, 주차시설 완비
◆가격 : 8천만원
0576)862-0319
011)9570-353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 · 산신탱화
◆ 시설 완벽
053)942-0700
011)501-2219

토굴(별장) 안내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소재
◆부지 : 대지 200평, 건평, 32평 (방3개, 거실, 부엌, 목욕탕2개)
◆가격 : 1억(절충가능), 단층 벽돌집, 신축 3년(전원주택)
※ 부곡하와이 온천에서자가용 20분, 밀양에서 40분, 마당까지 진입가능)
051)891-7255/051)891-725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밀양에서 25분거리)
◆ 평수 : 242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2개, 차량진입 가능, 약사여래 부처님, 미륵존불, 관세음보살님 모셔져 있음.
◆ 가격 : 1억 2천(절충가능)
0527)391-5369

서울·부산지역 사찰구함(급)
⊙ 서울 · 부산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 전화 상담시 상담내용은 보안유지 합니다.
한국불사연구소 (02)561-7020

사찰 안내
◆위치 : 서울시내
◆부지 : 약 500평
◆법당 : 40평 ◆요사 : 30평
◆가액 : 2억 7천만원
◐ 전국사찰 양도 · 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다량보유)
좋은인연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전남 강진 근교
◆부지 : 2,300평
◆목조 : 대웅전 32평,산신각 4평, 주지실 5칸 28평, 대중방 5칸 20평
◆스레이트조 : 주방 20평, 가건물 15평, 토담집 12평, 사택 25평 등
◆가격 : 사정상 매가 7억상당-> 1/3가격으로 절충해 드림
※도시근교 사찰과 교환도 함, 비구니스님 환영
019)554-3484

포교당 안내
◆위치 : 길음역 3분거리
◆평수 : 50평
◆시설 A급 (시설비 없음)
◆전세 : 7,000만원
02)941-3195 수도사

포교원 안내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평수 : 25평
◆법당 주방시설 스님거처할방1
◆가격 : 전세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2)954-1289

지리산 계곡(암자터)
⊙경남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 876번지 외 2필지
◆현재 밭 210평(준농림지 1,500만원)
◆함양읍 또는 생초 I.C →남호리 소재 한남마을 서측 근거리(지리산 장터목 산장)에서 50m위치
⊙지리산(천왕봉)밑 중산리 계곡 옆 토지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428번지 550평, 위 같은 리에 산 50번지 3,060평)
▶합 3,610평 ◆가격 : 7만원(준농림지)
0596)972-4968

사찰이나 암자와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구리시 수택동 고급주택
◆전세 웅자포함
◆대지 46평, 건평 95평
◆가액 : 3억 7천만 웅자 3,500만,전세 8,800만
◆주인거주 3층, 상가지역, 위치좋음.
◆고급식당으로도 사용가능
◆현대식 건물
0346)566-7606/011)496-7706
※탱화 필요하신분 전화요

생활정보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생활) 서울시는 공개행정을 통한 부조리 예방을 위해 재개발, 토지형질변경, 건축, 위생허가와 같이 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 처리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metro.seoul.kr)의 '민원처리 공개방'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어린이위한 미술기획전

(문화) 어린이를 위한 미술기획전 '롤룩이와 돔박해'가 5월9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 시각으로 즐길 수 있는 미술행사. 레고와 코스프레, 컴퓨터게임, 스티커 사진기, 낙서방 등이 마련돼 있다. 코스프레는 만화주인공과 같은 옷을 만들어 입고 만화속 캐릭터처럼 퍼포먼스를 벌이는 놀이. 입장은 무료 (02)720-5114

한국가정체험 민박 모집

(모집) 서울시는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들에게 한국 가정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할 민박가구를 모집한다.

대상은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02)3707-9454

수원시 무료 시티투어 실시

(기행) 수원시가 17일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버스 편으로 돌아보는 무료 시티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시티 투어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원역을 출발, 팔달산 서장대~화성행궁 북원지~화서문(보물403호)~창성사 진각국사 대각원조탑비(보물14호)~수원역에 이르는 2시간 코스다. (0331)229-2785

물압력 목욕 다리피로 '싹'

(건강) 다리의 피로를 푸는데는 물의 압력을 이용하는 목욕법이 효과적이다. 특히 따뜻한 욕탕에 몸을 푹 담그고 오래 견디는 것이 좋다. 몸 표면이 받는 압력이 늘어나면 피부 표면의 혈관이 일시적으로 압박돼 심장과 다리를 오가는 혈관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깨지지 않는 액세서리 거울

(새상품)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액세서리용 거울이 개발됐다. 이 제품은 일반 스테인리스를 연마가공해 유리거울과 등일한 선명도를 유지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가로 2.5Cm, 세로 2Cm 크기의 소형으로 액세서리로 활용할 수 있다. 에이스인더스트리사 제품. (0331)252-9948

검찰 '음란물과 전쟁' 선포

전담수사반-민간자율 감시단 구성
"종교·사회단체 계몽-감시 앞장서야"

검찰이 민·관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키로 하는 등 '음란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20일 서울시, 서울시교육위,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음란물 유통사범 단속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란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지검과 각 지청 및 산하 경찰서에 '음란물 유통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한편 컴퓨터통신회사, PC통우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간자율감시단'을 구성, 음란물 유통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음란물 유포는 컴퓨터 통신과 비디오테이프, CD, 게임방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특히 컴퓨터통신을 통한 유포는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 고려대 김준호교수(사회학과)가 지난해 말 발표한 '청소년 성비행의 실태와 원인'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서울지역 고교 2년 재학생 523명중 78%가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던 아이가 음란사이트를 보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한 부모가 한 둘이 아니고, 인기있는 음란사이트는 개설 후 1개월만에 1백만 이상의 조회수를 보이며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다. 또 세운상가 등 음란물 유통시장에는 청소년들의 발길로 북적거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기탤런트의 음란비디오는 보지 않은 학생이 드물 정도로 확산속도는 급격히 빠르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전체가 나서야할 문제며, 특히 종교단체들이 앞장서 계몽활동과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말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032-577-0266)가 '어른들의 비뚤어진 성문화를 바로잡아야만 청소년들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것은 좋은 예다.

〈남전장경〉에 "애욕은 격렬한 욕망으로서 삶에 대한 집착의 근본이 되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를 탐내게 되고, 때로는 죽음을 원할 정도의 극단적 욕망으로 변한다"는 말씀이 있다.

청소년들에게 조그만 즐거움을 버리고 참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선 사찰부터 계몽에 나서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게임방'은 음란물 유포의 온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불법폰팅 단속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원조교제 부작용 심각

음란물과 함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폰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국무총리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폰팅이 뿌리뽑힐 때까지 광범위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 폰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불법 폰팅 처벌규정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키로 했다.

폰팅은 음란물과는 달리 주로 성을 매개하는 신종음란과 매춘사업으로 변질되고 있고 원조교제의 매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청소년보호위는 총 1천290개 전화회선이 불법폰팅전화로 이용되고 있으며, 폰팅대화의 내용중 '원조교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전체의 87%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폰팅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가운데 60%이상이 주부와 어린 학생으로, 폰팅이 가정을 파괴하고 여학생들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달 29일 경찰서에 붙잡힌 12세의 한 폰팅 윤락소녀의 부모는 차마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음란한 사회에서 망가지는 가정, 시드는 청소년.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인간복제 금지법 제정 추진

인간복제 및 인간의 생식세포와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행위 등을 금지하는 인간복제금지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여야의원 20여명은 18일 최근 복제양(洋) '돌리' 등장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간복제를 비롯한 각종 복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법안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법안에는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상호 융합하거나 인간과 동물의 태아를 상호이식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법안을 추진키로 한 여야의원은 늦어도 내달초까지 법안마련, 공청회를 열고 입법을 가시화할 방침이다.

개인묘지 9평까지만 허용

내년 5월부터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이 현행 24평에서 9평으로 제한된다. 또 새로 설치되는 묘지의 경우 60년이 지나면 안치된 시신을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해야한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기존의 묘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공설묘지, 법인묘지, 문중·가족묘지 등 집단화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을 현행 9평에서 3평으로 제한토록 했다.

시론

희한한 도둑



박진열
〈한국일보 논설위원〉

"도둑 큰소리치고 피해자 전전긍긍 떳떳한 돈 아니면 욕심내지 말아야"

한 도둑의 입에 온 세상이 놀아나 떠들썩하다. 82년의 대도 조세형을 흉내낸 절도범 김강룡(31)이 도지사 경찰서장 등 고관들의 안방금고를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정치판은 물론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발칵 뒤집혔다. 마약중독자로 전과 12범인 도둑이 꾸민 연극에 나라 전체가 벌집쑤신듯 하니 우리 사회구조가 얼마나 취약한 지도 드러났다. 도둑은 큰 소리치고 피해자는 전전긍긍하고, 도둑은 훔친 것을 까발리고 피해자는 피해액을 축소하느라 쩔쩔 매고, 공직비리의 적발을 도둑의 고발에 의존하는 참 희한한 세상이다.

김강룡은 이상한 도둑이다. 그는 정보원까지 두고 고관들 집을 전문으로 털었다. 기업가보다도 고위공직자들 집을 털었다는 것도 이상하다. 그는 족집게 도둑이었다. 남의 집 안방을 자기 손바닥 들여다보듯 해 꽃병 김치냉장고 장롱 밑바닥에 꼭꼭 숨겨둔 돈다발과 귀금속을 뒤져갔다.

그는 또 일주일 이상 공직자들을 벌벌 떨게 했다. 도둑을 잡는 경찰서장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해야 했다.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폭로내용 중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나 신빙성은 다소 떨어졌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그가 밝힌 폭로내용을 완전히 거짓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다는 증거다.

노회(老繪)한 도둑이 보호감호를 면하기 위해 꾸민 연극으로 굳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도 희한하다. 피해자인 도지사는 서울 관사 장롱서랍안에 보관중이던 현금 3천500만원을 도난당했다고 본인이 확인했다. 당초 절도범 김강룡은 3천200만원과 귀금속 5개를 훔쳤다고 진술했으나 도지사는 오히려 300만원을 더 불여 신고했다. 공직자가 거액을 현금다발로 장롱속에 보관해 왔다는 점을 일반인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2천만원은 처남 사업자금으로 내주기 위해, 1천500만원은 관공비, 관사유지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도지사는 말을 바꿔가며 해명했다. 도지사의 말대로 공직자재산등록때 이미 신고한 돈 중 일부라면 그야말로 떳떳한 돈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안전한 은행에 맡기지 않고 굳이 위험부담이 따르는 관사에 보관했는지 석연치 않다. 함께 도난당한 패물 5점(500만원 상당)도 외국에서 선물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는 엄연히 미화 100달러, 한화 10만원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넘기도록 돼있다.

피해자인 경찰서장의 해명도 아리송하다. 절도범은 경찰서장집 김치냉장고 속에 숨겨져있던 5천800만원을 훔쳤다고 주장했는데 서장은 피해액이 800만원뿐이라고 말했다. 피해액이 크면 문책을 당할까봐 그랬을까. 서장은 이 돈이 관내 순시때 지급할 격려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액수도 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봉투까지 발견된 마당에 누가 납득하겠는가. 공금이라면 당연히 은행에 맡겨놓고 필요한 때 찾아 쓰는 것이 관례다. 김치냉장고 꽃병 장롱밑바닥 등에서 현금다발이 쏟아져 나온 고관집 도난사건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워줄 게 틀림없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직사정 작업이 되풀이 됐지만 공직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출처야 어떻든 안방에서 든다발이 쏟아진 공직자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떠올려 본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무릇 모양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마는 헛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은 이치를 알면 부처의 세계를 보게 된다. 영원히 살 것처럼 뻤고 모으며 탐착하는 것은 덧없는 것이라는 점을 특히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여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현대불교 · 생명나눔회 공동캠페인

장기기증 118 화장서약 567명

증심사·수덕사 법회 … 헌혈봉사단 발족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본사가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 대법회가 지난 18일과 22일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부 증심사(주지 영조)와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에서 각각 거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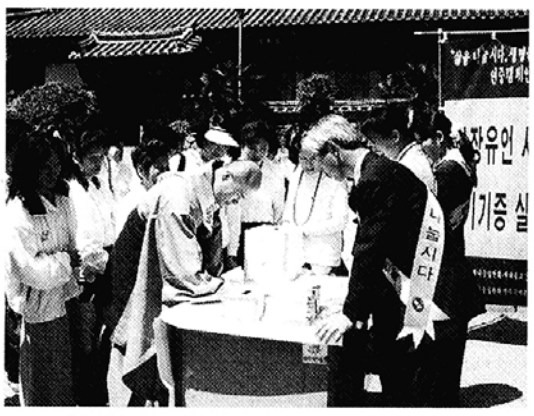
증심사와 무등산 등산로 입구에서 열린 광주행사에서 영조스님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자비보살행의 실천"이라며 "고통받는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행사에서는 41명의 신도들이 사후 장기기증을 서약하는 등 모두 112명이 장기기증에 서약했으며,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 90명을 비롯해 무등산 등산객들도 참여하는 등 총 436명이 화장유언에 서약했다. 또 백혈병 등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자비헌혈봉사단' 광주지역 모임 발대식도 함께 거행됐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올 연말까지 대구 충남 전북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도 '자비헌혈봉사단'을 조직, 전국적인 조직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보살계 수계법회와 함께 열린 수덕사 행사에서 법장스님은 5백여 참가 사부대중에게 "육신은 버리고 가는 것이니 집착할 것이 없다"며 "장기기증과 화장운동에 동참해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수덕사 행사에서는 6명의 신도가 장기기증을, 137명이 화장유언에 서약하는 등 모두 143명이 이날 캠페인에 동참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 예산=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증심사 캠페인에는 등산객들도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수덕사법회에서는 보살계를 수지한 신도들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장기기증 등록(총 118명)

▶증심사 (112명)

김명주 김치영 박옥남 양성현 이옥희 이재홍 이진중 주종권 최호성 홍지원 이원규 이혜진 김명기 심창호 이정순 김순성 박희완 윤충구 송경옥 김영민 정현욱 양문승 임정수 마희연 김혜정 김형열 김인자 권수용 김정옥 김정숙 결항순 정명옥 민화숙 박명숙 박경순 이미순 김석근 한은주 강명호 한은영 임홍주 유미성 김향심 김연경 김승택 김태헌 안희정 이윤철 이상우 유수진 이향숙 정철 이정자 정현주 김수양 조연행 박숙자 최형남 박종찬 맹영자 김영섭 박영은 박진경 박미선 김혜정 강영선 손유경 최남옥 이경운 조희영 최명자 이경숙 안점수 이명희 이미자 조영미 이영애 왕정임 박용섭 박수남 박귀녀 문지현 이정자 최영화 신재현 서영숙 정진옥 류현숙 임정금 이영숙 김양수 최삼례 구민심 김경화 서윤엽 김복례 차인자 박남심 정순례 양완모 어지형 오두환 윤숙영 김지영 김태익 이옥희 이태범 양미숙 여복임 이지현 이재홍 김명주 이현옥 정태희 박보현 안은정 박미재 장기현 최현숙 장기천 서선자 조미란 이정숙 이덕의 최춘화 김영희 김종순 김경태 김영순 전래성 박인애 박영현 이란숙 이성애 조봉호 송양숙 이혜연 송인갑 문광석 갑민정 김호연 노순호 문연숙 정미숙 최성휴 문근 양성현 윤숙진 주용직 이남석 주미정 임양희 김용섭 김경순 문성수 이종민 문형자 최시영 김정연 박광엽 최현호 김동힌 임연경 김양민 고순규 김오님 김정남 김성자 한중애 조현순 김숙경 변재영 김형열 김인자 고이석 한현숙 신지원 정현정 최영은 이지선 김지민 오선영 윤수현 윤명수 장동금 이상미 김일새 고진주 채우병 정예신 조은영 김두리 이호성 이연제 안서리 김성민 김세은 이경화 염창희 최덕남 김병국 박영형 오경아 이남섭 김소화 이창만 백창종 김혜경 이기종 구재홍 박사순 윤선희 이정국 송재홍 박기완 강성민 윤순철 홍 조수행 문지선 유환철 조영왕 이미화 김미순 강안나 강지연 윤선용 정동법 윤성호 임영섭 김은복 김남철 안형국 김유심 구인형 김영리 신보미 임종민 유홍석 박현옥 이종현 송은하 이진용 서기정 이란 이정인 박경영 이한성 정용 정원석 최홍준 김영순 김태수 홍철권 범정택 이선혜 김만체 이운구 민홍식 박동자 최정진 김은영 김범철 체기중 최성철 나용운 최순자 열영희 김태우 김상샘 최봉석 임현규 정 훈 김춘흥 박상우 김노경 김현세 양호진 이혜진 김순옥 최해숙 주종란 범택 이여송 이예지 박현지 신군호 이용규 이재문 박세승 김재봉 서주호 김옥순 신암철 김용주 김현호 최준 나준수 전상민 주종권 신미애 이창제 정미순 전주현 최서규 김인희 정명자 정상호 박종수 최미정 강지현 김경주 김미화 최우흥 이금옥 문이수 김판오 유인주 박선희 이영희 임청웅 김수미 전순옥 김도삼 김혜영 김지선 임은주 노현미 임이랑 이정혜 김정란 고영례 김창우 김수홍 김세준 오진이 장운익 김성남 김진한 김철 박종수 안새얀 한지이 이 소희 최기은 강효진 소미진 주 혜원 김경희 윤민화 오혜경 정 연자 김영화 박수아 권철혁 김 영숙 정미경 정이슬 정슬기 최 홍석 박정선 이성란 김희정 정 형중 김종현 정찬 김영미 오경 원 형복은 이경현 이미정 두성 균 두경렬 유춘자 황용호 김현 철 전효진 김신정 곽은희 나선 광 문보련 강광철 신경호 이상 신 윤소영 김선화 마복실 배영 나숙자 홍승희 박지영 문경숙 윤규모 이향임 이정숙 김영숙 김재주 윤명임 정순례 구옥회 곽경순 서순자 김애순 조금영 유임경 김상희 유경민 김상귀 보경자 임란희 길상화 정규복 한은영 범정택 천승현 김인수 우성호 박병석 이종팔 김방글 이금순 신공례 조영희 청정심 이사남 송용옥 이정순 기예섭 김난옥 김선영 이철호 박성수 박용규 허미숙 박종현 계범스님 대행스님

▶수덕사 (137명)

강재철 강환복 고태호 곽수근 곽형근 구자희 권영숙 권옥자 금영자 김경자 김경자 김남수 김동연 김동엽 김명숙 김문수 김행 김미선 김미진 김범진 김법선화 김병화 김 석 김송자 김순 석문 윤한순 이강희 이동명 이 명수 이복순 이봉구 이순효 이 영순 이영애 이옥담 이주영 이 평례 이한숙 이해영 임수옥 임 자 박상필 박선미 박순옥 박순 옥 박순화 박지영 박철현 방성 호 방영호 백군자 백옥희 백용 자 백정자 보성스님 석일륜 석 종만 성성렬 소명희 송희숙 신 용희 심재영 안명옥 안병화 양 현모 오인석 오인자 오참순 오 태순 원정희 원진관 유기숙 유 민경 유명옥 유병엽 유시창 윤 승애 임재규 장영임 장정례 전 묘인 전순자 정삼오 정세진 정 영희 정오묵 정정자 정판수 정 효정 조남석 조명주 조무야심 조문호 조문호 조병희 조한무 조황희 종경스님 주복희 주효정 진미정 진석스님 차춘자 최 백분 최병자 최영우 최옥연 최 주한 최천성 표제열 하근수 한 복순 한연택 한재선 한진여심 한현주 함석이 홍관영 황계성 황규희 황원규 효정스님

화장유언 서약(총 567명)

▶증심사 (430명)

신장암 어린이 수술비 모금 '흐뭇'



광주 증심사 행사에 동참한 불자들이 신장암을 앓고 있는 이영우(9세, 광주 대자초등학교 2년) 어린이 돕기에 나섰다.

지난 3월초 전남대병원에 입원했지만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에서 본격적인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영조스님도 수술비를 보태는 등 이날 행사에서 150여만원이 모아졌다. 그러나 수술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도움주실 분은 이영우 어린이의 집 (062)-527-7096번이나 생명나눔실천회 (02)734-8050으로 연락하면 된다.

"생명나눔은 불성 드러내는 일"

수덕사 법장스님 법문



보살은 병든 이에게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린 이에게는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구법하는 이에게는 정법을 들려주어 중생을 구제합니다.

생명은 나 혼자만의 생명일 수가 없고, 너와 나 그리고 모두가 다 연관되어져 있어서 이 세계가 하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육신을 버림으로써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불살생계(不殺生戒)의 가장 적극적인 실천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눔은 바로 우리 내면의 불성(佛性)을 들추어내는 일입니다. 모든 이의 불성 앞에 절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버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립시다. 자비를 몸소 실천하는 생명나눔운동이야말로 모든 불교도들이 나서서 실천해야 할 일이며, 모든 것을 베풀 때 돌아오는 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육신보시는 나·이웃 살리는 길"

증심사 영조스님 법문



대승보살의 수행덕목중 제일은 보시입니다. 육바라밀의 첫째도 보시로, 보시에는 재시, 법시, 무외시가 있습니다. 재시나 법시는 재물이 있거나 깨달음을 얻어야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건강한 육신과 자비로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육보시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이처럼 다함께 나누는 생명이야말로 무상한 육신에 대한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육신을 보시하는 보살행이며, 나와 이웃, 불교와 사회 모두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매장풍습으로 인해 우리 후손이 대대로 살아가야 할 국토가 묘지로 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사부대중 모두가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지혜와 원력을 모을 때입니다.

류진수 부산불교방송 전 사장님께 드립니다.

불교계 최대 명절인 사월 초파일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각 절에서는 봉축 연등 만들기에 분주하며, 불교계 각 단체에서는 봉축전야제에 필요한 장엄물 제작에 한창입니다.
이런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서슴치 않으신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님!
회장님의 이러한 행위가 불교의 장래를 걱정하고 불교발전을 염원하는 참다운 불자라기 보다는, 개인의 명예에 탐착하는 사이비 불자로 비쳐 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회장님께서는 교계신문에 일제히 게재된 '부산불교방송을 아끼는 마음으로'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거짓되고 잘못된 내용으로 전국의 선량한 불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소위 부산불교신도회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 누가 회장님을 존경할 것이며, 누가 류회장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지도자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리더십은 중상, 모략, 탐욕이 없이 관용과 포옹과 정의로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려고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십니까? 스님과 부하를 매도하고 짓밟으면서까지 개인의 명예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류진수 회장님께서 직접 사주하지 안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성명서 작성에 회장님의 직원들이 적극 개입을 했다는 것과 서명한 단체장들이 "신도회 신하 단체라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했다.", "류회장님이 풓겨난다고 해서 그랬다"라든지, 류회장님과 본인의 전화내용이나 독대한 내용, 부산롯데호텔에서 S스님, 류회장님, 배회장 세분이 만난 내용 등을 부분 부분 적고 있는 것을 보면 류회장님께서 사주했다고 여기기에 충분합니다.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극구 부인하지 마십시오. 성명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거짓과 허구로 가득차 있는지.

1. 무적승,무단으로 태국여행 운운하는 부분과 교계 지도자로서는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한데 대하여…
▶무진스님은 분명히 승적이 있는 분이며, 본인의 여름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고 태국정부 초청으로 3박 4일간 다녀온 것을 무진스님과 동행한 것 처럼 허위로 꾸며 서울 본사에 공문과 사람을 보내 국장을 해임하라고 압력을 가하셨죠?
그리고 "부산불교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3kw의 출력을 증강하겠다.(부산기독교방송은 이미 5kw로 방송하고 있음) 협조하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 현 건물대신 독립 사옥을 갖도록 하겠다."는 원력을 갖고 임기 4년이 끝나신 회장님의 뒤를 이어 후임으로 일하고 싶다는 배종진 회장이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나 비전도 없이 일년에 한두번 회사에 나오시는 (98년도 종무식, '99년도 시무식 불참) 형편에 또다시 부산불교방송사장자리만을 탐하여 교계를 온통 시끄럽게 만드시는 회장님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겁니까?

2. 배회장이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한 부분이나 류회장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진례공장은 회장님께서 불러서 한 번 다녀왔지 찾아간 사실이 없습니다. (부산불교방송 직원대동) 그리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표현 (청와대, 벤츠 차 이야기)은 혹시 류회장님 차 이야기나, 펑소 꿈꾸었던 소망이 아닐까요? 돈, 돈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평소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분명히 회장님이 부산불교방송에 내신 보시금은 3억원입니다. 그 이상 더 내셨다면 그 내역을 만천하에 공개하십시오. 그러나 당시 회장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독대한자리에서 맹세했던 언약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저버릴 수 있습니까? 또한 불교방송 사정을 잘아는 Y씨가 "회장님의 공로를 생각해서 그냥 그만두시게 하는 것 보다 서울 불교방송 이사로 모시도록 하자"는 안을 받아들여 이사 출연금 3억도 생각하게 되었으며, Y씨가 중재를 서는 과정에서 류진수 회장님이 5억원을 요구하자 중재가 중단되었다지요? 그 중재안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은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1월26일 아침이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배종진 회장은 "돈 이야기라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Y씨에게 이야기를 했고, Y씨는 "어차피 발심을 했으면 투표로 가서 경선을 하면 감정의 골이 남아있을 것이므로 대화로 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배회장을 설득하여, 그 날 오후 롯데호텔에서 3자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3. 3억원 수수 소문…
▶Y씨에 의하면 배회장은 유회장님께 그냥 3억원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서울 불교방송 이사로 모시기 위해 그 돈을 드리겠다" 배회장이 적절 드릴 수도 있겠지만 회장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이것 역시 Y씨가 제의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서울불교방송 이사는 하지 않겠다. 신도회에 쓰던지 내가 알아서 쓰겠다"고 하셨다지요?
서울 불교방송 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은 결국 불교방송에 애정이 없다는 말씀으로 생각되며, 신도회에 쓰던지 본인 임의대로 쓰겠다는 것은 개인 용도로 사용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부산불교방송 사장으로서의 할 도리입니까?

4. 배종진 회장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5년전 부산불교실업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던 부산불교방송 개국 당시 고 김정태 회장이 해임되고 류회장님께서 갑자기 사장으로 떠오르면서 부산 불교계는 엄청난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그때 패인 감정의 골이 조금도 매워지지 않은 작금 또다시 회장님께서 부산불교방송 사장자리에 연연하시면서 교계가 재차 시끄러운데 대하여 당사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리라 여깁니다.
지금 류진수 회장님을 따르는 소수 신생단체장들을 포함해서 부산, 경남지역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배종진 회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불사를 하겠다는 분이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실무 책임자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회장님께서 실업인회에 사과하고 결자해지 정신으로 그쪽이나 또는 다른 분에게 부산불교방송의 운영을 부탁하는 것이 순리라고 여기며, 21세기를 대비하여 부산불교방송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가 바로서는 부산불교계가 아닐까요? 아울러 사람의 과거사를 몰래 캐서 소문을 내는 행위는 참다운 불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5. 부산불교방송 사장직의 매관매직 부분에 대하여…
▶사장 자리를 매관매직하지 않겠다고 한 분이 배종진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불교방송 이사출연금 3억원에 대한 증재안에 대하여 오히려 5억원을 요구하셨다는 류회장님, 류회장님의 말씀을 배회장께 전하자 배회장은 "그런 식으로 매관매직하겠다면 처음부터 없던 얘기로 하자. 류회장님 회사가 어렵고 서울 불교방송도 어렵다고 해서 서로의 재정과 류회장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사출연금 3억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돈을 더 요구하면 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증인 있음) 결국 부산불교방송사장 자리를 매관매직으로 생각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 아닙니까?

6. 지난 1월 26일의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회가 공개리에 개최되고 만장일치로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공개되었다는 주장을 강변하기 위해서 참관인까지 적고 있는데 대하여…
▶그 날 회의는 처음부터 줘재 기자들까지도 모두 밖으로 내보낸 상태에서 개최된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심지어 사회를 보고 있던 실무국장까지 밖으로 나가라고 했으며, 삼귀의례, 반야심경을 봉독하려하자 성원보고부터 하라는 등 회의 초반부터 폭압적인 언행이 오갔으며,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까지 새어나가 소위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는 불자들의 회의라고 보기에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만장일치라는 주장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류진수 회장님이 동원한 무자격 운영위원인 모단체 모임 동료 2명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회의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 날치기 만장일치가 아닐까요?
반론의 기회는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의안 채택에 있어
1. 신임이사 신임, 2 임원선출 순서를 임원 선출 후에 신임이사 신임으로 바꾼 것은 애초부터 경쟁자를 못 들어오게 한 처사가 아닐까요?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관 한 것은 통과 후의 일이었습니다.

7. 회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조작 했다는 운운 부분에 대하여…
▶ 당시 회의의 전 부분이 녹음되어 있습니다(당시 회장님과 회장님을 따르는 몇몇 분들은 녹음하지 말라고 하셨죠?) 녹음 테이프 공개 주장은 매우 적절한 생각 이라고 여기며, 이번 기회에 부산불교연합회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 할 것을 공식 제의 합니다.

8. 서울 본사에는 녹음 테이프가 올라가 있습니다.
성오 큰스님 자필 소명서 부분에 대해서…
▶범어사 주지 성오 큰스님은 지금까지의 삶을 세상의 일보다는 불법을 참구하시면서 참선수행으로 일생을 살아오신 선승이십니다. 그런 스님께 회장님의 사리사욕을 위해 힘들고 난처한 일을 부탁하지 않는 것이 그 동안 스님께서 회장님께 베풀어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요?

9. 무진 스님께 매수 당한 이영구 국장 운운 부분에 대하여…
▶무진스님이 여유있고 신심있는 자기 절 신도를 불교방송을 위해 보시·봉사하라고 권선하는 것이 분탕질입니까? 아니면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산하단체 이름을 이용하여 성명서를 내고, 서울 본사로 뛰어다니고, 정치권에 줄을 대고, 5적이니, 6적이니 하며 언론사의 장들에게 애걸복걸하는 것이 분탕질입니까? 진정한 부산 불교의 자존심과 위상은 어떤 것입니까? 사사로움을 떠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무진 스님에게 회유나 매수 당한 사실이 추호도 없으며, 혹시 회장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지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10. '신행단체 대표들이 객관적 시각을 갖고 검증한 결과'라고 적고 있는데 대하여…
▶부산, 경남에는 2천여 개의 크고 작은 사찰과 고승 대덕스님, 수많은 불자들이 부산불교방송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차라리 '부산불교신도회 직원들이 중심이 되고 신도회 산하 몇몇 신행 단체 대표들이 류진수 신도회장님을 부산불교방송 사장으로 반드시 재 추대해야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나름데로 (주관적 시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적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류진수 회장님! 저는 지난 임기 동안 회장님을 충실히 모셨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신문 전면광고를 통해서 부하 직원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명예가 있고, 지난 30년 가까이 언론에 몸담아 오면서 가꾸어 온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회장님께서 씨앗을 뿌렸으니 본인이 거두어 들여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이번 임기를 마치면 사장직을 내어놓겠다고 하셨고, 운영위원회가 열리던 날 3시간 전에 무슨 대가이던 간에 3억원을 받고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스님 앞에서 약속을 해 놓고서 회의장에서 번복하셨으며, 회장님의 사장직 유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격도 없는 회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신 점등은 해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 1월 26일자 정기총회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의 4년 임기 종료와 함께 연임 문제도 의결해야 되는데 오직 사장님 유임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바람에 그 문제도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총회는 다시 소집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회장님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언행이 부산, 경남지역의 많은 스님과 재가 불자들을 실망시키고 있으며, 그래서 부산지역 사찰 신도회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신도단체가 새롭게 출범해야 한다는 여론이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진수 회장님! 참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면 위에 다 쓸 수가 없군요. 회장님은 불교계에서 활동하신지 5~6년이 되지만 저는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도반도, 교유도 회장님보다 더 많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1964년 불교 종립고등학교를 나와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전공했으며, ROTC를 제대하고 입산출가를 할까 하다가 언론 포교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20여년간 정들었던 MBC를 떠나 제 인생의 회향으로 생각하고 부산불교방송 개국추진팀에 합류하여 개국 준비를 하자마자 싸움판이 벌어져 1년간 방황하기도 한 사실을 회장님도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부산불교방송의 세세한 사정을 잘 모르시는 몇몇 친분 있는 신도회 산하 단체장들로 하여금 칼을 대신 잡혀 저를 무자비하게 처사니 그냥 당할 수만 없어 항목마다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몸부림이라도 쳐봅니다.

그러니 반드시 모든 것을 밝힐 그날이 있겠죠?

불기 2543년 4월
꽃이 흩날리는 봄날 새벽
불교초 이 영 구 합장 배

몰. 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주문전화 .....

02-732-1522

대표전화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몰,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다기함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크기 : 50×39×15cm

찻 상1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찻 상2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기도 청자 세트
₩ 25,000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비람막이2개

건강 옥 염주
증 류 청옥 ·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색상 :금색, 검정

단주 열쇠고리
증류 검정 빨색 루명 /가격 : 낱개 ₩ 3,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경전카드
가격 : ₩ 15,000
순금 99.9%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사군자
가격 ₩ 120,000
쇠고급 양장
타블로이드 판 / 253쪽

차 시
재질 : 참나무,고목,등 / 가격 : ₩ 15,000(1개)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가 격
₩ 20,000
순금 99.9%

기도포
가격 ₩ 1,600 / 기장 84㎝ 폭 39㎝

다포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수암옥 단주
가 격
₩ 45,000

수암옥 장미, 옥팔찌, 반지 세트
가 격 : ₩ 49,000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가 격 : ₩ 98,000

고산다기
가 격 : ₩ 120,000

대나무 잔
크기 9(세로15~7(지름1㎝ 가격 : 낱개 ₩ 8,000

리틀 향초
가격(10개입) : ₩ 5,000

연꽃 향초
가격 : ₩ 2,500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 단주
가격 ₩ 10,000

석풍 건강옥 카페트
가격 ₩ 138,000
크기 170㎝×240㎝ 바닥재 미끄럼방지
윗면 국내산 연옥 분말 1kg (우렌탄+바이오
콧션 펠트지 세리믹 처리)

석풍 건강옥 방석
가격 ₩ 9000
크기 44㎝×44㎝
윗면 국내산 연옥 분말
콧션 펠트지
바닥재 미끄럼방지(우렌탄+바이오 세라믹 처리)

반야심경 향로
가격 : ₩ 25,000
크기 : 4(높이)×7(지름)cm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색상 진녹 검정
크기 55㎝(가로)
140㎝(세로)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현상공덕 향
관세음보살 함 석가모니 향 지장보살 향
가격 ₩ 9,500 (1개당)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츰부다라니 불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헨드폰 걸이
종류
거북이 ₩ 2,000
만 지 ₩ 4,000
우 상 ₩ 4,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청화대선사 법회 비디오
가격 : ₩ 15,000

부처님 일대기
가격 : ₩ 10,000
어린이용
만화 비디오 테잎

우리 기슬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거산 죽염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사자발쑥환
· 1달분 1통(1,500정) ₩ 55,000
· 2달분 2통(3,000정) ₩ 80,000

작설차 (우전 · 세작)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작설차 (중작 · 대작)
중작 ₩ 60,000 / 대작 ₩ 40,000
(2통 한세트)

한국불교 총람
기장 4×6배판 / 112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참선 명상 방석
· 실용신안 1998-025009
· 의장등록 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 보호
· 휴대가 간편함
가격 : ₩ 27,000
규격 39㎝×43㎝

경 상
가격 : ₩ 85,000 / 재질 ASH(느릅원목)
규격 72㎝(가로)×34㎝(세로)×32㎝(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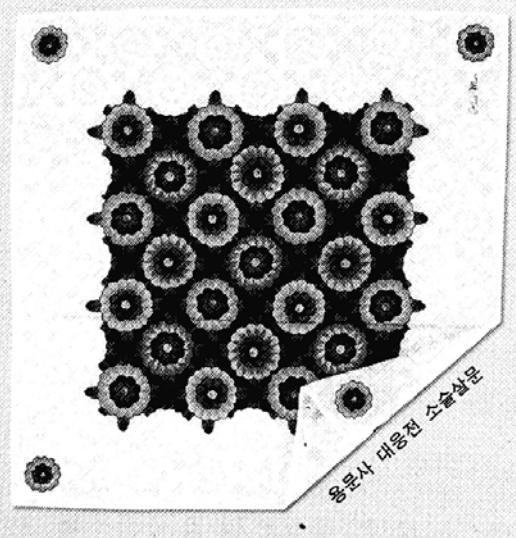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 600,000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한국불교 총람 CD롬
가격 ₩ 60,000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불교 전통창살문양 손수건


신흥사 극락보전
은해사 대웅전
신흥사 극락보전
봉은사 대웅전
금산사 대장전
쌍계사 대웅전
불국사 대웅전
대승사 대웅전
중심사 대웅전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문구 넣어 드립니다.
가격 : 1장 5,000원 (원색 칼라)

강석주 큰스님 친필 관음 분청 도자기


분청 도자기는 일반 백도자기와는 달리 화로에서 구울 때 성공률이 25%내외 밖에 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장시간 굽는 등 제조 과정에 작가의 혼을 담은 정성이 깃들어야 합니다.
특히 석주 큰스님(91세)의 친필 관음찬이 관세음 보살님 그림과 같이 새겨져 있으므로 소장 하신 분의 가내 액화를 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규 격 : 30×30×44(단위 센티미터)
· 희망소매가격 : ~~1,200,000~~원
· 특 판 가 : 495,000원

강석주 대신사님은
1909년 경북 안동출생
1923년 신학원에 출기
1928년 부산 범어사서 득도
1933년 범어사 김원 대교과 졸
1936-39년 오대산 상원사 · 금강산 미하연 덕숭산 정혜사 묘향산 보현사 신방사 안거
1953-84년 은해사 · 불국사 · 봉은사 · 은해사 · 검응사 주지
1959년 범어사서 대덕법계 품수
1961년 신학원 이사장
1965년 칠보사 조실
1971-84년 불교 조계종 제 7 · 17대 총무원장
1980년 초대 승가대학장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장

■작품보증서 첨부■
송정도예에서 만들어진
지다이분청자기는 조선시대
상형하던 분청자기의 형태와
기법을 더욱 승화 발전시킴으로서
보다 높은 도예 예술에 도전하고
있고 국내와 일본, 대만의 각종
도예전에서 입상 및 16회에
걸쳐 초청 전시회를 하였고 지다
이분청자기를 이명하게 재현시킨
이시대의 신성한
조선도공의 후예입니다.
한점씩 소장하시어 후손에게
물려주어도 작품의 값어치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법회안내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경덕전등록〉 선전강독법회. (02)765-9602



성운스님(삼천사 주지) 28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 대한불교진흥원 4월 다보법회. (02)703-0108



한탑스님(정토사 회주) 5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전북불교대학 〈정토삼부경〉 법회. (0652)226-7878

자명스님(관음정사 주지) 매월 둘째 네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불교청년회 법회. (02)730-9108



한정섭법사(한국불교금강선원 이사장)5월 2일 오전 11시 정토회 일요특별법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02)587-8993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4월29일 (목)

■ **무불선원 선어록 강좌 · 참선실수**=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은 오후2시와 7시 선어록강좌와 참선실수를 진행한다. (02)541-0002

4월30일 (금)

■ **일제시대 불교계운동사 강의**=한국불교근현사연구회 불교사 바로보기 강좌 네번째 '일제시대 불교계운동사'가 혜봉스님의 강의로 진행된다. (02)736-0386

■ **봉축사진전**=한국불교사진연합회는 5월 5일까지 부천문예전시관에서 봉축사진 전시회를 갖는다. (02)2266-0302

■ **경주불교예술대전**=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주불교예술대전이 경주엑스포 행사장에서 6월 5일까지 열린다. (02)736-7293

■ **실직여성가장 지원을 위한 바자회**=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4주년을 맞아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바자회와 주민 한마당을 연다. (02)852-0525

5월1일 (토)



◇체육대회에서 불교언론인들이 단합을 도모한다.

■ **제3회 불교언론인 체육대회**=한국불교기자협회는 오후 2시30분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제3회 불교언론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02)734-0777

■ **포교사단 서울경기지역월례강좌**=포교사단은 오후 3시 조계종 포교원 4층에서 사찰안내, 신행단체, 직장포교를 위한 서울경기지역 월례강좌를 실시한다. (02)737-7588

■ **보리암 쌍계사 참배**=용진신행회는 오전 7시 1박2일 일정으로 남해 보리암과 지리산 쌍계사를 참배법회를 떠난다. (02)2279-1191

■ **생명나눔실천회 장기기증 캠페인**=생명나눔실천회는 오후 6시 강화포교당에서 장기기증 화장캠페인을 실시한다. (02)734-8050

5월2일 (일)

■ **정토회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운동' 강좌**=오후 3시 두레마을 대표 김진홍씨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운동'을 주제로 정토회 주말특별강좌를 진행한다. (02)587-8994

■ **실상사 수계법회**=오후 5시 실상사에서 천리안불교동호회 춘계수계법회가 시작된다. 2일까지 진행된다. (0596)973-9989

■ **개심사 서산마애삼존불 참배**=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개심사와 백제의 미소로 불리우는 서산마애삼존불을 참배한다. 오전 7시 30분 출발한다. (02)725-1284

■ **연꽃노래잔치 본선**=부처님오신날 기념 제11회 연꽃노래잔치 전국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 본선이 오후 1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다. (02)730-9108

■ **경기불교회관 봉불식 및 개관기념법회**=대한불교청년회경기지구는 오후 3시 경기불교회관 봉불식 및 개관기념법회를 갖는다. (0331)225-8471

■ **운주사 · 쌍봉사 답사**=옛돌은 오전 7시 천불천탑의 성지로 알려진 화순 운주사와 쌍봉사 등을 찾아 답사기행을 떠난다. (02)2266-1233

■ **연꽃피우는 백일장대회**=제7회 연꽃피우는 백일장대회가 오전 10시 광주 무등산 원효사에서 열린다. 어린이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062)266-0326

■ **청주 관음사 천불보전 상량법회**=청주 관음사는 오전 10시 30분 천불보전 상량법회를 봉행한다. 법주사 율주 혜정스님이 법문한다. (0431)256-6254

종단소식

조계종

조계사 계훈제선생 49재

서울 조계사는 30일 오후 3시 대웅전에서 민족지도자 계훈제선생 추모식 및 49재를 봉행한다.

故 계훈제선생 추모식 및 49재봉행위원회(위원장 학담스님)주최로 열리는 이날 추모식은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법어를 비롯하여 장기표씨의 행장소개, 명진스님 백기완씨 등의 추도사, 청화 · 진관스님의 추도시 순으로 진행된다.

태고종

국민화합 시민대법회

마산 · 창원 불교연합회는 5월 6일 오후 2시 마산실내체육관에서 마산항 개항 100주년 기념 국민화합기원 시민대법회를 봉행한다. 영 · 호남 지역갈등 해소차원에서 봉행되는 이날 법회에는 팔공산 성전암 조실 철웅스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정사 괘불탱 봉안

대전 금강정사(주지 월혜)는 12일 대웅전 괘불탱화 점안법회 및 선망부모 천도 영산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모셔진 괘불은 높이와 너비가 각각 4.5m 2.7m로 2년여에 걸쳐 조성된 것이다.

천태종

종단소개책 출판회 참석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 간부 25명은 26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 중 일 3개 국어로 된 천태종 소개책자 출판법회에 참석하고 28일 귀국했다.

예천 법흥사 낙성식

예천 법흥사(주지 진강)는 5월 3일 오전 1시 대웅전 낙성식을 거행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는 부처님 봉불식도 봉행한다.

진각종

'교법수행과 실천' 강공

진기 53년도 춘기 스승강공이 20 · 21일 양일간 총인원에서 국내외 125곳의 심인당 스승들과 종립학교 정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법수행과 실천' 주제로 열렸다.

대구 · 경주 심인당 3곳 허가

종의회(의장 휴명)는 21일 회의실에서 제317회 정기종의회를 개최하고 진기 52년 세입 세출 결산을 심의 통과시키고 경주 광명심인당 대구 경전 · 의밀심인당 등의 신축을 허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덕혜 진성 일석 정사를 유지재단의 새 이사로 선임했다.

총지종

제 53회 춘기강공회

20일부터 23일까지 역삼동 통리원에서 제 53회 춘기강공회를 개최했다. 20일 열린 제 63회 중앙종의회에서는 총기 27년 통리원 및 전당건설, 유지재단의 수 · 지결산서를 심의 통과시키고 5월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대해 논의했다.

열반종

세계평화의 종 타종

총본산 용인 와우정사에서는 5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범세계 평화의 종 타종식을 거행한다. (0335)33-2472

법상종

총무원청사 장위동 이전

총무원(원장 법륜) 청사를 종로구 숭인동에서 성북구 장위1동 238-186으로 확장 이전했다. 새 전화번호는 (02)917-1601

무량종

초대 총무원장 령관스님



대한불교 무량종이 4월 1일자로 창종, 령관스님(삼각산 무량정사 주지 · 사진)이 제1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02)379-1600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 알림

▲**무료영정사진제작**=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5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노인을 상으로 무료영정사진을 제해 준다. (02)2282-1100

▲**무료미용서비스**=신도림복합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전 10시~오후 3시 65세이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를 상으로 무료 파머와 컷트 미용서비스를 실시한다. 02)631-9792

▲**무료치과진료**=구로종합사복지관은 매월 둘째, 네째 요일 오후 1시~5시 지역주을 대상으로 무료치과진료 실시한다. (02)852-0525

▲**무의탁노인 효도관광**=백종합사회복지관은 29일 지내 무의탁노인 및 빈곤노인 위한 효도관광을 실시한다. (0662)782-7600

▲**산모도우미 파견사업**=신도림복지관은 산간의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한다. (02)631-9792

▲**무료자녀교육 집단상담**=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자녀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자아성장집단 상담을 실시한다. 참가비 무료. (051)405-5224

♣ 강좌

▲**조계사 기초교리 강좌**=조계사가 제24기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했다. 매주 목, 금요일 낮2시와 저녁 7시에 실시되며 불교예절과 기초상식 근본교리, 수련법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5월 6일개강한다. (02)720-1390

▲**서불청 기초교리**=서울불교청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불청 법당에서 3개월 과정의 기초교리 강좌를 실시한다. (02)730-9108

▲**도자기 만들기체험**=터사랑은 어린이날을 맞아 도자기 만들기 체험기행을 마련했다. 참가비는 어른 3만원, 어린이 2만5천원이며 재료비는 별도다. (02)725-1284

▲**재즈댄스 에어로빅**=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재즈댄스와 에어로빅을 매일 오전 10시에 지도한다. (02)852-0525

▲**아동글쓰기교실**=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 수요일 오후 3시 어린이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교실을 연다. (02)817-8052

▲**신바람 노인교실**=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복지관 2층 강의실에서 신바람 노인교실을 연다. 생활체조 및 단전호흡을 지도한다. (02)571-2988

▲**수화교실**=신도림복지관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6시 30분 3개월 과정의 수화교실을 연다. (02)631-9792

▲**생활도예**=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2개월 과정의 생활도예교실을 연다. 소품과 접시, 편지꽂이 등을 제작한다. (02)2282-1100

▲**아동 컴퓨터기초**=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 4시 초등학생을 위한 컴퓨터기초교실을 연다. (051)405-5223

♣ 모집

▲**불자 모니터요원**=우리는 선우 전북지부는 불교비방, 역사 전통 왜곡, 생명불사 환경파괴등을 감시하고 비판할 모니터요원을 모집한다. (016)652-8892

▲**어린이집 교사**=서울 수색어린이집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전문대졸 이상 유아교육 전공자여야 하며, 29일까지 서류 접수. (02)302-9188

▲**목욕서비스 자원봉사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들의 목욕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와 금요일 오전 10시에 참가할 수 있으면 된다. (02)817-8052

▲**저소득자녀 학습지도**=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방문해 학습지도를 해줄 동참자를 기다린다. 주 1회 초 · 중 · 고등학생에게 영어나 수학을 지도할 수 있으면 된다. (02)571-2988

▲**도시락급식 후원자**=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내 결식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도시락 급식사업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02)421-6077

▲**성인물리치료실 이용자**=강북장애인복지관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지역내 성인장애인을 위한 물리치료실을 운영, 이용자를 모집한다. 주 1~3회 이용할 수 있다. (02)989-4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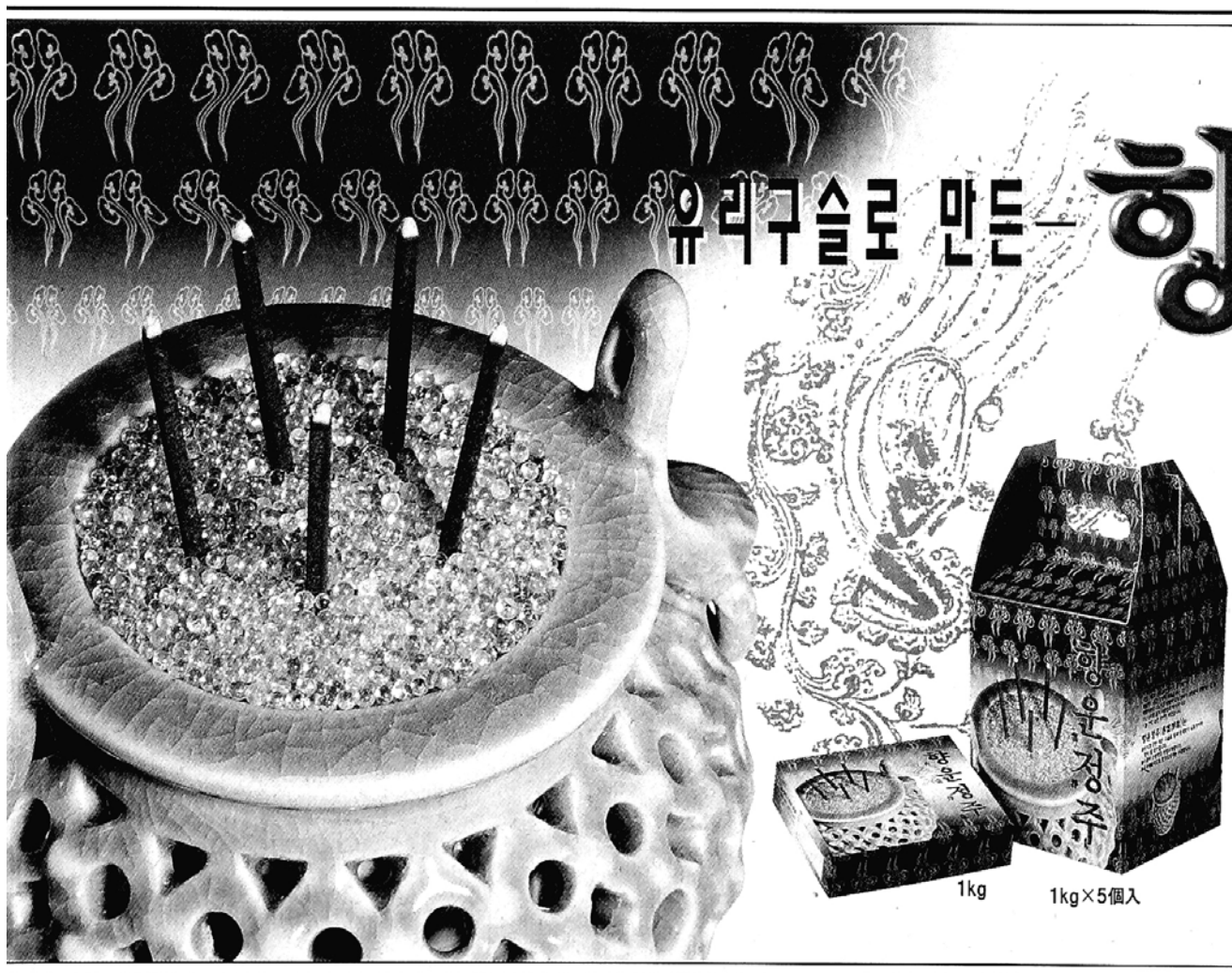
♣ 화촉

▲**본사 영업부 홍미경씨가** 5월 2일 오후 3시 포항시 송도비취호텔에서 남중우씨와 화촉을 밝힌다. (0562)241-1401

▲**주간불교신문사 남수연기자**는 5월2일 오후 2시 서울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황정일씨와 화촉을 밝힌다. (02)734-0777

실용신안등록 97-18095

유리구슬로 만든 향운정주
香雲淨珠



1kg 1kg×5個入

향운정주는
♣유리로 만든 작은 구슬로 쌀과 모래보다 실용적이며 향이 잘 꽂아집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반영구적입니다.
♣유리제품이므로 환경오염과는 무관합니다.
♣'향운'은 향운공(香雲菩), 즉 향을 피워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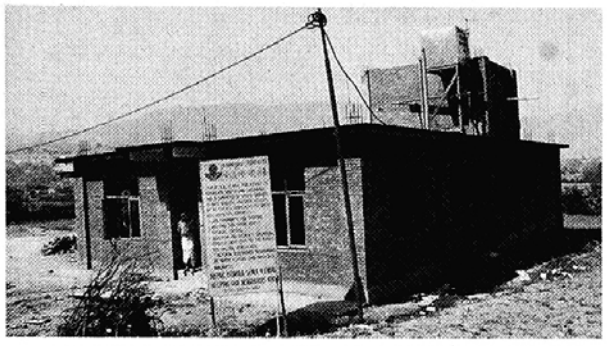
향운정주는
정교한 유리구슬로서 정북신업에서 신기술, 신소재로 만든 투명정결한 제품입니다.

달마대사는
계향 :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닦는 것
정향 : 바른 바탕을 깊이 믿어서 물러날 마음이 없는 것
혜향 : 몸과 마음을 안밖에서 잘 관찰하는 것
해탈향 : 온갖 무명의 묶음을 푸는 것
해탈지견향 : 느끼고 살핌이 항상 밝아서 걸림없이 통달하는 것 등 다섯가지를 들어 바른법의 향이라 하고 가장 높은 향이라 하였습니다.

상담문의
(02)2278-6671

正北産業(株)
(舊)株式會社 世湖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7-30
T. 02)2278-6671~4
F. 02)2275-5904

경불련 네팔에 구호센터 연다



◇경불련은 5월10일 네팔에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 개소식을 갖고 한국불교의 보시행을 실천한다.

'아침을 여는 마을' 5월 10일 개소
무료급식·의료·직업훈련 등 실시

부처님의 고향 네팔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한국불교의 보시행이 시작된다.

경불련 (사)이웃을 돕는사람들(이사장 김동흔)이 97년부터 네팔 카투만두 북쪽 골등가에 불사를 시작한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Bihani Basti)'이 5월 10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간다.

건평 3백60평 3층 건물중 1차로 1층이 완공된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 개소식에는 네팔의 주요인사, 한국대사, 네팔 국왕의 왕사인 린포체스님이 참석, 법문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을 보시할 예정이다.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은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한 무료급식, 병들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임산부와 아이들을 위한 의료구호,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문맹자를 위한 교육등 네팔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특히 직업훈련을 위해 미싱·목공예 실습장도 마련하여 6개월과정의 직업교육도 실시한다. 앞으로 농업기술, 전자부품 수리등의 과정을 확대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은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199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마을'을 운영하며 네팔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활동과 문화프로그램을 전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 건립을 위해 현재까지 1천여명의 한국불자들이 1억5천여만원을 십시일반으로 보시했다. 전체완공을 위해서는 2억여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동참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동참비를 세우고 동참명부를 새길 계획이다.

김동흔이사장은 "네팔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룸비니가 있는 곳이지만 자체적인 산업기반이 전무하여 실업률이 50%에 육박하는 세계적인 빈곤국가이다"며 "우리불자들이 더욱 정성을 다해 네팔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주고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해동용궁사 경로잔치
지역노인 5백명 초청

부산 해동용궁사(주지 정암)는 17일 지역노인을 위한 연예인 초청 경노잔치를 벌였다.

23회째를 맞이하는 경노잔치에는 최현돌 기장군수, 김동주의원을 비롯하여 지역노인과 불자 5백여명이 참석하여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현스님(밀양 선우사 주지)과 김상국씨가 출연하여 찬불가와 민요, 가요로 노인들에게 흥겨움을 주었다.

천미희 기자

불국사·대흥사 글짓기대회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와 해남 대흥사(주지 보선)는 9일과 10일 각각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불국사 제 14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는 청운교와 백운교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5월21일부터 31일까지 불국화랑에 전시된다. 또 대흥사 제5회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는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린다.

김원우·이윤호 기자





◇안동 봉정사를 찾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기와불사에 동참, 청기와에 영어로 '엘리자베스'라고 서명했다 〈사진 위〉. 여왕은 또 주지 문인스님으로부터 '一念萬年去'라고 쓴 족자를 선물받고 기뻐했다 〈사진 아래〉.

"아름다운 절 길이 추억에…"
英여왕 봉정사 참배…기와불사도 동참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 현존 한국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인 봉정사 극락전(국보15호)과 법고시연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영국여왕은 방한중인 21일 안동시를 방문,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봉정사와 유교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하회마을을 방문했다.

이날은 특히 여왕의 73번째 생일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2시45분경 봉정사에 도착, 주지 문인스님과 총무 성묵스님의 안내로 경내를 둘러봤으며 대웅전앞에서 두손을 다소곳이 모은채 불상과 탱화등을 보며 "아주 아름다운 사찰로 길이길이 추억에 남을것"이라고 감탄, 특히 극락전을 보고는 "하나의 오래되고 거대한 나무조각같다"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 극락전 앞뜰에서는 참배객들이 쌓아놓은 아담한 돌탑에 소원을 비는 돌탑개를 올려놓기도.

이어 여왕은 범종각과 만세루에서 타종과 법고시연을 관람했다.

봄물이 한층오른 산사의 정취를 배경으로 경건함과 힘을 갖춘 종교의식이 펼쳐지자 여왕은 크게 매료된 듯 "너무나 아름답고 인상적인 경치"라며 감탄사를 아끼지 않았다.

여왕은 이날 방명록에 '조용한 산사 봉정사에서 한국의 봄을 맞다'는 글귀아래 영어로 '엘리자베스'라고 서명하고 청기와에도 같은 글씨로 서명했다.

여왕은 문인스님으로부터 폭 40cm, 길이1.5m크기의 족자를, 정동호 안동시장으로부터 하회탈(양반탈)을, 이천시로부터 청자화병을 선물받았으며 30여분만에 봉정사를 떠났다.

문인스님은 "여왕의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족자에다 조사어록을 인용해 '일념만년거(一念萬年去)(한 생각이 만년을 간다)'라는 구절을 썼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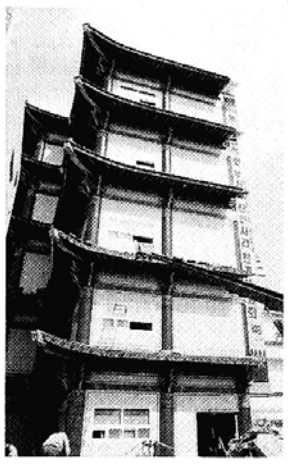
천등산 봉정사는 의상대사가 682년 부석사에서 종이 봉(鳳)을 날려서 내려앉은곳에 지었다는 절로 대웅전(보물55호) 화엄강당(보물448호) 고금당(보물449호)등 문화재가 많다.

또 얼마전 발견된 대웅전 벽 탱화에서 대웅전의 건축연대가 극락전보다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을 짐작케하는 단서가 발견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조사중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 英여왕 봉정사 참배 화보 부다피아(www.buddhapia.com)서 보세요.

영남불교대 법당·학사 낙성
5층 건물 시민선방·서점·예식장등 갖춰

인터넷 대학도 개설



◇영남불교대 신축학사 전경.

영남불교대학·관음사(주지 우학)는 5월 3일 신축법당및 학사준공법회를 개최하고 21일까지 준공기념 특별행사주간을 마련한다.

신축건물은 대지 6백평에 건평 6백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규모이며, 식당 종무소 서점 시민선방 문화센터 강의실 법당 예식장이 들어서는 종합포교도량이다.

특별주간 행사는 3일부터 13일간 성파 삼중 자광 목탁스님 박완일교수등 초청 법석과 석학 강연을 펼친다. 이어 10일부터 대법당에서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사리 5과 친견행사와 연예인 축하공연도 열린다.

또 3일부터 15일까지 신도증 즉석 발급행사가 열리며 7일에는 헌혈행사가 8일 오전 11시에는 관내노인 5백여명 초청 경노잔치가 개최된다.

특히 10일 개관하는 문화센터는 사찰전통요리 기체조 국악 수지침 한지공예 다도 불화그리기등의 강좌가 개설된다. 이를 기념하여 17일 이틀간은 연극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가 공연된다.

한편 영남불교대학은 낙성식에 맞춰 인터넷불교대학도 개설해 첨단시대에 걸맞는 교육도량의 면모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윤호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밝은길 아봐타센터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불갑사 선원 개원
대범종 타종식도

영광 불갑사는 17일 선원개원식 및 1천관짜리 범종 타종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원한 불갑사 선원은 대지 3백평에 40평 활작집 양식으로 6명의 수행납자가 입방했다. 불갑사 선원은 6·25때 소실된 것을 복원했다

천운스님(향림사 조실)은 법어에서 "백제불교가 처음들어온 불갑사에서 5년에 걸쳐 불사한 선원을 개원한 것은 이 지역 불교의 부흥을 기약하는 것이다"며 "백제불교 성역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산스님(불갑사 조실) 다정스님(백양사주지) 김봉렬 영광군수, 안택수 영광경찰서장, 김규현 영광군의회 의장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백제시대 불교 초전지로 알려진 불갑사에 지난 17일 선원이 설립 개원됐다.

경주 제11회 충담재

한잔 차에 안민을 노래한 충담스님을 기리는 제11회 충담재(추진위원장 이임수, 동국대교수)가 18일 경주 계림숲에서 열렸다.

헌다 헌시 헌악 향가헌송 화관무 단막극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행사에는 성타스님(불국사주지)을 비롯하여 윤경렬(향토사학자) 김구석(남산사랑모임 대표)씨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윤호 기자

통도사 금강계단 3천불자 수계

양산 통도사(주지 월파)는 22일 설법전에서 금강계단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현산대종사를 계사로 20일부터 22일까지 치뤄진 금강계단 수계산림법회에는 3천여명이 수계를 받았다. 수계산림이 진행되는 동안 하루 3차례씩 법회가 열렸으며 초우스님(전 통도사주지) 지안스님(통도사 강주) 월파스님(통도사 주지)이 법문했다.

회향법회에서 현산계사는 법어를 통해 "일상속에서 수계의 의미를 되새기며 생활하는 것이 수계를 받는 참의미이다"고 수계의 공덕과 의미를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대불청 경기회관 개원
법회·문화강좌 마련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회장 문성열)가 5월 2일 오후 3시 경기불교회관을 개원한다.

수원시청앞 성보빌딩에 자리한 경기불교회관은 총 40평규모로 대불청 경기지구 11개 청년회원들의 원력으로 마련됐다.

경기불교회관에서는 앞으로 대중법회와 함께 불교사상강연회, 불교 및 문화강좌등이 개최된다.

김정은 기자

시각장애인 등반대회
문경 모전 복지관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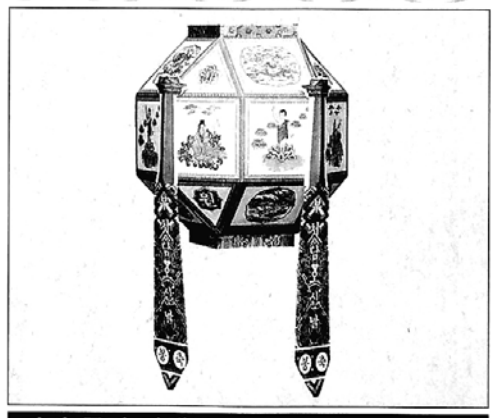
문경 모전복지관(관장 현관스님)은 5월 1일 오전 9시30분 제6회 시각장애인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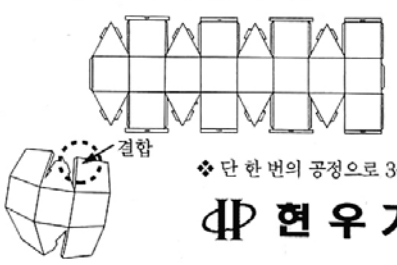
이날 등반에는 시각장애인 1백여명과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문경새재 제 1관문에서 제 2관문까지 총 6.7Km 구간에서 이뤄진다.

집결지는 점촌역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 0581) 555-0108

이윤호 기자

그날로 氣치료 능력자가 된다.
레이키
수련을 한 일이 없는 사람도 그날부터 氣치료 능력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레이키(Reiki)법 입니다. 이미 세계의 의료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오스트랄리아, 캐나다와 브라질, 인도 등의 나라에서 3백만명이 넘는 레이키요법가 (氣치료능력자)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종합 병원들에서는 의학적 치료와 레이키요법의 협진 체제가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 나(박희준)의 레이키 마스터로서의 자격
나는 氣와 정신세계의 관련 번역 저술가로서 번역서 1백권 이상, 저서 10권 이상을 낸 기공연구가입니다.
인류의 복지 향상에 기공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속성식 기공법을 찾아 헤매던 끝에 1997년부터 레이키의 세계와 만났습니다. 도합 7-8차례 일본을 오가면서 레이도 레이키의 아오키선생, \\레이키의 우에노선생, 가이아레이키의 노사카선생, 그리고 오스트랄리아계의 딤 버드선생과 카와무라 선생, 영국계의 미키트리스선생에게서 일본고유의 전통적 레이키법, 미국에서 개발된 카루나(자비) 레이키법(정신면과 영성의 개발에 더욱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을 전수받아 세계의 {레이키 문화}를 폭 넓게 터득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유일하게 우스이식 레이키 마스터와 카루나식 레이키 마스터를 겸하고 다채로운 레이키법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능력도 일취월장 향상하여 최근에 레이키법을 전수받는 분들에게는 더욱 높은 능력을 갖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험담
1. 어느 기공사(42세) 어튠먼트를 받을 때 백회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더니 그것이 몸의 중앙(충맥)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진동은 더욱 깊은 층에서 일어났고 더욱 정밀한 파장으로 느껴졌다. 백회로부터 신선하고 상쾌한 기운이 몸의 안팎으로 마치 폭포수 같이 흘러 내린 것을 느꼈다. 전수받고 난 후에 길을 걸을 때에도 하늘과 백회가 氣의 기둥으로 이어진 느낌이었다.
2. 어느 기공 수련 6년차(64세) 어튠먼트를 받을때 묵직한 기운이 단전에 따뜻하게 전달되었다. 발목이 따뜻해지면서 단전에 모인 기운이 무릎을 통해 발끝으로 빠져 나가는데 이 때 전에 아팠던 무릎이 몹시 빠근해진 후 바로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3. 어느 보살(48세) 어튠먼트를 받는 순간 자색의 불길 같은 것이 하늘하늘 소용돌이를 치면서 내 이마로 들어오는 듯하더니 몸 전체에 가냘프게 진동이 일어났다. 제4상징과 만트라를 부여받고 백광과 오로라 모양의 光의 난무 등을 비전으로서 보았다.
4 어느 일본인 여성 레이키 마스터(36세) 어튠먼트를 받을때 좋은 향기가 올라오는 듯하더니 그것이 점점 강열해지면서 마치 꽃밭에 있는 것 같은 좋은 향내가 계속 났다. 잠시 그것을 즐기고 있었더니 갑자기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눈 부신 光이 나타났다. 황금광, 금색광,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 여타의 氣치료법과 다른 레이키요법의 특징
1 자기가 자기의 병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다.
2 원격치료를 쉽게 할 수 있다.
3 환자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집단 치료를 할 수 있다.
4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정해져 있어 쉽게 배울 수 있다.
5 질병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키(氣)를 자유자재로 끌어다 쓸 수 있다.
6 부작용이 없고 氣가 소모되지 않는다.
· 레이키법의 전수 절차
희망자를 그날부터 레이키요법가로 만들어 주는 레이키법의 전수(어튠먼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제 1단계 : 1-2일, 제2단계 + 제3단계 : 1-2일
▶전문임상응용단계 : 1일 + 1일 + 1일 + 1일
※재충전을 위한 무료 재학습제도도 실시중입니다.
· 레이키요법의 효과와 유효 분야
환자의 몸의 레이키(氣)를 넣어 주어 질병의 치료를 돕는 레이키요법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긴장의 이완을 촉진하여 환자가 깊은 고요함과 안심감을 맛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깊은 고요함과 안심감은 사람의 자연치유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 바탕입니다.
자연치유력은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의 활동이 정상화 되도록 돕고, 세포의 에너지 교환과 혈액의 미세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의 강화도 촉진합니다.
레이키요법은 동양의학적으로는 氣의 응체, 氣의 편재, 氣의 부조화, 氣의 부족 등을 바로잡아 주며 차크라와 오라의 이상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하여 동통을 완화하고 아픔을 해소하며 활력을 높여주고 가벼운 질환들에 대하여는 즉효성의 효과도 발휘합니다. 약물남용과 관계증독, 발달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도 탁월한 협진 효과를 발휘합니다. 감정, 정신, 영혼에 미치는 효과가 우수하여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레이키요법은 응급상황에서도 쓸고가 많고 모든 간호부와 호스피스, 만성병 환자의 관리에서도 높은 쓰임새가 있음이 미국등지의 종합 병원에서 속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구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전화 (02)720-5682, 725-2311, 핸드폰 019)392-2557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이원범의원-방송대 이인경교수

불교비하 발언 '물의'

종교편향대책위 공식사과 요구

방송위, sbs '서세원의…' 연출자 경고

공인(公人)들의, 스님 또는 불교비하 발언 등 종교편향적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개그맨 서세원이 sbs TV 프로그램에서 개신교 편향적인 방송진행으로 불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데 이어 자민련 이원범의원과 방송통신대 이인경교수 등이 공개석상에서 스님과 불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자민련 이원범의원(대전 서갑)은 21일 자민련 의원총회에서 선거구제 문제를 토론하며 "중선거구제는 중이 입후보하는게 아닌데, 중선거구제냐"며 스님을 비하하는 비유를 들어 현행 소선구제 유지를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교계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의원은 22일 "불교계와 스님들에게 누를 끼쳐 유감이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불교계를 위한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종교편향대책위(위원장 현진, 원혜스님)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키로 했다.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 사퇴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다른 불교비하 발언의 주인공인 방송대 이인경교수(국문학과)는 3월17일 국문학사 강의시간 중에 MBC-TV의 '칭찬합시다'를 소재로 이야기하면서 "절에서 불공해 낳은 아들은 모두 스님들의 자식이다", "MBC TV '칭찬합시다'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인이다"는 등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종교편향대책위는 22일 이인경교수의 종교편향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방송대에 전달했다.

한편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sbs TV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에 대한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의 항의공문이 접수되고 시청자 전화가 연일 빗발치자 20일 연예오락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연자 중 개신교를 믿는다는 할머니에게 신앙생활과 관련된 발언을 유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특정 종교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편견을 조장한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경고 및 연출자 경고를 결정했다. sbs 심의부 관계자도 "다소 지나친 부분이 있어 자체 사후심의에서 지적했으며 연출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교편향대책위에 사과공문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sbs의 이번 공개사과는 조계종의 즉각적인 문제제기와 전화·PC통신을 통한 불자들의 자발적인 항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종교편향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성운·김재경 기자 (swjung@buddhapia.com)

종단-단체 초파일 앞두고 '자비의 쌀모으기' 운동 확산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결식아동, 실직자, 독거노인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기위한 자비의 쌀모으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제1차 자비의 쌀모으기 운동을 마친 태고종은 계속해 '자비보시행 실천하기'를 주제로 5월 31일까지 제2차 쌀모으기 운동을 펼친다. 태고종은 종단차원에서 사업을 주도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02)745-2030

서울 강남포교원도 3월부터 자비의 쌀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다. 포교원 2층 법당에 항아리를 마련해 놓고, 자비의 쌀을 모으자는 스티커까지 제작배포해 신도들이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02)539-2631

부산 두송사회복지관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무의탁노인 및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을 돕기위한 백미나누기 사업을 시작했으며(051)265-9471, 서울 삼전종합복지관도 나눔의 쌀 모금운동에 착수했다. (02)421-6077

이밖에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가 지난해부터 저소득 실직가정을 위한 쌀모으기 법회를 열고 있으며, 경불련 이웃을 돕는 사람들도 실직자를 위한 쌀모으기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은자 기자



◇20일 민통선내 철의 삼각 전망대앞 광장에서 열린 평화통일 기원 및 전몰장병고혼 천도를 위한 수륙영산대법회.

태고종 '환경선언문' 채택

20일 수륙대재 3천명 동참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20일 월정리 전망대앞 광장에서 '조국평화통일 기원 및 전몰장병고혼 천도를 위한 수륙영산대법회'를 봉행했다. 보안·지암 총무원 부원장 스님을 비롯 종단 간부스님들과 신도 등 3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1부 식전 행사 2부 기원법회 3부 수륙영산재 4부 방생및 환경보존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암 부원장스님이 대신 읽은 대회사에서 인곡 총무원장 스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과보"라고 지적하고 "오늘 법회를 계기로 불신과 반목, 편협된 사고를 버리고 대동단결하여 국가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를 계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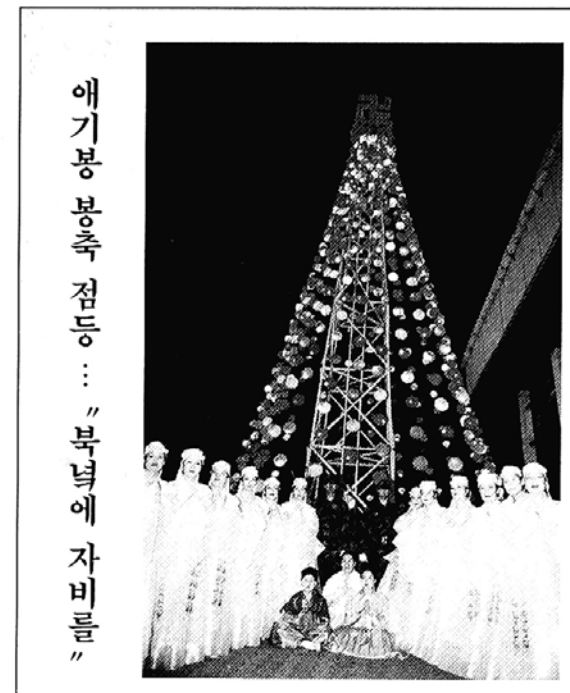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들은 △지구환경 보존 실천을 불자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공동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부처님의 연기사상에 입각하여 검소한 삶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것 △매월 사찰주변의 정화와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할 것 △발우공양정신을 발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것 등 5개 항의 환경보존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동서화합 불교본부 29일 창립선포대회

동서화합불교운동본부(준비위원장 진관스님)는 29일 오후 2시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창립선포대회를 갖는다. 동서화합불교운동본부는 법장(수덕사주지) 도후(신흥사주지) 성타(불국사주지) 스님 등 조계종 본사주지스님 5명을 공동대표로, 진관(불교인권위원장) 원종(중앙승가대 동문회장)스님 등 7명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진관스님은 "지역이나 종단의 이해를 떠나 동서화합의 장을 불교도들이 앞장서서 열어가야 한다"며 "이를위해 동서간 교류와 화합을 주제로 한 불교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애기봉 봉축 점등… "북녘에 자비를"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에 통일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북녘에도 깃들기를 기원하는 연등이 밝혀졌다. 조계종총무원과 해병대 청룡부대는 22일 애기봉 전망대에서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한 교계인사, 청룡부대 부대장과 군불자, 지역유지 등 9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식을 봉행했다. 김포=고영배 기자

미륵사지 석탑 해체복원

세운지 1300여년 만에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최대 석탑인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이 세워진지 1300여년만에 해체 복원된다. 이로써 일제가 1915년 붕괴를 막는다며 석탑의 파괴된 부분에 흉물스레 바른 시멘트 덧칠도 벗겨지게 됐다.

문화재관리국(국장 정문교)은 22일 "붕괴 가능성 때문에 지난 1년여동안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복원방법은 '해체-보수위원회'를 구성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 7세기 초 백제 무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륵사터 석탑은 그동안 붕괴 가능성뿐 아니라, 일제가 덧바른 시멘트가 수명을 다해 탑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 해체 보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탑을 이룬 돌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 바닥에 뒹굴고 있는 형편이고, 장마철에는 습기가 탑 내부로 스며들어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군법당 법사없이 법회"

군불교진흥회 군종장병 30명 설문

군법당에서 열리는 법회에 법사가 없어 불교 군종병이 직접 법문을 하는 등 군법사의 보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신교와 달리 불교 군종장병이 정식 병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타종교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불교 군종장병들의 교리 이해 수준도 낮아 이에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군불교진흥회가 최근 군종장병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교 군종장교 의식조사' 결과 밝혀진 것.

먼저 '법문은 누가 하나'란 질문에 군종병 13명, 인근사찰 스님 11명, 상급부대 군법사 7명, 재가법사 4명, 불교 비디오상영으로 대체 1명 순(교차 응답)으로 답변해 법사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드러냈다. 법당 운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법회용 물품 확보' 14명, 주변의 이해부족(간부의 비협조, 업무전념의 어려움) 10명, 법사 섭외 7명 순으로 응답해 군법당에 대한 지원의 확충과 불교 군종병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종장병의 신행 경력은 1~2년이 15명, 5~6년 4명, 3~4년 3명, 13년 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신행경력이 없는 군종병도 7명에 달해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불교 군종장병들은 이밖에도 불서 합장주(염주) 독경테이프 간식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으며 군종병 연수교육과 군법사 배출의 확대, (외부사찰 등의)군법당에 대한 애정과 관심, 군종병 입지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뉴스 & 뉴스

구미 금오사회복지관 개관

공단지역인 구미에 불교계 복지시설인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이 29일 개관한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은 연건평 470평에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공부방 및 쉼터, 기능교육실, 강당,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갖추고 있다. 금오복지관은 실직자가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 실직자 가정에 대한 지원과 실직자 긴급 지원 서비스 등에 주력한다. <관장 인터뷰 4면>

한명우 기자

영문소식지 '로터스 랜턴' 창간

영문판 한국불교 소식지 'Lotus Rantern(로터스 랜턴)' 창간호가 22일 나왔다. 창간호는 20쪽 분량으로,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창간사,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안내, 한국의 사찰-불국사, 한국불교 소식 등을 실었다. '로터스 랜턴'은 계간으로 5백부를 발행해 외국정부의 주요기관과 대학도서관, 주한외국대사관 등에 무료로 배포된다. 정성운 기자

보리수자치회 조계종 방문

파행운영되고 있는 보리수마을 주민자치회장 장이상씨 등 자치회 관계자 3명은 20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총무부장 원택스님을 만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이상씨는 "자치회가 마련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조계종단이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며 "정상화될 때까지 총무원에서 매달 5~6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도 부탁했다"고 밝혔다. 자치회는 조계종 총무원이 사태해결을 위한 별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명우 기자

"한민족동포 법적지위 보장"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회장 법륜스님)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과 소련지역의 한민족 동포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불교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재일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중국과 소련지역으로 이주한 동포와 후손을 법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원우 기자

정화회의 종정 추대식

정화개혁회의는 5월7일 오후2시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종정 추대식을 갖고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을 새 종정에 추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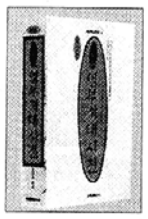
정화개혁회의 총무원장 정영스님은 23일 "제2정화불사의 실천수행과 원만성취 회향을 위해 제10대 종정 추대식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 화제의 신간 ·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中人 洪淳徹
▪제 1 편 : 부처의 생애
▪제 2 편 : 부처의 가르침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 (sakyamuni Buddh)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말씀.
· 불교란 「삶의 바른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 관음역서 ♣
◆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앙장 신국판 정가 40,000
◆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 정가 25,000
◆ 사주학 핵심비결 앙장 신국판 정가 25,000
◆ 고전 풍수학 설심부 앙장 신국판 정가 25,000
◆ 혜서 명리진평 앙장 신국판 정가 30,000
◆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정가 15,000
◆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정가 15,000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고 자식가정문제등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 신/ 양장본 /40,00원
관음출판사 ☎ 921-8434, 929-3740 FAX 929-3470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久服卽輕身耐老 延年不老) - 동의보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9시 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의 보도("오가피 알고봤더니 金가피")에 다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가 담긴 오가피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 추출액, 오가피 열매 발효액, 오가피 묘목
▮ 주소: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0333-682-5034/3
▮ 인터넷 홈페이지:http://myhome.netsgo.com/baeghj/

세상을 붓다의 향기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불교전문출판 불회사

불교전문출판 불회사에서 하는 일
초파일 홍보물 기획제작
사찰 포교용 홍보전단 기획제작
법보시용 책자 발간, 경전 및 법요집 발간
불교서적 기획출판, 사보寺報 기획제작
각종인쇄물 기획제작
■ 불회사의 네가지 장점과 약속 ■
첫째▶불교활동을 다양하게 해 온 젊은 불자들이라 기획력이 뛰어납니다.
둘째▶불교출판에 대한 원력으로 오랫동안 자료수집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셋째▶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길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수입금 중 일부를 불교계 포교사업 및 복지사업에 회향합니다.
불교전문출판 불 회 사
501-1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56-7
전화 (062)225-8825~6 팩스(062)225-8826

이 달 의 책



퇴계의 생애와 학문

이상은 지음
A5신 336쪽
값 7,800원
예문서원

'성균관'이나 '향교'에 머물러 있던 '유교'를 그 본래의 모습인 '유학'으로 바꾸어 낸, 한국 신유가 1세대 학자인 이상은(1905~1976) 선생의 저술로, 1973년에 문고판으로 나왔던 것을 요즘 독자를 위해 다듬고 보태어 펴낸 책이다.
퇴계와 관련된 수많은 책 가운데 아직도 이 책만큼 퇴계의 겉과 속을 정밀하면서도 쉽게 밝혀 낸 책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딸에게 들려 주는 작은 철학

클라르트 시몬 세파 지음
인상원 옮김
B6 변형 256쪽
값 6,000원
동문선

그 동안 우리 나라 제도 교육의 철학 교육은 유명한 서양 철학자 이름 외우기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철학적 사고하기'가 빠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철학 교수가 딸에게 주는 편지 형식으로 쓴 이 책은, '남자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기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독자 스스로가 존재와 세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禪 깨달음의 길

오고산 지음
A5신 364쪽
값 8,000원
반야샘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고산 스님이 대중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게 쓴 선 이야기. 정교한 언어와 현란한 수사로 이루어진 학자들의 선 해설서와는 달리 쉽고 편안하게 읽히면서도 선의 본질에 다가서게 한다. 수행자로서의 엄정함과 체험이 어우러진 결과일 것이다.
조사들의 일화와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는 선화(禪話)를 통해 선의 고갱이를 드러내 보인다.



불교 선수행의 핵심

나나포니카 지음
동위치 옮김
A5신 236쪽
값 7,000원
시공사

붓다의 가르침은, 정신 훈련과 선수행을 하려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적과 기질과 능력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가르침 중 하나인 '염처법(念處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엮은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이다.
'선수행의 핵심' 또는 '완전한 진리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염처법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소상히 밝히고 있다.



종교의 위기

우에다 노리유키 지음
양억관 옮김
B6신 225쪽
값 5,800원
푸른숲

"'종교 크라이시스', 그것은 종교가 앓으키는 위기이며, 종교 자신의 위기이다. 그리고 종교라는 거울에 비친 현대라는 시대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는 현대 종교의 위기에 대한 지은이의 인식은, 종교가 일으키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공허한 비판을 넘어 종교와 현대 사회의 실태를 직시하고 창조적인 전망과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유식학 개론

이만 지음
A5신 284쪽
값 5,500원
민족사

세계는 마음의 표상에 불과하다는 유식설의 학문 체계와 수행론 등을 다룬 개론서이다. 다시 말해, 불교의 심층심리학이라 할 유식에 대한 이해 즉, 마음의 구조와 그 작용을 잘 인식하고서 활동하면 궁극의 목표인 성불(成佛)에 이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식 전반을 살피고 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쓰이는 철학적 개념어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책의 체계와 서술 구조가 논리적이므로 입문서로서의 몫은 충분히 감당한다.



서포소설의 선과 관음

설성경 지음
A5신 224쪽
값 10,000원
집문각

우리 고전에 투영된 불교 사상, 특히 선(禪) 사상의 문학적 형상화는 주로 선시(禪詩)가 주축이었고 연구의 중심 또한 그 쪽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서포 김만중의 철학적 기반이 불교 사상이었다는 점에 주목,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선의 세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과 『사씨남정기』는 그 소설적 배경이나 주제가 관음 신앙임을 밝혀 낸다.
서포의 소설이 '선과 관음'이라는 주제를 독창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논증하는 값진 연구서다.



동강에는 굽이마다 생명이 흐른다

신경림 외 지음
A5신 256쪽
값 10,000원
다른세상

'보존'이나 '개발'이나 또는 '공생'이나 '정복'이나 하는 자연과 인간의 첨예한 대립의 한가운데에 서서 어느샌가 우리 산하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름, 동강! 그 동강의 아름다움과 그 곳에 등 기대어 발 담그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담은 책이다.
신경림, 원병오, 김용택 등 '동강을 사랑하는 사람' 7명이 함께 부른 생명의 노래.



역주 선림승보전 상 (譯註 禪林僧寶傳 上)

혜홍 각범(慧洪覺範) 지음
원철(圓徹) 역주
A5신 양장 464쪽
값 19,000원
장경각

깨달은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지엽(枝葉)들은 모두 버리고 정실(精實)만을 오롯이 모아 놓은 책으로서, 『경덕전등록』, 『조당집』 등을 계승한 보다 정확하고 정선된 선종 사서(史書)이다.
혜홍 각범 스님이 발과 귀로 찾아낸 81명의 조사가 남긴 말과 행동을 통해 '교외별전(敎外別傳)'·'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 불리는 전등(傳燈)의 역사를 밝히고 있다.

스테디셀러 찾아가기

주요 불경의 요점

허공의 몸을 찾아서



석지명 지음 / A5신 620쪽
값 7,500원 / 불교시대사

"가만히 있으면 무식은 면한다."는 말이 있다. '말 없음'의 미덕에 대한 세간의 과장된 믿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불가(佛家)에서는 어떨까? 역시 '말 없음'은 으뜸가는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디 그뿐인가. "언어를 떠난 사람이 오히려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無舌人解話)."고 했다. 종용록(從容錄)의 일절이다.
그러나 불교는 다경전(多經典)·다방편(多方便)의 종교이다. 오죽했으면 8만 대장경이라 했을까.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첫발을 내디딘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마치 탁 트인 들판이나 큰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꼴이다. 하지만 같은 어디로도 열려 있다. 또한 그 모두가 같이 아닐 수도 있다. 언제 암초에 부딪칠지, 바람으로 뭘 어질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잡이가 필요한 것이다. 수많은 경전이 생겨난 것도 그런 까닭에서이다. 그렇긴 하지만 경전은 여느 길잡이와는 다르다. 길 그 자체이기도 하니까. 길잡이이자 곧 길인 것이다. 말 없음의 말이요, 길 아닌 길이다. 그렇다면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선 믿음직한 나침반부터 구할 일이다.
감히 말하건대, 『허공의 몸을 찾아서』야말로 경전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나침반의 구실을 하기에 조금의 모자람도 없는 책이다. 사실 나침반이란 표현도 이 책에 대해서는 삼한 결례다. '허공'과 같은 책이기 때문이다.
허공은 어떤 경우든지 스스로를 꼴지우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미 허공이 아니니까. 그 대신 감싸안은 모든 것을 저마다의 모습으로 꼴지워 준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게, 따라서 허공의 '몸'은 세계 그 자체다. 개미 한 마리, 풀 한 포기가 그대로 허공의 몸이다. 심리만상이 그 모습 그대로 텅 '비어 있음'의 살체이자 불성의 나툼인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것을 보게 한다. 경법한 '읽기'를 통해 그것을 가능케 한다.
이 책의 성격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말 그대로 '주요 경전의 요점'을 밝힌 책이니까. 하지만 이 책의 진면모는 그게 아니다. 경전을 '용감하게' 줄여 놓았거나 내용을 해제(解題)해 놓은 책들과는 격이 다르다. 경전의 핵심을 밝힌 대목은 그야말로 화룡정정(畵龍點睛)이요, 잘 익은 과일의 속살 같은 문장들은 그대로 보석이다.
불가에서 말하는 '말 없음'의 미덕은 무식을 감추기 위한 세간의 처세와는 다른 차원이다. 무조건의 침묵을 칭송한 게 아니다. 49년 간 장광설을 하시고도 '한 마디 말도 한 바 없다'는 능가경의 일절이 의미하는 바와 같은 침묵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부처의 경지를 넘볼 수 있는 사람은 범어리 말고는 없다.
8만 대장경과 능가경의 '불설일자(不說一字)'를 나란히 양팔저울에 올렸을 때 이루어지는 균형 같은 경지에서는, 8만 대장경의 한자 한자가 그대로 침묵이다. '말 없음의 말'인 것이다.
이 책 또한 '책 아닌 책'이다. 경법한 독서 행위로도 '말 없음의 말'을 읽게 하는 드물게 귀한 책이다. 손가락이면서 달이요, 길잡이이면서 길인 책이다.

윤제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yunjh@buddhapia.co.kr

책으로 여는 부처님세상

법구경 구절을 수화 연습용 문장으로 보여 주는 불교 수화책

『자비의 수화교실』

(혜성 스님/ 불광)

청각 장애인들의 몸짓 언어인 수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화책은 약 30여 종. 그러나 대부분의 책들이 불교 용어를 잘못 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교 수화 교재까지도 조잡하고 단순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 수화와 불교 수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재가 출간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광림사 연화복지원(원장 혜성 스님)이 3년 여의 작업 끝에 5월 말 수화 교재 『자비의 수화교실』과 법책부록 『불교수화 용어집』을 도서출판 불광에서 펴낸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청각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이다. 각 면마다 경전 문구를 수록한 것은 물론 법구경 구절을 수화 연습용 문장으로 제시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 일반 수화 교재에는 없는 불교과를 따로 마련해 현재 쓰이고 있는 불교 단어 70여 개를 인용, 간단한 용어해설과 손짓하는 방법을 수록했다. 『불교수화 용어집』을 별책부록으로 만든 것도 청각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 혜성 스님은 '청각 장애인 법회를 운영하면서 불교 수화를 모르고 살아온 이들에게 불교 단어를 이해시키기 힘들었던 것이 수화책 발간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발간의 계기를 밝혔다.

잔잔 독서



거문고 줄 고르듯

로산 지음 / A5신 264쪽
값 9,000원 / 고른

출가 수행자들을 향한 세간 사람들의 궁금증은 출가 동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슨 속깊은 사연으로 출가까지 하게 되었는지 늘 호기심 어린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 책의 저자 효산 스님은 도연명의 시를 인용한다.
"사람들은 스님들이 출가하는데 꼭 특별한 사연이 있을 줄 알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새가 하루종일 날아다니며 새끼들의 먹이를 구하다가 해가 지면 피곤한 날개 죽지를 천천히 움직여 둥지로 날아가듯이, 또는 맑은 바람이 불어 흰구름이 산마루를 돌아오듯이, 저는 특별한 계기없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절에 찾아왔습니다."
출가 수행자에게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그 절실함이 수행정진을 채찍질하는 힘이 되겠지만, 물 흐르듯 거문고 줄 고르듯 자연스런 법연이 흔들림 없는 수행의 원천이 되기도 함을 이 책은 보여 준다.

출가 수행자에게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그 절실함이 수행정진을 채찍질하는 힘이 되겠지만, 물 흐르듯 거문고 줄 고르듯 자연스런 법연이 흔들림 없는 수행의 원천이 되기도 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자연스런 인연으로 출가하여 30여 년을 전국 각지의 선원에서 수행해 온 효산 스님의 지나온 생의 기억들을 담고 있다.
어린 시절 불교를 만나게 된 인연과 입산 후 은사 전강 스님을 만나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왔는가 하는 수행기, 난해한 불교 교리가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경법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주는 진언의 공덕, 불자의 세간살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일러 주고 있다.



한국종교연구원 지음/ A5신/ 452쪽
값 14,000원/ 정년자 펴냄

이 책을 말한다

『 종교 다시 읽기 』

소장학자들이 이야기로 풀어 쓴 종교학 에세이

김중근 기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마다 나름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리는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럿일까요. 진리가 하나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교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인간 문화의 다양성을 생각한다면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주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적응하면서 전개시켜 온 문화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이런 현실이 진리가 하나냐 여럿이냐 하는 물음에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음은 다양한 종교적 진리 주장들이 공존하는 '다종교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요. 종교와 진리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 즉 배타적 태도, 포괄적 태도 병행적-다원적 태도 때문입니다. 배타적인 절대 신념이 바깥으로 유출될 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일부 종교인들이 불상의 목을 자르고, 마리아상에 불을 지르는 짓은 분명한 폭력입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종교가 유일한 진리임이 분명한데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주관적인 주먹구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종교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진리가 하나냐 여럿이냐 하는 물음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은 '아니오'입니다. 종교라는 현상에 반드시 진리 문제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 문제는 종교사 속에서 우주, 인간, 신적 존재 등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유가 나타남에 따라 비로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가 진리에 대한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종교를 열등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미 '종교란 진리에 대한 추구다'는 식의 편협한 종교 정의를 따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다시 읽기』는 '종교는 환상인가' '종교 체험 없이 종교를 연구할 수 있나'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무엇이 있나' 등 30~40대 소장 종교학자 13인이 한국의 종교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소장학자들이 지속적인 토론을 거쳐 써낸 이 책에는 우리 주변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물음 35가지를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바 사이비 종교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용어인지를 지적하기도 하고, 유교를 종교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다루면서 종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보수 종교의 일방적인 논리에 기대어 있는가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처럼 이 책의 각 문답 안에는 종교 일반과 특정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뿐만 아니라, 종교를 둘러싸고 전개된 중요한 쟁점, 그리고 종교를 보는 주요한 시각이 모두 녹아 있다.
대개의 개론서들이 정형화된 틀 내에서 여러 가지 준비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비해, 이 책은 제대로 묻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나름의 색안경을 낀 채 종교 현상을 선입견으로 바라보기 쉬운 일반인들 인식에 대해 "왜"라고 계속 반문함으로써 독자들이 편견에서 스스로 벗어나도록 돕는다.

사이비 종교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용어인지를 지적하기도 하고, 유교를 종교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다루면서 종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보수 종교의 일방적인 논리에 기대어 있는가를 드러내기도 한다.

여시아문 추천 법공양 도서 -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며

1. 부처님의 생애 — 박경훈 지음/ A5신 380쪽/ 불광/ 값 6,000원
2. 고타마 붓다의 생애 — E.H. 브루스터 편저, 박태섭 옮김/ A5신 216쪽/ 시공사/ 값 6,000원
3. 붓다 — 폴커 초츠 지음, 김경연 옮김/ A5신 양장 210쪽/ 한길사/ 값 8,000원
4.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 — 한정섭 편저/ A5신 290쪽/ 불교대학교재편찬위원회/ 값 6,000원
5. 부처님 일대기 — 세운 역음/ A5신 280쪽/ 초롱/ 값 6,500원
6. 붓다와 그 가르침 — B.R. 암베드카르 지음, 박희준·김기은 옮김/ A5신 398쪽/ 민족사/ 값 7,000원
7. 부처님의 생애 — 안양규 옮김/ A5신 264쪽/ 불교시대사/ 값 5,000원
8. 부처님 생애 — 정각 역음/ A5 142쪽/ 운주사/ 값 4,000원
9. 불타 석가모니 — 와다나베 쇼오꼬 지음, 법정 옮김/ A5 368쪽 샘터/ 값 4,000원
10. 팔리경전이 들려 주는 고타마 붓다 — 최봉수 옮김/ A5신 342쪽/ 불광/ 값 6,000원

여시아문 통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신간을 보내 주십시오. 좋은 책이 독자 독자 겸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시아문 편집부 —

통신판매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나 우송해 드립니다.
* 5,000원 이상은 무송료 무료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83
전화: (02)737-0696, 732-1521
팩스: (02)737-0696

